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内 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內 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李 東 星

2002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일러두기

1. 조사대상지역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

2. 도 면
   - 본문의 조사지역 현황도 및 지역별 평면도는 도면 하단에 축소비율 및 스케일을 표시하였고, 지도의 방향은 磁北이다.
   - 본문의 토층도 및 유물도면은 $\frac{1}{2}$축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외의 비율로 축소한 것은 별도의 스케일을 표시하였다.

3. 지 도
   - 유적의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1:25,000을 사용하였다.

4. 기 타
   - 본 시굴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용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사용된 비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였다.

차 례

Ⅰ. 머 리 말 7

Ⅱ. 주변환경 11
1. 자연 · 지리적 환경 11
2. 고고 · 역사적 배경 13

Ⅲ. 조사경과 및 조사방법 19
1. 조사경과 19
2. 조사방법 19

Ⅳ. 조사내용 23
1. 조사지역 23
1) Ⅰ지역 23
2) Ⅲ지역 23
3) Ⅳ지역 26
4) 기타지역 32
2. 수습유물 32
1) 석 기 32
2) 빗살무늬토기 33
3) 무문토기 36
4) 백제토기 39
5) 자 기 39
6) 기 와 45

Ⅴ. 맺 음 말(조사결과 및 조사단의견) 50

도 면 차 례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 9

도면 2. 조사지역 현황도(1:25,000) ····· 10

도면 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1:50,000) ····· 15

도면 4. 大東輿地圖(麻田 일대) ····· 17

도면 5. Ⅰ지역 평면도 및 구획도 ····· 21

도면 6. Ⅰ지역 가구역 토층도 ····· 24

도면 7. Ⅰ지역 나구역 토층도 ····· 25

도면 8. Ⅲ · Ⅳ · 기타지역 평면도 및 구획도 ····· 27

도면 9. Ⅲ지역 토층도 ····· 29

도면 10. Ⅳ지역 토층도 ····· 30

도면 11. 기타지역 토층도 ····· 31

도면 12. 석기류 ····· 34

도면 13. 빗살무늬토기류 ····· 35

도면 14. 무문토기류 ····· 37

도면 15. 백제토기류 ····· 40

도면 16. 자기류 ····· 41

도면 17. 자기류 ····· 42

도면 18. 기와류 ····· 46

도면 19. 기와류 ····· 47

도면 20. 기와류 ····· 48

사 진 차 례

사진 1. Ⅰ지역 원경 ····· 55
사진 2. Ⅰ지역 가구역 5Tr ····· 55
사진 3. Ⅰ지역 가구역 4Tr ····· 55
사진 4. Ⅰ지역 가구역 4Tr 토층 ····· 56
사진 5. Ⅰ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토층 ····· 56
사진 6. Ⅰ지역 나구역 4Tr 전경 ····· 56
사진 7. Ⅰ지역 나구역 4Tr 토층 ····· 57
사진 8. Ⅰ지역 나구역 3Tr 토층 ····· 57
사진 9. Ⅰ지역 나구역 2Tr 토층 ····· 57
사진 10. Ⅲ지역 원경 ····· 58
사진 11. Ⅲ지역 탐색트렌치 ····· 58
사진 12. Ⅲ지역 1Tr ····· 59
사진 13. Ⅲ지역 1Tr 토층 ····· 59
사진 14. Ⅲ지역 1Tr 주거지 1(조사 전) ····· 60
사진 15. Ⅲ지역 1Tr 주거지 1(조사 후) ····· 60
사진 16. Ⅲ지역 3Tr 군용참호(조사 전) ····· 61
사진 17. Ⅲ지역 3Tr 군용참호(조사 후) ····· 61
사진 18. Ⅲ지역 3Tr 주거지 2, 3 ····· 62
사진 19. Ⅲ지역 4Tr 주거지 4 ····· 62
사진 20. Ⅳ지역 원경 ····· 63
사진 21. Ⅳ지역 가구역 3Tr ····· 63
사진 22. Ⅳ지역 가구역 3Tr 토층 ····· 63
사진 23.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 64
사진 24.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토층 上 ····· 64
사진 25.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토층 下 ····· 64
사진 26.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전경 ····· 65
사진 27.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1 ····· 65
사진 28.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2 ····· 65
사진 29. Ⅳ지역 나구역 6Tr 주거지(조사 전) ····· 66
사진 30. Ⅳ지역 나구역 6Tr 주거지(조사 후) ····· 66
사진 31. Ⅳ지역 다구역 6Tr 화덕자리(조사 전) ····· 67

사진 32. Ⅳ지역 다구역 6Tr 화덕자리(조사 후) ····· 67
사진 33. Ⅳ지역 다구역 ····· 68
사진 34. Ⅳ지역 다구역 2Tr(3차 복토선) ····· 68
사진 35. Ⅳ지역 다구역 3Tr(2차 복토선) ····· 68
사진 36. 기타지역 원경 ····· 69
사진 37.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 69
사진 38.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토층 上 ····· 70
사진 39.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토층 下 ····· 70
사진 40. 기타지역 확장트렌치 ····· 71
사진 41. 기타지역 확장트렌치 토층 ····· 71
사진 42. 몸돌 ····· 72
사진 43. 몸돌 ····· 72
사진 44. 몸돌 ····· 72
사진 45. 긁개 ····· 72
사진 46. 돌도끼 ····· 73
사진 47. 돌대패날 ····· 73
사진 48. 돌끌 ····· 73
사진 49. 돌화살촉 ····· 73
사진 50.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 ····· 74
사진 51.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 ····· 74
사진 52. 무문토기 구연부편 ····· 75
사진 53. 무문토기 동체부편 ····· 75
사진 54. 무문토기 저부편 ····· 76
사진 55. 백제토기편 ····· 76
사진 56. 백자잔 ····· 77
사진 57. 백자제기 ····· 77
사진 58. 백자대접, 흑유발 ····· 78
사진 59. 백자접시 ····· 78
사진 60. 백자종지 ····· 79
사진 61. 청화백자사발 ····· 79
사진 62. 백자호 ····· 79
사진 63. 각종 자기편 ····· 80
사진 64. 수키와 ····· 80
사진 65. 수키와 · 암키와 ····· 81
사진 66. 지도위원회 모습 ····· 81

Ⅰ. 머 리 말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는 1996년 이후 임진강 및 한탄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막고자 상습 범람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곡제 제방공사구간내 문화유적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적 · 유물의 확인 및 분포 파악과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천군은 군내에 군사보호지역이 다수 위치해 있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국립문화재연구소[1], 서울대학교 박물관[2], 연천문화원[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4], 경기도박물관[5]에 의해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지표조사 결과 임진강 일대에는 구석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각 시기별 유물이 채집되었으며, 확인된 유적들의 분포는 모두 자연제방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학곡리유적은 지석묘와 적석총, 유물산포지 5개소에서 구석기 및 신석기시대~삼국시대의 토기편과 마제석부, 석제 어망추 등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하지만 지표상의 흔적 외에 구체적인 유구나 문화층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지역의 문화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본 유적의 중요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범진산업(주)은 개수공사에 앞서 이 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 한탄강유역 상습범람지대의 제방공사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2000년 11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뢰하게 되었고, 지표조사 결과 공사구간 내에 유물 산포지 5개소와 고인돌 3기, 적석총 1기가 확인되어 주변에 구석기~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부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남쪽 강안의 유물산포지 2를 제외한 파괴의 우려가 있는 유물산포지 4개소에 대하여 매장문화재의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6]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공사의 시행 전인 2001년 3월 개수공사구간내 유물산포지 4개소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본 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동년 6월 13일 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시굴조사 초반 조사지역 내에 지장물 및 폭발물 처리문제로 조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동년 7월 11일 조사를 재개하였고 12월27일까지 Ⅰ지역 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Ⅰ지역 가구역과 각 지역의 유구내 조사는 배나무 등 수목의 보상문제가 해결된 2002년 3월 15일 조사를 재개하여 동년 3월 27일까지 실시하여 모든 조사 일정이 완료되었다.

---

1) 김성범, 1992, 「軍事保護區域 內 文化財 地表調査報告 - 京畿道 漣川郡篇-」『文化財』제2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 1992, 「軍事保護區域 內의 先史遺蹟(Ⅰ) - 漣川郡-」『韓國上古史學報』제10호, 韓國上古史學會.
2)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4, 『臨津 · 漢灘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3) 連川文化院, 1995, 『鄕土史料集』.
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5) 경기도박물관, 2001, 『임진강(문화유적1)』2,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1.
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범진산업(주), 2000,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24~25쪽.

금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 경 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김 병 모(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조 유 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 건 무(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윤 근 일(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이 재(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 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아 관(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3팀장)
김 성 수(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동 성(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 이 창 원(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김 진 영(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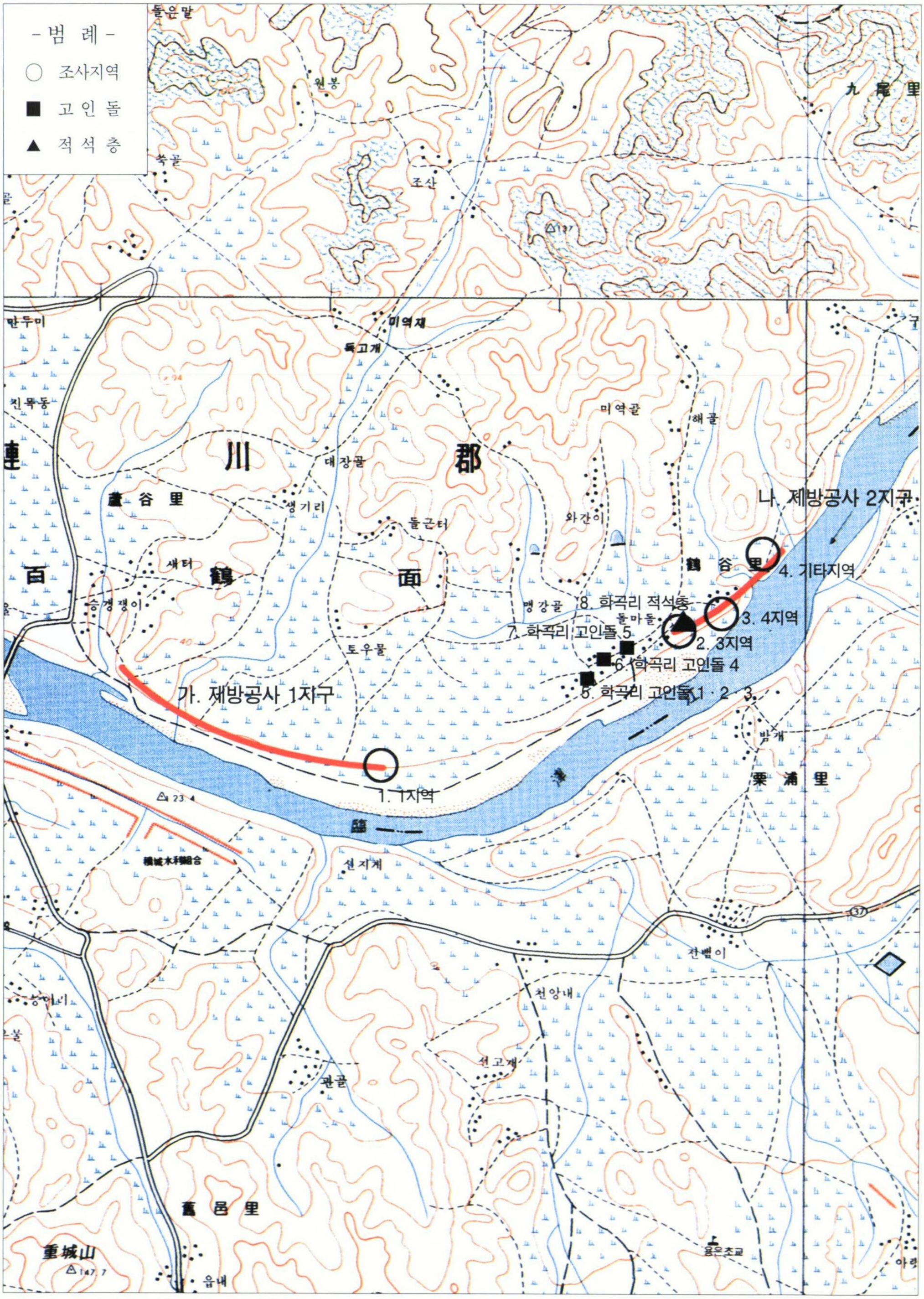
이외에 노성민(한신대학교 국사학과 4년), 서준석, 신승철(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김태홍(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년), 허영진(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이수정(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년) 등이 주도적으로 현장작업에 임해주었고, 김한식(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이동준(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등도 현장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박춘목 담당, 연천군청 유동녀 계장, 왕영록 연천군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평화엔지니어링 조승규 감리단장, 범진산업 원병목 소장은 현장작업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어 조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조사지역에 대한 폭발물의 사전탐지 및 안전한 처리를 도와준 ○○사단 사단장님 이하 ○○연대 수색대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층조사(Geo-rader research)를 맡아 진행하여 준 국립문화재연구소 오현덕 학예연구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지역의 현장조사는 이동성이 담당하고 김성태가 총괄하였으며, 보고서 작성은 유구, 석기, 토기를 이동성, 기와, 백제토기를 김진영, 자기는 임진아(홍익대학교 대학원 재학)가 서술하였다. 현장사진은 이동성 · 김진영, 유물사진은 이동성 · 김진영, 유구와 유물의 실측 및 제도는 김진영 · 이수정 · 임진아 · 윤희봉(홍익대학교 대학원 재학)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본 보고서는 김아관 · 김성태가 교정한 후 최종적으로 장경호가 검토하였다.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도면 2. 조사지역 현황도(1:25,000)

Ⅱ. 주변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연천군의 지형은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에서 뻗어 내린 지맥에 의해 형성된 해발 200m 이상의 연속된 산지와 이 사이를 남북으로 흐르는 대소 하천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고 있다. 지형학적으로 臨津盆地라 불리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북서부와 동쪽의 고도가 높게 나타나고, 산지 사이의 하곡 및 남쪽의 군 경계에 해당하는 임진강 연안은 해발 100m 이하의 완만한 평지로 구성된다. 동부 고지에는 북으로부터 천덕산(476m), 고대산(832m), 지장봉(877m), 향로봉(600m), 종자산(643m)이, 남동쪽에는 종현산(588m), 마차산(588m)이 각각 포천군과 양주군의 경계부에 솟아 있다. 차탄리의 군자산(328m)은 연천 舊邑의 主山으로 과거에는 聖山이라 불렸으며 짚가리를 쌓아 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군 중앙부에는 봉화산(308m), 고왕산(355m), 황계산(166m)이, 서쪽 경계 부근에는 망해산(272m), 용호산(308m), 환두산(225m)이 위치하나 고도는 동쪽의 산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산지와 평지 중간에는 산록 완사면인 저기복의 침식지형과 고도 50m 이하의 저산성구릉이 산재하는데, 촌락은 이들 구릉지에 연해 입지하는 사례가 많다.[7] 연천 동부에는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추가령구조곡이 발달해 있는데, 이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천혜의 회랑이며 이 직선상의 裂谷은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양분하는 지체구조로도 중요하다.[8]

이 지역의 산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漣川系로 분류되는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이다. 연천암군은 약 27억년 전 최후의 광역변성을 겪은 이후 안정, 지괴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군 동북부 산지에는 이보다 후대에 형성된 중성화산암과 석영반암이 확인된다. 이들 백악기 화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고도 600m 이상에 달하는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고기하성층이라 추측되는 미고결 사력층이 한탄강 및 영평천을 따라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3~7m의 두께를 가지며, 형성시기는 60만년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소위 백의리층이라 불리는 이들 암층은 곳에 따라 분급이 비교적 양호한 사암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으로 피복되었다. 이 용암대지의 표면을 흐르던 하천은 현 하상까지 침식곡을 깊이 파기 전 많은 양의 충적토를 운반, 퇴적하였는데 현재 이 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충적층은 유수에 의해 일단 퇴적된 이후 지속적으로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해발고도에 비례하여 층의 두께도 증가한다.[10]

연천지역의 지형을 종합해 보면, 지질시대에 발생한 여러 번의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형상을 이루게 되었다. 제4기 용암이 분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선지형과 후기의 새로운 침식기준면하에서 형성된 변형지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선캠브리아기 경기변성암복합체의 기반암 형성, 대

---

7) 장재훈, 1997, 「경기 지역의 위치와 지형적 환경」『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64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漣川郡志編纂委員會, 2000, 『漣川郡志』, 8~9쪽, 漣川郡.

8) 추가령구조곡은 연천단층, 동두천단층, 포천단층, 김화단층 등 평행한 몇 조의 대단층으로 구성된다. 열곡의 장축은 장탄리층에 해당하며, 이는 대보조산운동 과정에서 생긴 철원-연천 단층계의 많은 구조선 중의 하나이다.
이선복, 1989,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134쪽, 서울대학교 출판부.

9) 鄭昌熙, 1986, 『地質學槪論』, 585 · 591쪽, 博英社.

10) 연천군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6, 『전곡구석기유적:1994-1995년도 발굴조사보고서』, 81쪽.

보조산운동에 의한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의 형성과 이에 따른 임진강 유역의 초보적 윤곽의 결정, 추가령 구조곡의 형성과 통현 · 장탄현무암의 분출, 古하도의 발달, 고기하성층(白蟻里層)의 퇴적과 하방침식에 따른 상부 하안단구의 형성, 제4기 현무암의 분출과 용암대지의 형성, 용암대지상 실트 충적층의 형성, 침식윤회의 재개와 현 하도의 발달, 신기하성층의 퇴적 및 하부단구의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11]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으로 이 일대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임진강을 따라 곡류성 퇴적지형을 이루어 강을 따라 길게 자연제방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제방 위는 노곡리에서 구미리까지 이어지는 포장도로가 동에서 서로 나 있으며, 이 도로의 중간부분에 '돌마돌' 이라는 자연부락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 돌마돌 마을 주변의 지형은 대체로 편평하고 비옥한 모래질토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논과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작지들은 경지정리를 통해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다.

남쪽의 강 건너편에는 임진강 상류로부터 밀려온 용암류의 퇴적지형이 현무암 단애를 이루고 있으며,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에는 고토양이 일부 남아 있고 단애 쪽으로는 유수기원모래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저습한 배후습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배후습지의 북쪽에 연하여 해발 100m 미만의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릉성 산지의 끝자락에 크고 작은 자연부락이 들어서 있다. 지도상으로는 북위 37°57′47″~ 54″, 동경 126°55′58″~ 57′20″에 해당하며, 총 조사면적은 38,300㎡(약 11,586평)이다.(도면 1, 2)

연천지역의 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대별되며, 조사지역 앞을 흐르는 임진강은 연천군을 종관하여 군을 동서로 나누는 최대 하천으로 함경남도 덕원군 풍상면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연천군 내로 진입한다. 계속하여 남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중면 횡산리와 왕징면 강내리에서 "S"자형으로 크게 곡류한 후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 이르러 한탄강과 합류한다. 합쳐진 강은 조사지역의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59km정도 흐르다가 장남면 石浦에서 파주군으로 흘러나가 交河에서 한강과 만난다.[12]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은 한탄강과 사미천, 흑석천, 중사천, 고장천, 마거천, 안월천, 옥계천, 차곡천, 죽대천, 황공천, 노동천, 간파천, 석장천 등으로 유량이 풍부한 편[13]이며, 이로 인해 임진강 중류는 연간 2.4회의 높은 홍수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 유황이 다소 불안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기후는 냉대기후이고, 남부 난대기후와 북부 한대기후의 점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겨울엔 시베리아기단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하고 여름엔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중부서안형 기후이다. 연평균기온은 10~11℃이며 연강수량 1,100~1,200㎜[14]로 6월~9월에 70% 정도가 집중되어 여름철에 잦은 홍수 피해를 내기도 한다.[15]

---

11) 이선복, 1989, 『앞 책』, 128~129쪽.
12) 漣川文化院, 1995, 『앞 책』, 53쪽.
13) 漣川郡志編纂委員會, 1987, 『漣川郡志』, 56~57쪽, 漣川郡.
14) 1996년 7월에는 3일간 916㎜라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려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했지만 이러한 홍수와 동반해 강안의 단구지형이 유실되면서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 유적인 연천 삼거리유적과 파주 주월리유적이 지표로 드러나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5) 漣川郡志編纂委員會, 2000, 『앞 책』, 21~24쪽.

2. 고고 · 역사적 배경(도면 3)

임진강 유역은 현무암 단애부를 중심으로 단애 위의 평탄대지와 반대편의 저평한 대지에 많은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다.[16] 이미 발굴조사 된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유적[17],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18] · 주월리유적[19],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유적[20],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유적[21]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지표조사 된 유적을 포함하면 20여 개소(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동이리, 전곡읍 남계리 단풍동부락, 고대리,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진동면 동파리, 적성면 삼화리, 율포리, 파평면 장파리 등)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이는 충청북도 단양지방과 평양지방의 구석기유적군에 버금갈 정도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전곡리, 가월리, 주월리, 금파리유적은 중기 플라이스토신 이후 전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 석영제 몸돌석기를 바탕으로 특징적인 주먹도끼와 긁개, 찍개, 돌망치, 몸돌, 격지 등이 출토되어 향후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연계된다면 전기~후기 구석기시대의 문화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석기시대 유적들은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왕징면 무등리, 미산면 동이리, 군남면 진상리, 남계리, 중면 삼곶리 적석총 주변 등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최근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에서도 조사되어 비교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삼거리유적[22]은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와 함께 암사동계 빗살무늬토기, 돌도끼, 갈돌, 갈판, 숫돌 등이 발굴되었으며,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유적[23]에서도 기형복원이 가능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일반적으로 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눈앞에 둔 언덕진 야산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의 유적 · 유물이 강안의 1단구나 2단구에 해당하는 충적대지나 모래퇴적층에서 수습된다. 백학면 학곡리유적도 단구상의 충적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방식 고인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돌끌, 돌대패날, 돌검, 돌화살촉, 각종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도면 2) 또한 주변의 파주시

---

16) 이선복, 1988, 「新發見 舊石器遺蹟 紹介」『孫寶基博士停年紀念考古人類學論叢』, 97~124쪽, 知識産業社.
이선복, 1989, 『앞 책』.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4,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204~582쪽.

1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금파리구석기유적』.

1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3, 『주월리 · 가월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 서울대학교박물관, 1993, 『위 책』.

20) 文化財硏究所, 1991, 『漣川 南溪里舊石器遺蹟-發掘調査報告書』.
최무장, 1994, 「남계리 구석기유적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보성강 · 한탄강유역 구석기유적-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2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83, 『全谷里』.
문화재연구소, 1994, 「3. 전곡리 5지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91년)보고」『보강성 · 한탄강유역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全谷里-1986년도 발굴조사보고』.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연천군, 1996, 『全谷里舊石器遺蹟:1994~95년도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 · 연천군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1, 『全谷舊石器遺蹟』.

22) 경기도박물관, 2002, 『漣川 三巨里遺蹟』.

23) 발굴조사에서 총 89점의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었는데 시문방식과 시문부위로 구분한 결과, 어골문-평행집선문-점열문을 주로 하는 서해 · 중서부지방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암사동, 오이도, 연평도, 선재도 등의 서해도서와 한강유역과 유사하며 편년은 신석기시대 후기로 이 지역의 다른 유적들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京畿道博物館, 1999, 『坡州舟月里遺蹟』, 254~256쪽.

진동면 하포리,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전곡읍 은대리,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 청산면 초성리 등지에는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며[24], 파주시 적성면 · 장남면 일원, 연천군 미산면 · 군남면 일원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20여 개소 이상 발견되었다.[25] 특히 군남면 삼거리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와 소형유구 3기가 발굴조사되었으며, 출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토기로 동북계 각형토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가락리유형에서 흔암리유형으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돌돈(石貨), 돌검, 반달돌칼, 돌대패날, 돌도끼, 돌화살촉, 가락바퀴, 그물추, 갈돌, 갈판 등의 생활도구들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생활상 연구의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26]

초기철기시대의 연천 · 파주는 낙랑군의 설치와 맞물려 철이 보급된 것으로 여겨지며, 한반도 남부지역으로의 철기문화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유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중부지방의 특징적인 주거지 형태인 장방형 · 원형의 凸자형 주거지와 원형주거지 12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短頸壺류 중심의 打捺文土器와 灰(黑)色磨硏土器와 鐵斧, 鐵鎌, 鐵鑿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성격은 출토 철제 무기류로 보아 생활유적 보다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저장용기로서의 대형옹의 출토가 특징적이다. 이는 이 지역이 고대부터 북방세력의 남하경로로 삼국간의 쟁투가 극심하게 전개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27] 유물산포지는 대부분 신석기 ·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 조건과 비슷하거나 겹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유적으로 연천 지역에서는 유물산포지 21개소와 적석총 7개소가 조사되었다. 수습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황갈색 연질토기 등으로 유물산포지 대부분은 적석총 주변이거나 분포지역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연천지역에 산재해 있는 백제 적석총은 연천군 학곡리 적석총[28]을 비롯해 미산면 우정리[29], 군남면 삼거리[30], 중면 횡산리[31] · 삼곶리[32] 등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적석총의 발굴이 백제초기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후 4세기 후반에는 고구려의 남진으로 많은 성과 보루들이 설치되었으며, 백제에게 이 지역을 빼앗기는 551년까지 150여 년간 축성되었다.

이 시기의 성으로는 호로고루[33], 당포성[34], 은대리성[35], 고성산 보루[36], 무등리 1 · 2보루[37], 두루봉 보루

---

24) 세종대학교 박물관 · 연천군, 2001, 『연천지역 고인돌 조사보고서』.
2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26) 京畿道博物館, 2002, 『앞 책』.
27) 京畿道博物館, 1999, 『앞 책』.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402~404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京畿道篇』, 492~493쪽.
29) 漣川文化院, 1995, 『위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위 책』, 441~443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위 책』, 505~506쪽.
3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위 책』, 319~321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위 책』,505~506쪽.
31) 漣川文化院, 1995, 『위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위 책』, 549쪽.
32) 文化財硏究所, 1994,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 發掘調査報告書』.
3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1999, 『漣川 瓠蘆古壘』.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漣川 瓠蘆古壘 1次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集』.
3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京畿道 連川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1999, 『위 책』.
35)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위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279~281쪽.

- 범 례 -

● 구석기 ○ 신석기 ■ 고인돌 ▲ 적석층

번호	유 적 명	비고	번호	유 적 명	비고
1	연천 횡산리	구석기	29	연천 통현리1	고인돌
2	연천 강내리	구석기	30	연천 통현리2, 3	고인돌
3	연천 삼거리	구석기	31	연천 통현리4	고인돌
4	연천 진상리	구석기	32	연천 통현리5, 6	고인돌
5	연천 전곡리	구석기	33	연천 통현리 7, 8, 9	고인돌
6	연천 남계리	구석기	34	연천 전곡리 1, 2	고인돌
7	연천 남계리 단풍동1	구석기	35	연천 학담 1, 2	고인돌
8	연천 남계리 단풍동2	구석기	36	연천 통현리9(이전)	고인돌
9	연천 동이리	구석기	37	연천 전곡리3	고인돌
10	연천 삼화리	구석기	38	연천 전곡리4	고인돌
11	연천 구미리	구석기		연천 은대리1	고인돌
12	연천 학곡리	구석기		연천 은대리2	고인돌
13	연천 원당리	구석기	39	연천 양원리1	고인돌
14	연천 삼곶리	신석기	40	연천 양원리2	고인돌
15	연천 선곡리1	신석기	41	연천 학곡리1	고인돌
16	연천 선곡리2	신석기	42	연천 학곡리2	고인돌
17	연천 선곡리3	신석기	43	연천 학곡리3, 4, 5	고인돌
18	연천 삼거리1	신석기	44	연천 원당리	고인돌
19	연천 삼거리2	신석기	45	연천 횡산리	적석총
20	연천 우정리1	신석기	46	연천 삼곶리	적석총
21	연천 우정리2	신석기	47	연천 삼거리	적석총
22	연천 동이리	신석기	48	연천 우정리1	적석총
23	연천 삼화리	신석기	49	연천 우정리2	적석총
24	연천 선곡리	고인돌	50	연천 동이리	적석총
25	연천 삼거리	고인돌	51	연천 신답리	적석총
26	연천 진상리1	고인돌	52	연천 대전리	적석총
27	연천 진상리2	고인돌	53	연천 학곡리	적석총
28	연천 차탄리	고인돌	54	연천 원당리	적석총

도면 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 (1:50,000)

여 백



도면 4. 大東輿地圖(麻田 일대)

[38], 아미성[39] 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51년 이후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새로운 성을 쌓거나 대대적인 증축과 보축이 단행되었다. 이 시기의 성은 옥녀봉산성[40], 초성리 산성[41]이 보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임진강안과 내륙연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이 고대로부터 가졌던 역사 · 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이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의 시발점으로서 하천로를 수계로 하여 양주 천보산맥 일원의 육로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연천 군남제 시 · 발굴조사[42]에서는 삼국시대 적석총과 관련한 주거지가 조사되어 임진강변에 잔존하고 있는 적석총의 축조와 관련된 주민집단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연천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래 매우 오랜동안 사람이 정주해 온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선사시대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간직된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각 시대의 유적 분포는 강안의 충적대지나 현무암 단애 위쪽의 대지상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그 뒤로는 강안쪽 단애의 봉우리나 선사시대 유적들의 배후에는 많은 관방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지점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이 계속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

3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479~480쪽.
3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3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580~581쪽.
39)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310~313쪽.
40) 連川文化院,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339~340쪽.
41)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앞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2000, 『앞 책』, 381쪽.
4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1, 「연천 군남제 개수공사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및 삼거리고분 발굴조사 약보고서」.

Ⅲ. 조사경과 및 방법

1. 조사경과

연천 학곡제 유적은 연천 지역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1992년), 서울대학교 박물관(1994년), 연천문화원(1995년), 한국토지박물관 · 연천군(2000년)에 의해 구석기시대 이래 삼국시대에 이르는 각 시기별 유물이 수습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었다. 범진산업은 학곡제 개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뢰하였고, 지표조사 결과 5개 유물산포지와 고인돌 및 적석총이 공사구간과 유관함을 보고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굴조사를 본 연구원에 의뢰하여 왔고, 본 연구원은 학곡리 마을의 해발고도가 제방 높이보다 높아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유물산포지 2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산포지 4개소에 대한 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도면 2)

조사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12월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지표조사 실시
- 2001년 3월 : 시굴조사 참여 의뢰
- 2001년 6월 : 조사단 선정 및 조사계획서 제출
- 2001년 7월 11일 : 시굴조사 착수계 제출
- 2001년 7월 18일 : Ⅲ지역 표토제거 중 폭발물 발견으로 조사 중지
- 2001년 8월 8일 ~ 9월 14일 : 폭발물 탐지작업
- 2001년 8월 17일 : 조사지역내 트렌치 조사작업 시작(폭발물 탐지작업 병행)
- 2001년 9월 28일 : Ⅳ지역 다구역 동계 전 배수통문공사 조속 시행에 따른 중간지도위원회 개최
- 2001년 11월 29일 : 지도위원회 개최
- 2002년 12월 : Ⅰ지역 가구역 작물 보상문제 발생
- 2001년 12월 31일 : 동절기 조사중지
- 2002년 3월 15일 : Ⅰ지역 가구역 조사 착수
- 2002년 3월 27일 : 시굴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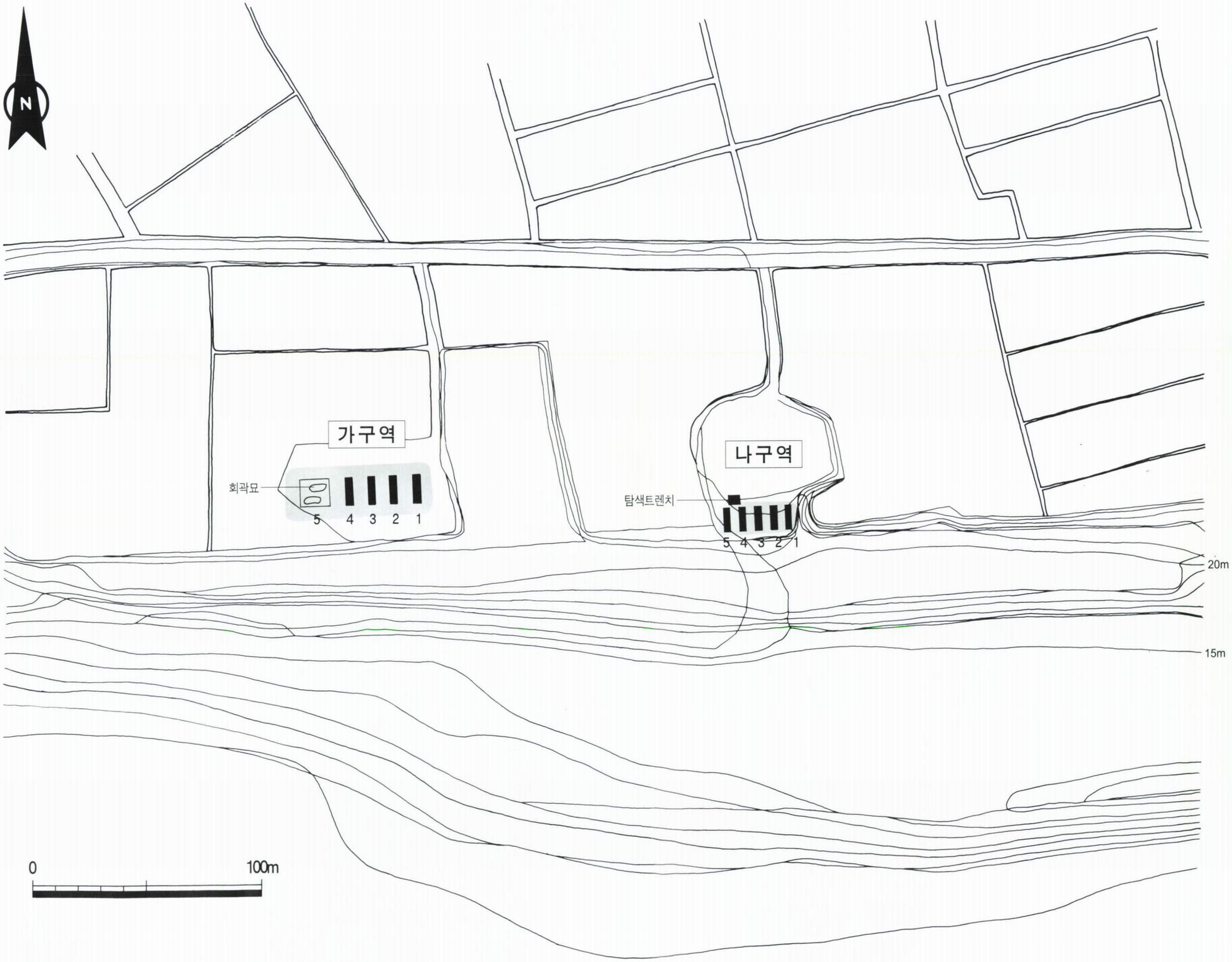
2. 조사방법

시굴조사 지역은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지석묘와 적석총 및 유물산포지 1개소를 제외한 유물산포지 1, 유물산포지 3, 유물산포지 4, 기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지형에 따라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유물산포지 1은 Ⅰ지역, 유물산포지 3은 Ⅲ지역, 유물산포지 4는 Ⅳ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지형에 따라 Ⅰ지역은 2개 구역, Ⅳ지역은 3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구획은 조사대상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제방선 북쪽 경계선을 따라 기준선을 정하고, 2×10m, 2×20m Tr를 기본으로 하여 설치하였고 필요에 따라 10m 단위로 길이를 연장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된 부분은 확장조사하여 유구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사지역 전체의 층위 파악을 위하여 각 지역에 1개소의 깊은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현무암반의 확인을 위해 설치한 Ⅲ · Ⅳ지역 트렌치는 붕괴의 위험으로 인해 단을 주어 지표하 7m정도까지 조사하여 층위를 확인 · 비교하였다.

또한 시굴조사시 트렌치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에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지역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조사된 유적들과 비교하였다.[43]

43) 조사지역 밖이지만 조사지역과 유관한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표조사한 결과 유물은 주로 도로와 제방선 사이 주변 지형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에서 수습되고 있다. 수습유물은 구석기류,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백자편, 도기편 등으로 이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의 지표조사시 확인된 것과 동일하다.



도면 5. Ⅰ지역 평면도 및 구획도

여 백

Ⅳ. 조사내용

1. 조사지역

1) Ⅰ지역(도면 5, 사진 1)

조사지역의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며 가운데 부분인 논 아래쪽의 편평한 지역은 원래 계곡을 형성하고 있던 부분으로 논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강안에서 유입한 자갈과 모래로 3m이상 복토가 이루어졌다. 복토된 부분인 50×100m를 제외한 동서 양쪽의 돌출된 구릉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Ⅰ지역 서쪽의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20×50m)을 가구역, 동쪽의 옥수수밭 아래 부분을 나구역(20×70m)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역은 작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트렌치 조사중 민묘 2기와 회곽묘 1기를 확인하고 작물재배자의 요청으로 조사를 중지하게 되었다가 작물보상문제가 해결된 후 미조사 부분에 대하여 2×10m Tr 5개를 설치하여 조사를 종료하였다.(도면 6, 사진 2, 3) 나구역은 2×10m Tr 4개를 10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북쪽에 레벨이 높은 지점의 퇴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쪽 제방선에 Tr 1개(도면 7)를 설치하였다.(사진 5)

층위는 표토(경작층)-암갈색 모래층-황갈색 모래층-적갈색 점토질 모래층-황갈색 모래층-암갈색 모래층(부분적 회색 점토)로, 황갈색 모래층과 갈색 점토질 모래층이 교대로 층위를 이룬다.(사진 4, 7, 8, 9)

트렌치 조사에서 모래층 이외의 다른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지역에서는 유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유물은 나구역 북쪽 제방경계선 위쪽의 지표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 바닥, 무문토기 동체부편, 화살촉편이 수습되어 조사 대상지역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마을 쪽으로 주거유적이 부존할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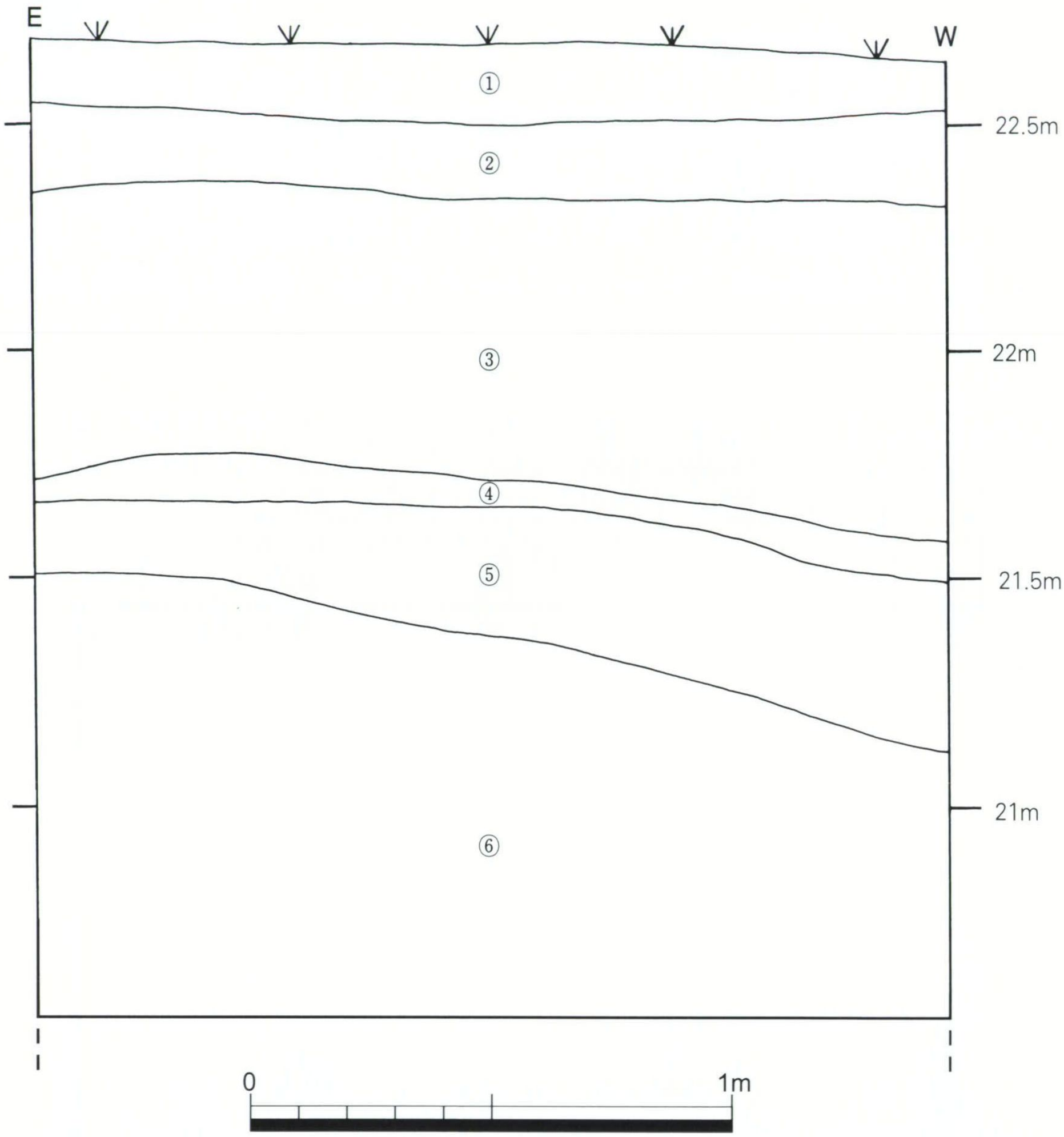
이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의 지표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조사지역 북쪽 제방선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고 비교적 원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도로 주변 지역과 마을쪽 입구인 축사가 있는 지역까지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산포한다.[44] 그러므로 이 지역이 조사지역 밖이지만 신석기 · 청동기시대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2) Ⅲ지역(도면 8, 사진 10)

학곡리 적석총이 위치한 지역 북쪽의 경작지와 남쪽 자연제방 사면 및 그 하단 퇴적지 일대이며, 이 지역은 제방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조사범위의 구획은 북쪽 제방선을 기준으로 20m 간격의 2×20m Tr를 설치하였고, 적석총 북쪽의 잔디밭은 적석총의 하부시설과 주변의 토층 확인에 중점을 두어 10m 간격의 2×10m Tr를 설치하였다. 또한 전체 층위의 확인을 위해 남쪽 자연제방 사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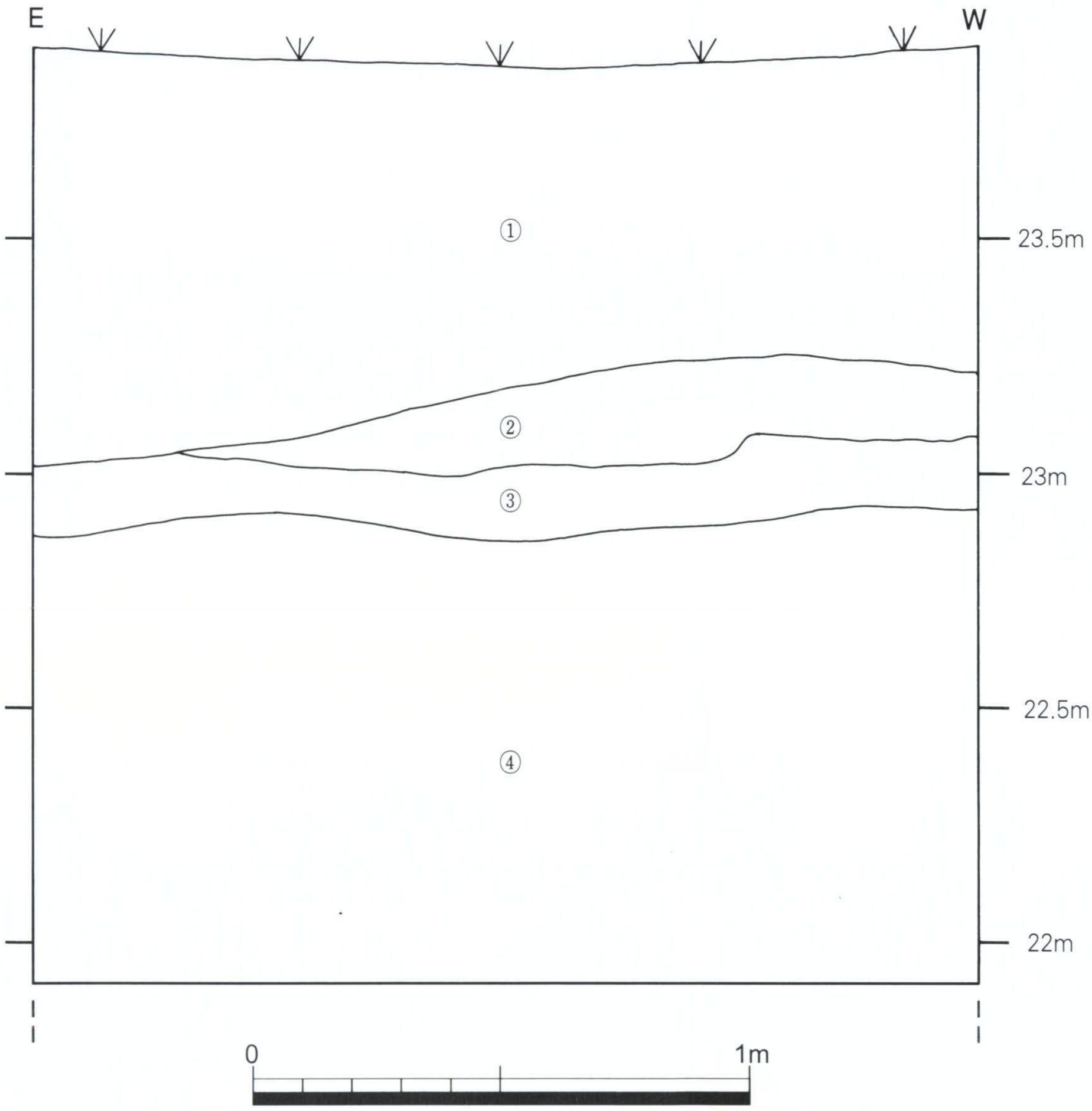
---

4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범진산업, 2000, 『앞 책』.



토층 : ① - 복토층
② - 암갈색 모래층
③ - 황갈색 모래층
④ - 적갈색 점토+모래층
⑤ - 황갈색 모래층
⑥ - 암갈색 모래+회색 모래층

도면 6. Ⅰ지역 가구역 토층도



토층 : ① - 복토층
② - 암갈색 사질 점토층
③ - 흑갈색 사질 점토층
④ - 황갈색 모래층

도면 7. Ⅰ지역 나구역 토층도

그 하단의 퇴적지를 연결하는 4×20m의 Tr를 단을 주어 설치하였다.(사진 11, 12)

층위는 자연사면을 중심으로 북쪽은 표토-경작토-복토층(2회이상)-유수모래퇴적층-자갈층이며, 서쪽 끝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2회 이상의 복토가 1996년과 1998년 홍수시 유실된 경작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원래 지형인 도로높이에서 삭토를 한 후 복토한 것과 자연제방 아래쪽 모래퇴적층을 덤프를 동원해 복토한 것이다.(사진 12, 13)

조사지역 전체의 층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 Tr의 층위는 표토층-복토층-황갈색 모래층-암갈색 점토질 모래층-명황색 모래층(8회 반복)-암갈색 점토층-회색 모래질 왕자갈층-갈색 점토질 모래층-암갈색 모래층-명갈색 모래층-암갈색 점토질 모래층-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구는 참호 1기, 근대이후 주거지 3기, 조선시대의 바닥만 남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Tr 조사시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다량의 백자편과 도기편이 지표와 복토층에서 혼합되어 수습되었고, 주거지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백자 · 도기와 근대 이후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표 1m 내외에서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 · 백제토기 등 여러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신석기시대 이래 퇴적층의 변화가 없이 같은 층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유구가 형성되었고 이의 폐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곳을 경작지로 사용하면서 심경 경작을 통하여 유적이 파괴되면서 지표에 유물만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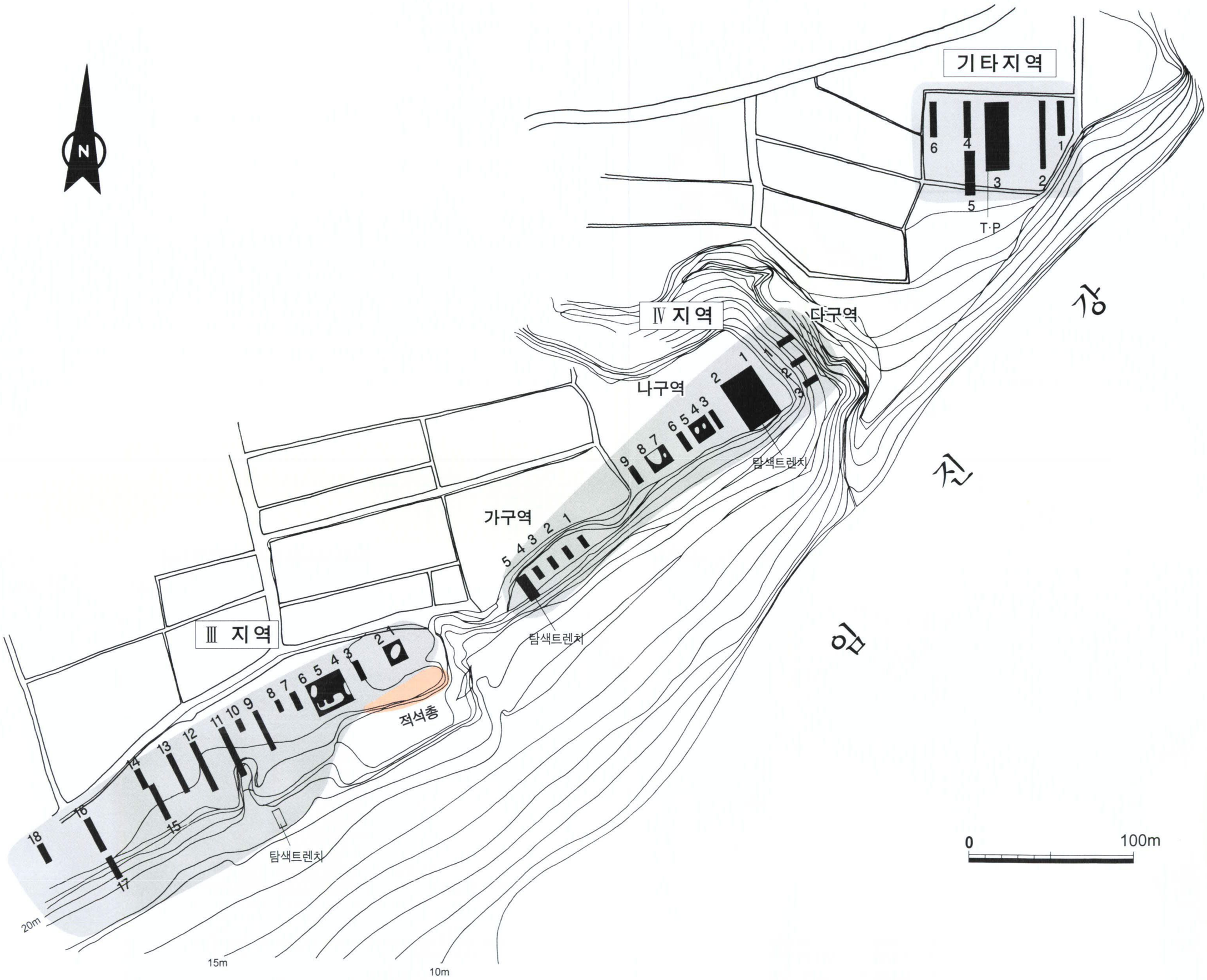
3) Ⅳ지역(도면 8, 사진 20)

마을이 형성된 자연제방과 비슷한 높이의 평탄한 경작지와 남쪽의 자연제방 사면 및 그 하단부의 사질퇴적지 일대로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다. 자연제방상의 경작지에서는 유물의 산포밀도가 높고 입지도 양호하여 조사 결과가 기대된 지점이다. 구획은 지역내에 고저차가 있고 지형상 현격히 구분되므로 경작지를 중심으로 서쪽 적석총 동편의 넓은 지역을 가구역, 해발고도가 높은 밭 주변을 나구역, 동쪽 계곡부를 다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층위는 표토층-황갈색 모래층-암갈색 점토질 모래층(부분적 회색 모래)-황갈색 모래층-암갈색 점토질 모래층(6회 반복)-명갈색 모래층-황색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구역은 홍수로 인한 계곡부의 유실로 조사지역 전체가 복토된 부분으로 2~3회 복토되어 복토층만 2m이상 이루어진 곳도 있으며, 그 아래는 유수모래퇴적층이다.(도면 10, 사진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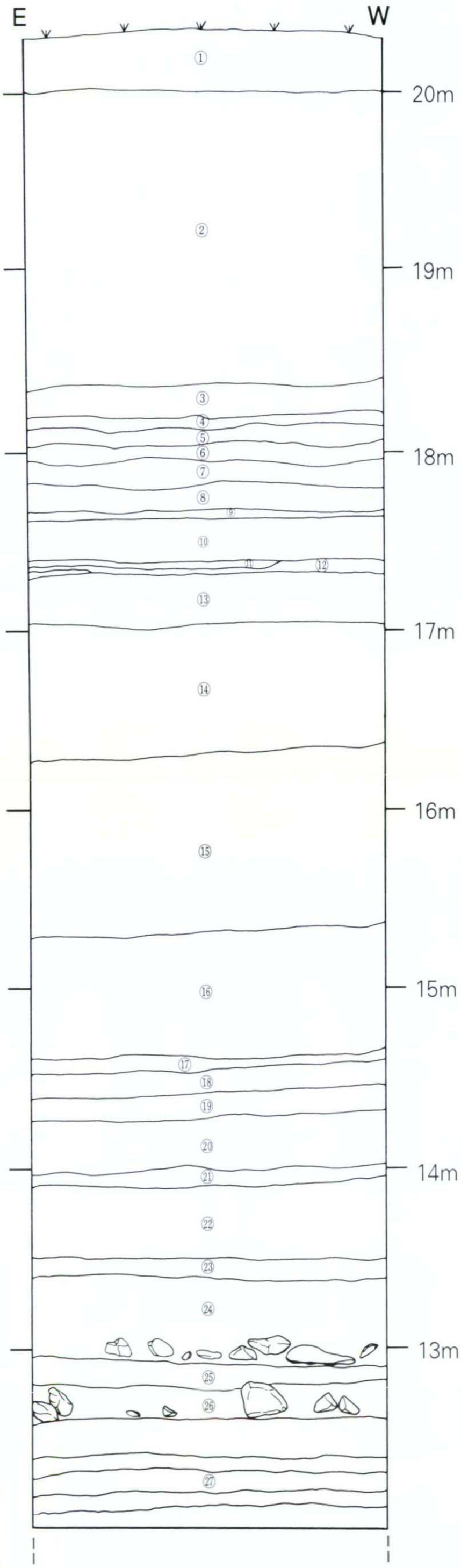
유구는 나구역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쓰레기 폐기움 2기는 경작시 들어난 돌이나 기타 백자 및 도기편을 한군데 모아 1m정도 굴토하여 폐기한 것이다. 화덕자리 1기는 근래의 자기 및 옹기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1기는 근대 이후의 것으로 서쪽 중앙에 출입시설이 있으며, 남쪽으로 화덕자리가 위치한다. 시굴조사 전 이 지역은 지표에서 청동시대 석기 및 많은 양의 토기와 백자편이 수습되어 주거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다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지표에서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돌끌, 돌대패날, 토기편,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고, 주거지 내부에서 백자편, 토기편, 도기편이 수습되었다.



도면 8. Ⅲ · Ⅳ · 기타지역 평면도 및 구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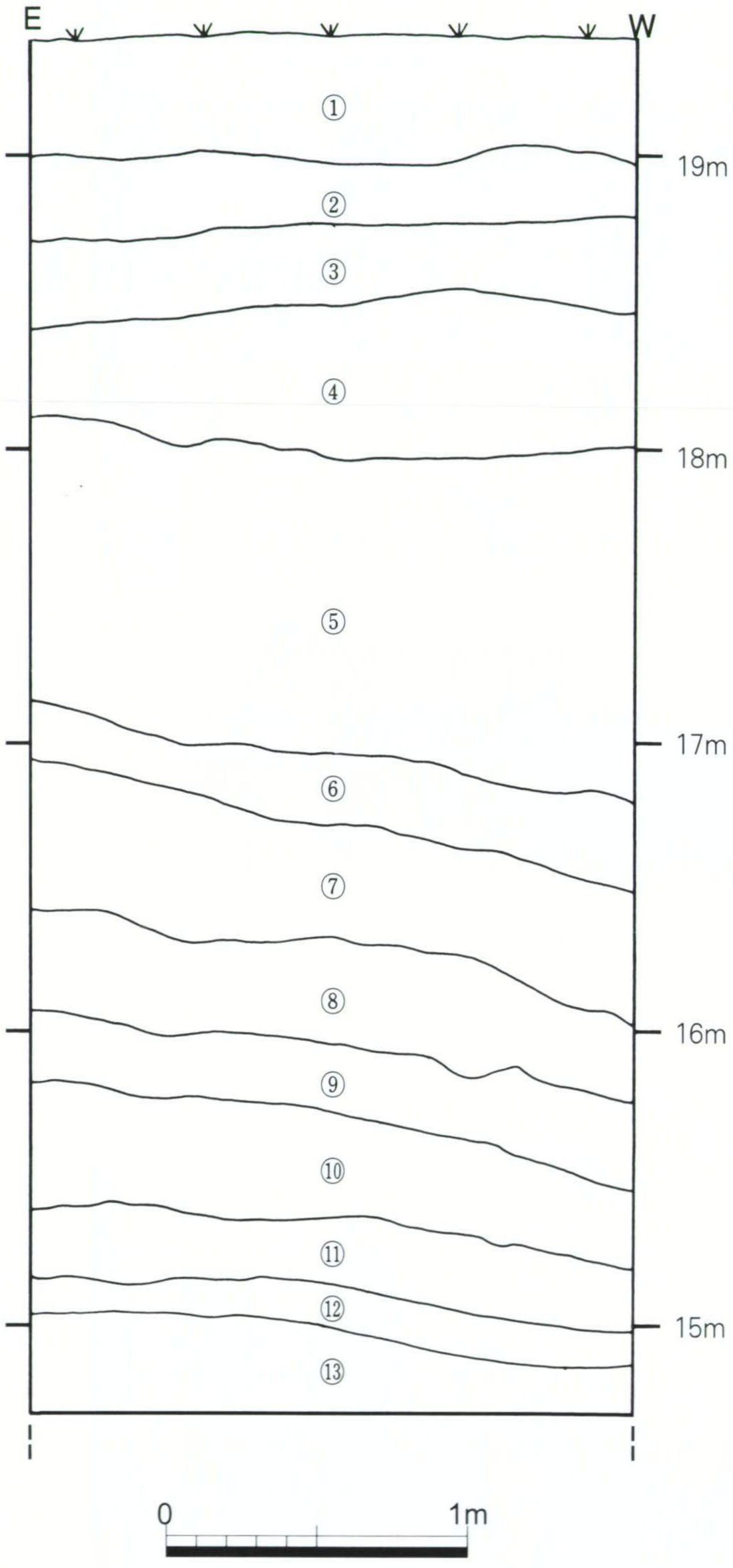
여 백



토층 : ① 표토층
② 복토층
③ 명황색 모래층
④ 암갈색 점토층
⑤ 명황색 모래층
⑥ 암갈색 점토층
⑦ 명황색 모래층
⑧ 암갈색 점토층
⑨ 명황색 모래층
⑩ 암갈색 점토층
⑪ 명황색 모래층
⑫ 암갈색 점토층
⑬ 명황색 모래층
⑭ 암갈색 점토층
⑮ 명황색 모래층
⑯ 암갈색 점토층
⑰ 갈색 모래층
⑱ 암갈색 점토층
⑲ 모래＋자갈층
⑳ 갈색 모래층
㉑ 모래＋자갈층
㉒ 갈색 사질 점토층
㉓ 갈색 모래층
㉔ 암갈색 점토질 모래층
㉕ 명갈색 모래층
㉖ 암갈색 점토질 모래층
㉗ 하상 퇴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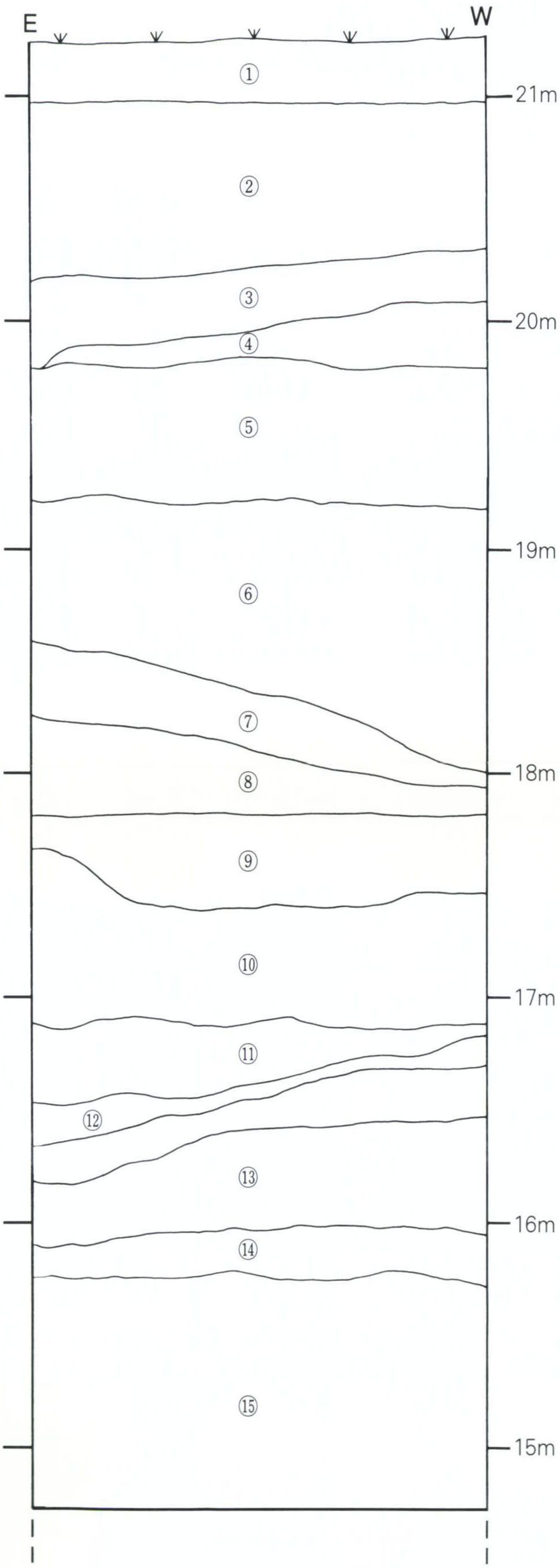
0 1m

도면 9. Ⅲ지역 토층도



토층 : ① 표토층
② 황갈색 모래층
③ 암갈색 점토질 모래층
④ 명황색 모래층
⑤ 암갈색 점토질 모래층
⑥ 명황색 모래층
⑦ 암갈색 모래층
⑧ 갈색 모래층
⑨ 암갈색 점토층
⑩ 암갈색 모래층
⑪ 갈색 점토질 모래층
⑫ 명갈색 모래층
⑬ 황색 굵은 모래층

도면 10. Ⅳ지역 토층도



토층 : ① 표토층
② 황갈색 모래층
③ 갈색 모래층
④ 암갈색 점토층
⑤ 적갈색 점토질 모래층
⑥ 황갈색 모래층
⑦ 적갈색 점토질 모래층
⑧ 황갈색 모래층
⑨ 황갈색 사질 점토층
⑩ 황갈색 모래층
⑪ 적갈색 점토층
⑫ 황갈색 사질 점토층
⑬ 황갈색 모래층
⑭ 적갈색 점토층
⑮ 황갈색 모래층

도면 11. 기타지역 토층도

4) 기타지역(도면 8, 사진 36)

이 지역은 조사지역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진강과 가장 연접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넓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논으로 경작되기 이전엔 수목원이 있던 곳으로 수목원의 경영과정에서 도로 높이의 원지형을 삭토하여 복토하였고, 이후 논으로 경작되면서 농경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도로 높이의 원지형을 삭토하여 복토하는 등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또한 1996년과 1998년의 연이은 홍수로 인해 임진강에 연한 강안과 서쪽 계곡부가 대부분 훼손되어 이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의 복토작업이 이루어졌다.

층위는 표토층-황갈색 모래층-갈색 모래층-적갈색 점토질 모래층-암갈색 가는 모래층(6회 반복)-황갈색 모래층을 기본으로 하며,(도면 11, 사진 37 · 38 · 39) 동쪽은 표토층 아래 유수모래퇴적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쪽 임진강에 연한 지역은 홍수의 피해를 덜 입은 듯하며 서쪽으로 가면서 유실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토층은 동쪽 1 · 2Tr에선 확인되지 않았으며, 3Tr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깊이 2~3m정도로 두꺼워짐을 알 수 있다.(사진 40 · 41)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토기편, 백자편 등이 소량 수습되었다.

2. 수습유물

1) 석기

① 몸돌(사진 42)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규질석영 강자갈돌로 긴네모꼴 몸돌이다. 넓은 격지를 수직으로 뗀 후 타격점을 수평으로 떼어 타격면을 마련하면서 수 차례 조정하였다. 수평으로 다듬은 타격면에서 오른쪽 70×33, 77×55㎜의 넓은 중간격지를, 왼쪽은 66×19, 25×25㎜의 격지를 떼었다. 자연면은 3면이다. 크기 : 141×113×65㎜

② 몸돌(사진 43)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유문암 강자갈돌로 사다리꼴 몸돌이다. 편평한 자연면을 그대로 타격면으로 활용하였으며, 좁은 네모 격지를 얻기 위해 타격면 반대쪽을 떼기하여 조정하였다. 떼기는 자연타격면을 돌아가면서 5회 떼기하였다. 뗀면에 타격점 외에 동심원과 물결무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암질이 좋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크기 : 120×99×75㎜

③ 몸돌(사진 44)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석영맥암 강자갈돌로 몸돌이다. 편평한 자연면을 그대로 타격면으로 활용하였으며, 넓은 중간격지를 얻기 위해 한방향에서 연속하여 떼기를 하였다. 다시 타격면에 대한 조정을 5회 떼기한 후 방향을 틀어 20×20㎜격지를 얕게 2회 떼어 격지면을 정리하였다. 자연면은 3면이다. 크기 : 82×76×55㎜

④ 긁개(사진 45)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규질석영 강자갈돌로 긁개이다. 배면은 자연면이고 등면은 타격점 부분을 떼어내

어 타격혹을 제거하였다. 날은 배면에서 등면 쪽으로 얕은 잔손질을 하였고, 날길이는 80㎜정도이며 사용에 의해 으스러진 흔적과 배면 쪽으로 깨진 흔적이 있다. 크기 : 111×69×33㎜

⑤ 뗀돌도끼(도면 12-①, 사진 46)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회색 편마암으로 뗀돌도끼편이며, 머리쪽 $\frac{2}{3}$정도가 남아 있다. 단면은 타원형으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꼴을 잡기 위한 모양떼기 후 쪼으기로 뗀 면을 다듬어 갈기 전단계이다. 한단은 결실되었다. 잔존크기 : 80.6×37.5×22.1㎜

⑥ 대패날(도면 12-②, 사진 47)

Ⅳ지역에서 수습되었고, 흑색 셰일로 부분마연 대패날이다. 가로자름면은 긴네모꼴이며 날부분 및 배면의 대부분과 등면의 일부가 갈려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양을 꼴잡기 위한 떼기 흔적이 남아 있다. 날은 배면쪽으로 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된 연모이며, 직선날로 날길이는 37㎜이다. 크기 : 63.4×47.7×10.9㎜

⑦ 끌(도면 12-③, 사진 48)

Ⅳ지역에서 수습되었고, 흑색 셰일로 부분마연 끌이다. 가로자름면은 아주 긴 네모꼴이며 폭이 좁다. 날부분 및 배면 대부분과 갓쪽 일부가 갈려 있다. 나머지 부분은 꼴잡기 후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날은 배면쪽으로 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된 연모이며 직선날로 날길이는 22.6㎜이다. 크기 : 58.6×22.9×8.2㎜

⑧ 화살촉(도면 12-④, 사진 49-①)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회청색 편암으로 삼각형 만입촉이다. 슴베쪽이 일부 결실되었으며 가로자름면은 편육각형으로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단면형태를 이룬다. 슴베쪽이 대부분 결실되어 끝쪽 모양은 알 수 없으며 머리쪽과 갓쪽 날이 일부 파손되었다. 잔존크기 : 51.5×24.4×5.5㎜

⑨ 화살촉(도면 12-⑤, 사진 49-②)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회색 편암으로 마름모촉이다. 머리쪽 편으로 몸통부분 $\frac{1}{2}$이하 슴베쪽이 결실되었다. 날부분에 간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배면 갓쪽이 일부 결실되었다. 몸통부분 가로자름면은 마름모꼴이다. 잔존크기 : 41.9×11.7×5.4㎜

2) 빗살무늬토기

①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①, 사진 5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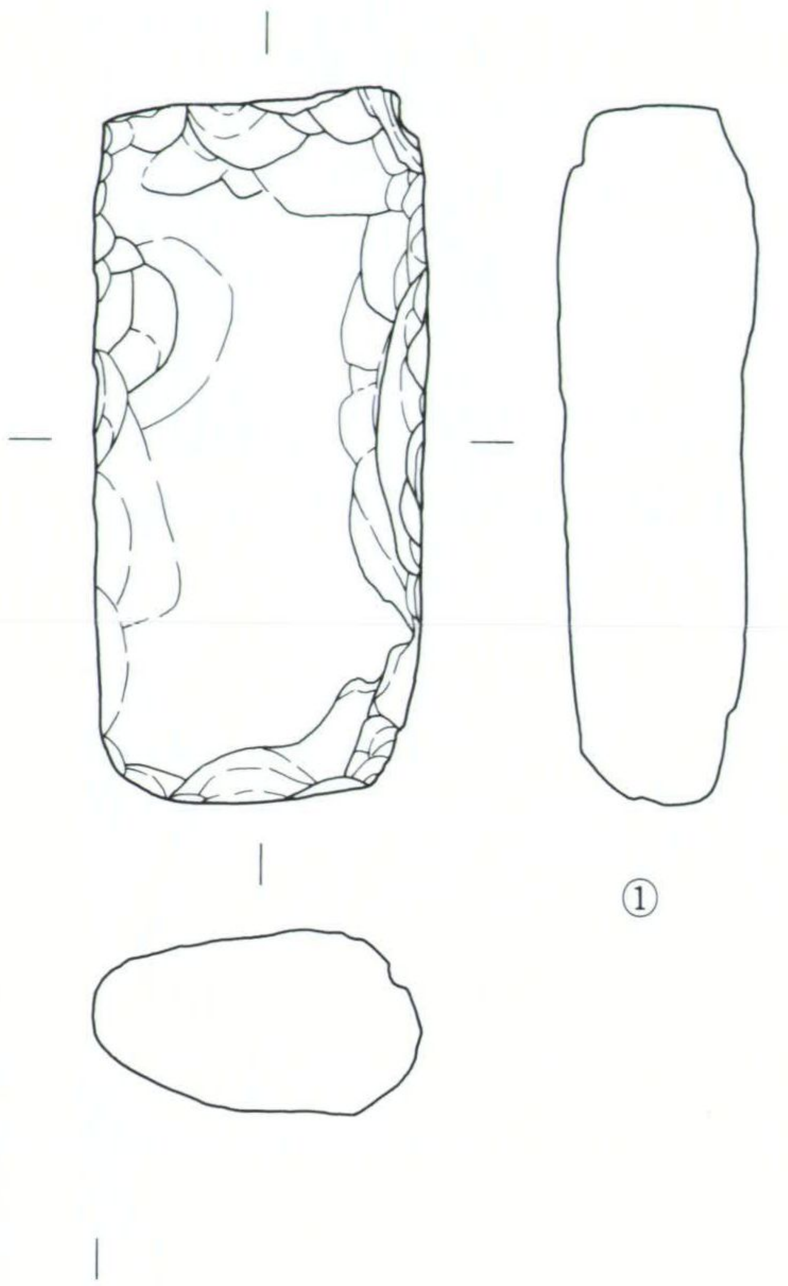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적갈색이며, 점토질 태토에 운모 및 굵은 석립이 다량 섞여 있다. 외면은 정선됐으나 기내면은 거칠다. 무늬는 긋기로 어골문을 한쪽은 굵고 다른 쪽은 얕게 시문하였다. 문양소간 간격은 6~15㎜로 편차가 크다. 잔존크기 : 65×31.6×7.8㎜

②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②, 사진 5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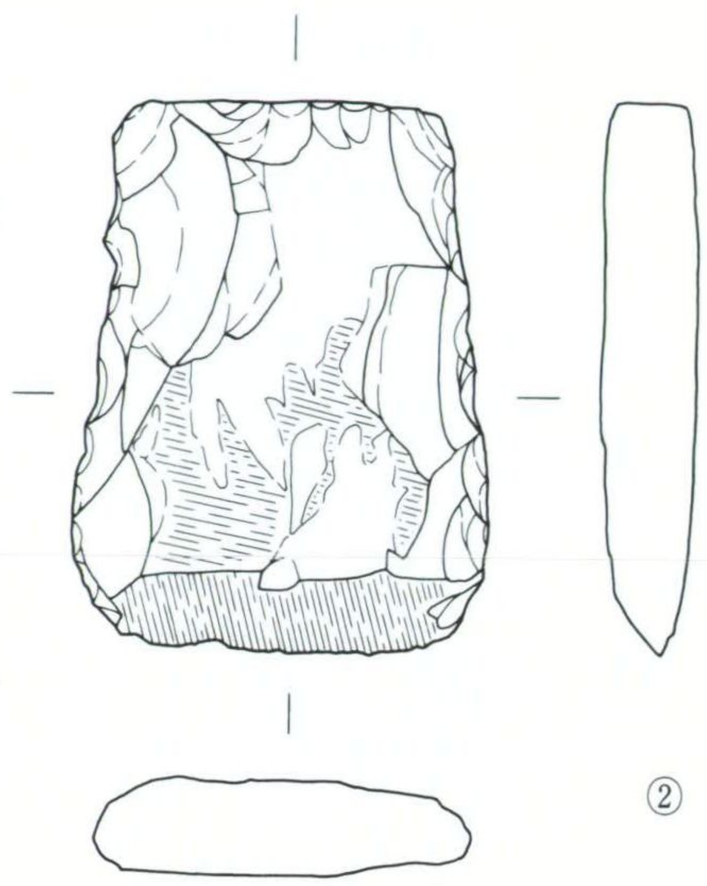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과 기내면 모두 암갈색이며 속심은 흑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석립이 다량 섞여 있다.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정면하였다. 무늬는 굵은 횡주어골문이며 문양대의 각도는 90°로 상하문양대는 떨어져 있다. 문양소는 상하가 결실되어 알 수 없으며 문양소간 간격은 0.2~0.4㎜로 일정한 편이다. 잔존크기 : 47.2×21×5.3㎜

③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③, 사진 5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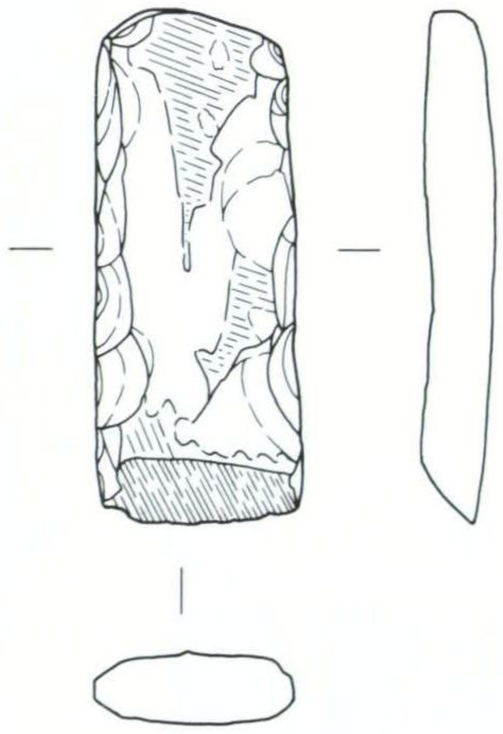
Ⅲ지역 1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적갈색이고 기내면은 흑색이며 속심은 적갈색+흑색으로 $\frac{1}{2}$정도 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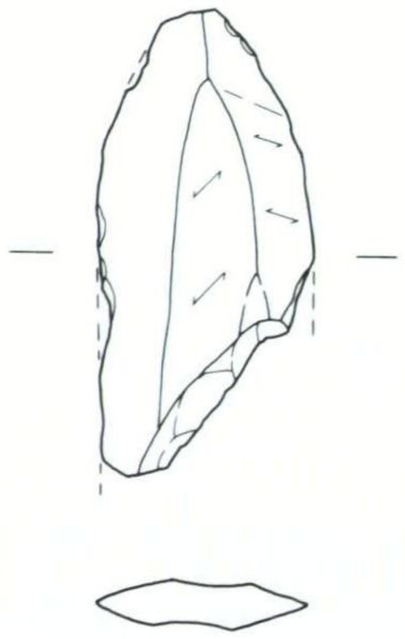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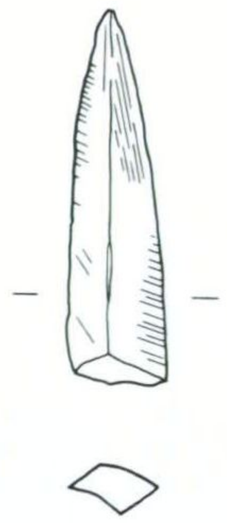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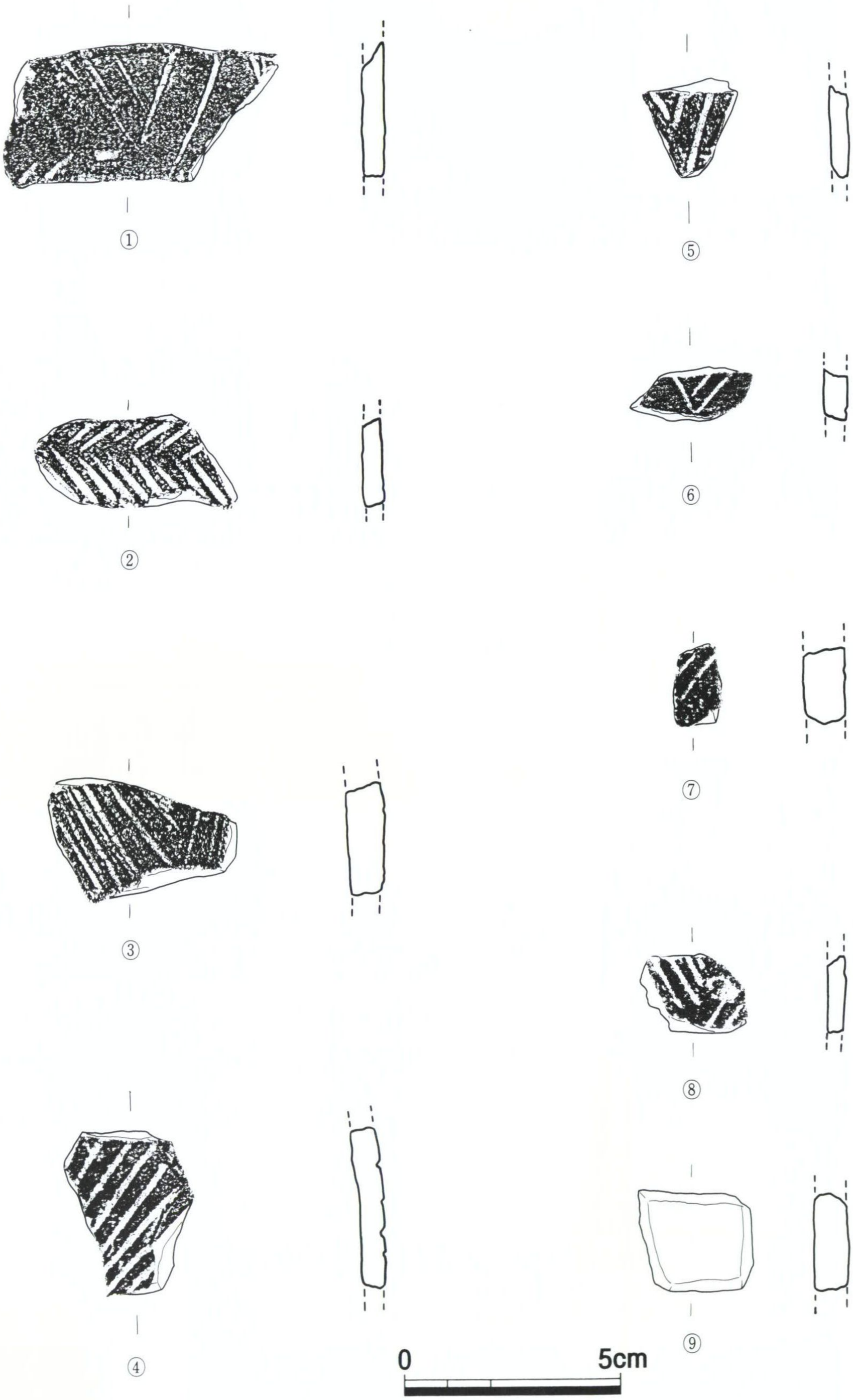
④



⑤

0 5cm

도면 12. 석기류



도면 13. 빗살무늬토기류

여 있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석립이 다량 섞여 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정면하였다. 무늬는 횡주 어골문이며 문양대의 각도는 60°로 상하문양대는 붙어 있다. 문양소는 결실된 부분이 많고 문양소간 간격은 1.5~6.5㎜로 문양대 안쪽으로 가면서 넓어진다. 잔존크기 : 43.3×28.6×9.5㎜

④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④, 사진 50-④)

Ⅰ지역 5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암갈색이고 기내면은 명갈색이며 속심은 흑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모래가 다량 섞여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정면되었다. 무늬는 횡주어골문이며 위쪽 문양대만 있고 상하문양대가 떨어져 있다. 문양소간 간격은 2.9~4.8㎜로 일정한 편이다. 잔존크기 : 41.1×26×6.8㎜

⑤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⑤, 사진 51-①)

Ⅰ지역 5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적갈색이며 속심은 명갈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모래가 다량 섞여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정면되었다. 무늬는 횡주어골문이며 문양대는 붙어 있다. 문양소간 간격은 4.2~4.8㎜로 일정한 편이다. 잔존크기 : 21.4×22×6㎜

⑥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⑥, 사진 51-②)

Ⅲ지역 2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적갈색이고 기내면과 속심 모두 명갈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석립이 섞여있으며 외면은 잘 정면하였다. 무늬는 어골문으로 한번 긋기한 후 그 선에 잇대어 80°정도로 30개 선을 나란히 그었다. 문양소간 간격은 2.6~3.2㎜로 일정한 편이다. 잔존크기 : 26.6×13.5×7.2㎜

⑦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⑦, 사진 51-③)

Ⅲ지역 1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과 기내면 모두 명갈색이며 속심도 명갈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운모와 석립이 다량 섞여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거칠다. 무늬는 어골문이며 문양대는 상하가 나누어져 있고 문양대 각도는 65°이며 문양소간 간격은 2.4~3.3㎜이다. 잔존크기 : 27.6×19×5.7㎜

⑧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⑧, 사진 51-④)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적갈색이고 기내면은 흑색이며 속심은 적갈색+흑색이 $\frac{1}{2}$정도이다. 점토질 태토에 가는 모래가 다량 섞여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정면하였다. 무늬는 어골문이며 문양소간 간격은 2.3~3.25㎜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19×11×9.6㎜

⑨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도면 13-⑨, 사진 51-⑤)

Ⅳ지역 나구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적갈색이고 기내면과 속심 모두 흑색이다. 점토질 태토에 운모와 모래가 다량 섞여있으며 외면과 기내면 모두 거칠다. 무늬는 없는 몸통부편으로 몸통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크기 : 26.4×2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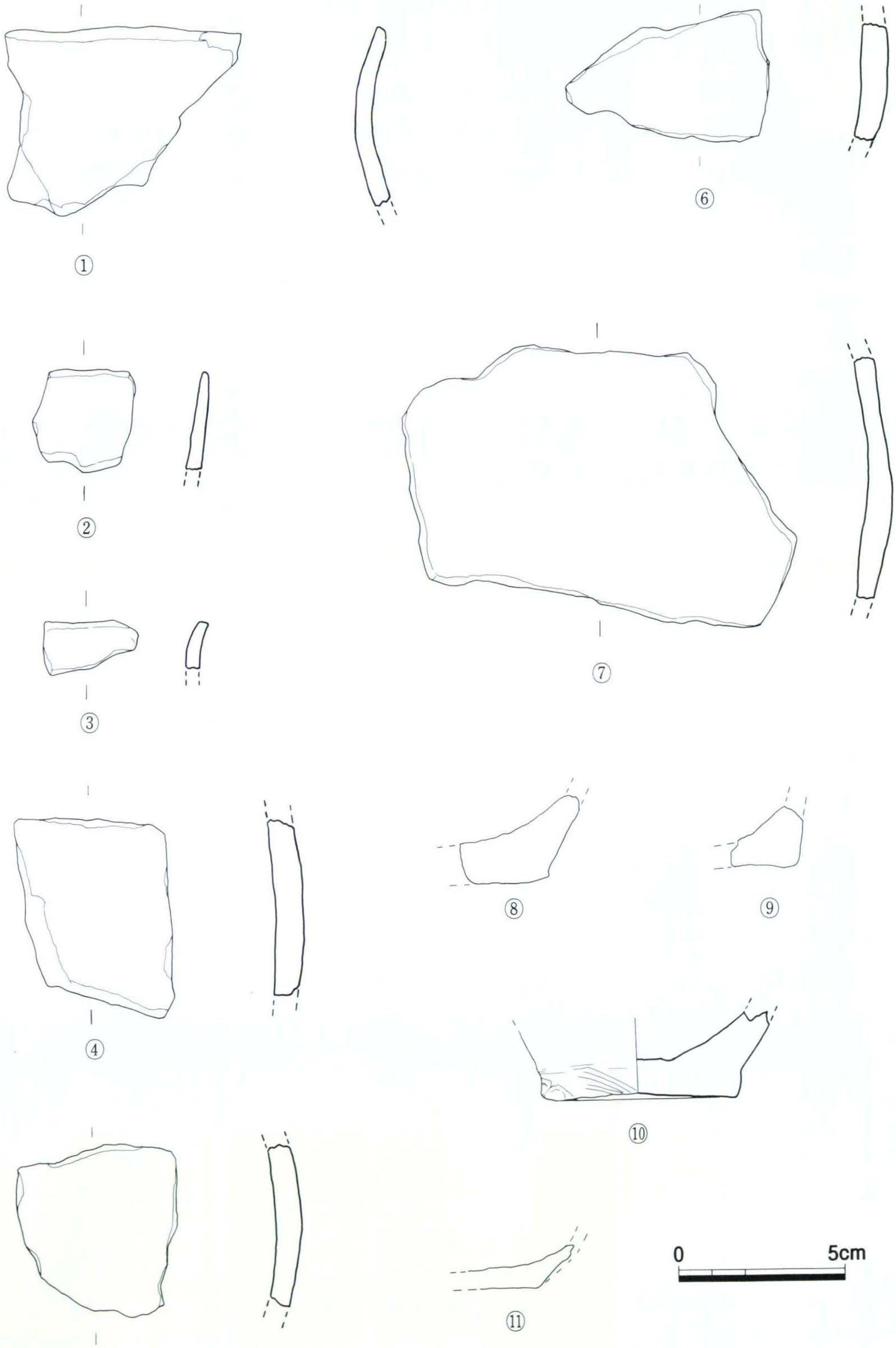
3) 무문토기

①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4-①, 사진 52-①)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질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외반되었고 구순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에는 목리흔이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크기 : 6.9×5.×0.6㎝

②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4-②, 사진 52-②)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적갈색의 색조를 띠며 태토는 가는 석립과 소량의 굵은 석립을 섞은



도면 14. 무문토기류

점토질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연장되어 곧추 섰으며 구순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잔존크기 : 2.8×2.5×0.5㎝

③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4-③, 사진 52-③)

Ⅲ지역 3Tr에서 수습되었고, 작은 구연부 편으로 전체적으로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석영질의 굵은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다. 구연부는 짧고 동체에서 약간 외반되었다. 구순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잔존크기 : 2.7×1.5×0.5㎝

④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4-④, 사진 53-①)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가는 석립을 다량 섞은 점토질이다. 외면은 목리흔이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잔존크기 : 5.5×4.2×0.8㎝

⑤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4-⑤, 사진 53-②)

Ⅲ지역 4Tr에서 수습되었고,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이다. 태토는 다량의 굵은 석영질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목리흔이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크기 : 5.0×4.5×0.7㎝

⑥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4-⑥, 사진 53-③)

Ⅲ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목리흔이 내면에는 목판의 흔적이 뚜렷하다. 잔존크기 : 6.0×3.8×0.7㎝

⑦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4-⑦, 사진 53-④)

Ⅲ지역 3Tr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일부 표면이 박락된 부분은 황갈색이다. 내면은 황갈색이며 태토는 가는 석립과 소량의 굵은 석영질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다. 내·외면에는 목리흔이 뚜렷이 나타나며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도 관찰된다. 잔존크기 : 10.7×6.9×0.6㎝

⑧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4-⑧, 사진 54-①)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적황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다량의 굵은 석영질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며, 편평바닥으로 굽은 꺽임 없이 동체와 바로 이어진다. 잔존높이 : 2.7㎝, 두께 : 1.5㎝

⑨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4-⑨, 사진 54-②)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내면은 흑색이다. 태토는 소량의 굵은 석영질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다. 편평바닥으로 굽은 꺽임 없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동체로 이어진다. 잔존높이 : 1.8㎝, 두께 : 0.9㎝

⑩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4-⑩, 사진 54-③)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적색이다. 태토는 석영질의 굵은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며,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이며 굽 안쪽에는 물손질 흔적과 목판으로 문지른 흔적이 둘레에는 손누름 자국과 목리흔이 관찰된다. 굽은 높이 1㎝ 정도에서 살짝 꺽여 동체와 이어진다. 잔존높이 : 3.0㎝, 두께 : 1.0㎝, 굽지름 : 5.8㎝, 굽높이 : 1.0㎝

⑪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4-⑪, 사진 54-④)

Ⅰ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외면은 흑갈색을 띠며 내면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석영질의 굵은 석립을 섞은 점토질이다. 굽의 형태는 결실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잔존하는 굽의 형태로 보아 꺽임 없이 바로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굽 내면에는 목판으로 문지른 흔적이 굽 외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 1.2㎝, 두께 : 0.7㎝

4) 백제토기

백제토기는 총 5점으로 모두 작은 편이며, 적석총 주변 지표에서만 수습되었다. 수습된 5점의 토기편은 모두 연질이며, 이중 2점의 토기편은 무문이고 나머지 3점은 타날문 토기편이다.

① 회백색 연질 무문토기편(도면 15-①, 사진 55-①)

회백색 연질의 무문토기편으로 구연부 편이다. 태토는 정면된 점토에 소량의 가는 모래를 섞었다, 구연은 동체에서 바로 짧게 외반되었고 구순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토기 성형시에 생긴 지문이 남아있다. 잔존크기 : 3.4×2.9×0.5㎝

② 회백색 연질 무문토기편(도면 15-②, 사진 55-②)

회백색 연질의 무문토기 편으로 동체부 편이다. 태토는 정면된 점토에 소량의 가는 모래를 섞었다. 잔존크기 : 3.6×1.7×0.4~0.5㎝

③ 회백색 연질 타날문토기편(도면 15-③, 사진 55-③)

회백색 연질의 타날문 토기편으로 동체부 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모래를 섞었다. 문양은 먼저 승문을 타날한 후 약 1.5㎝ 정도의 등간격을 두면서 횡침선을 그었으며 매우 무른 질의 토기편이라 일부 표면이 박락되었다. 잔존크기 : 4.2×4.0×0.5~0.7㎝

④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편(도면 15-④, 사진 55-④)

적갈색 연질 타날문 토기편으로 동체부 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고운 모래를 섞었다. 문양은 교차승문을 타날하였으며 일부 표면이 박락되어 문양이 일부분 지워졌다. 잔존크기 : 3.4×1.9×0.5~0.6㎝

⑤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편(도면 15-⑤, 사진 55-⑤)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 토기편으로 동체부 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고운 모래를 섞었다. 문양은 교차승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그었으며, 횡침선 간의 간격은 일정치않다. 잔존크기 : 4.5×3.7×0.4~0.5㎝

5)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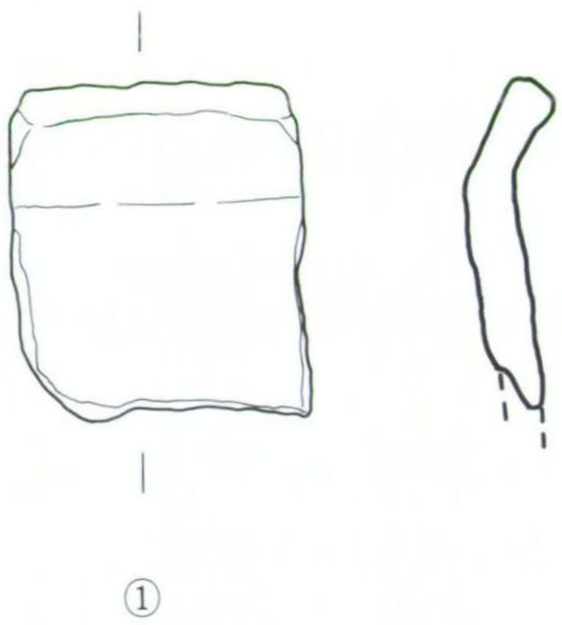
Ⅲ지역에서 대부분이 수습되었으며, 조선시대 백자가 주류이고 흑유자도 2점 수습되었다. 조선백자는 굽의 형태와 받침 수법 등으로 보아 17~19세기의 순백자가 주를 이루며, 청화백자도 4점 포함되어 있다. 일부 일제시대에 제작된 예도 눈에 띈다. 기종은 사발, 대접, 접시, 잔, 종지, 제기 등이 대부분이며 호와 병이 소량 섞여 있다. 전형적인 생활용기가 출토되는 가운데 제기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목된다.

① 백자잔(도면 16-①, 사진 56-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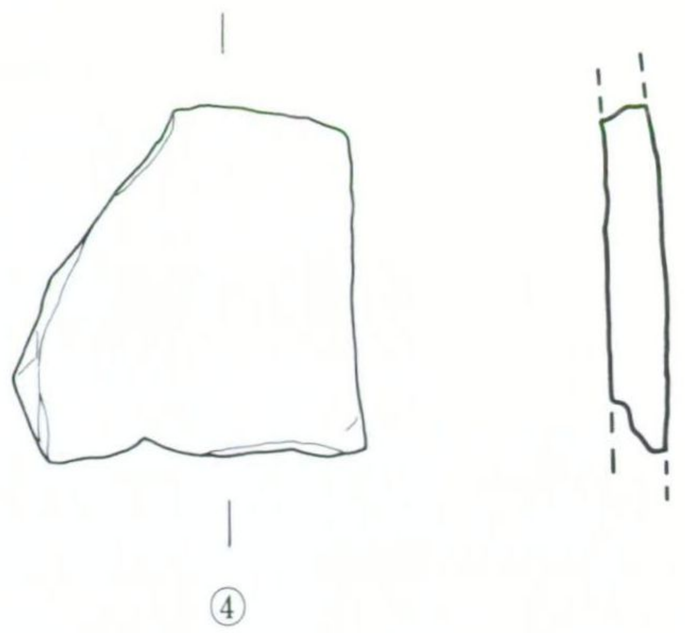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고 저부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른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장식은 없으며 광택이 있는 설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미세한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높이: 5.3㎝, 구경: 9.9㎝, 저경: 4.4㎝

② 백자잔(도면 16-②, 사진 56-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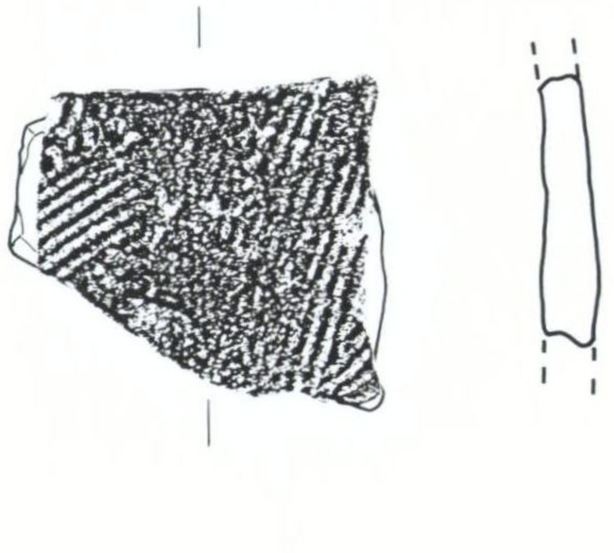
구연이 살짝 내경하며 도톰하게 마무리되었고 동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는 형태의 잔이다. 바닥면을 낮게 파내어 굽을 대신하였다. 장식은 없으며 광택이 있는 설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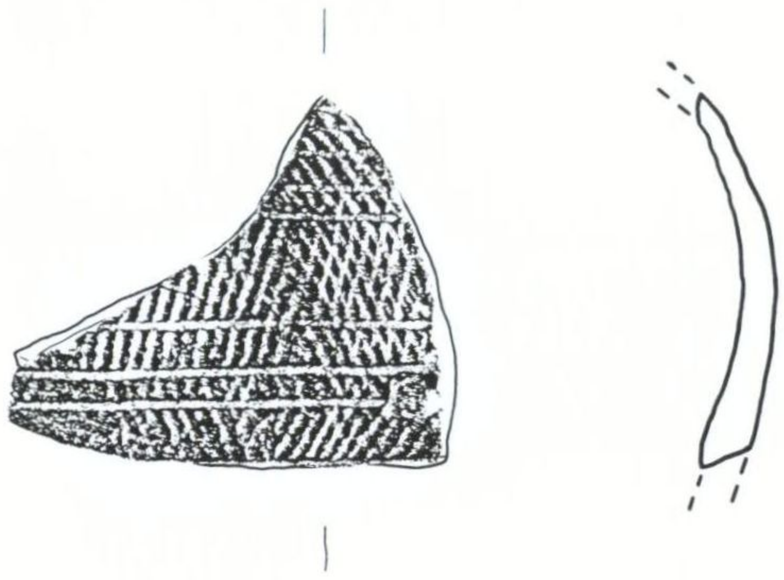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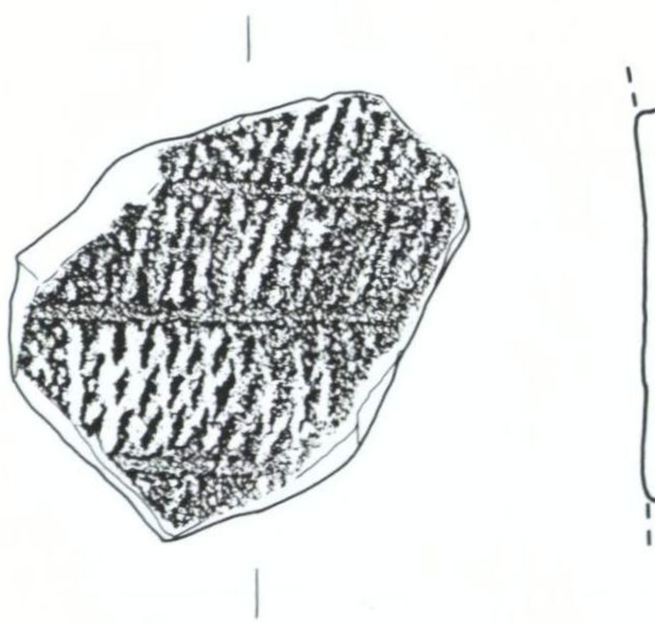
④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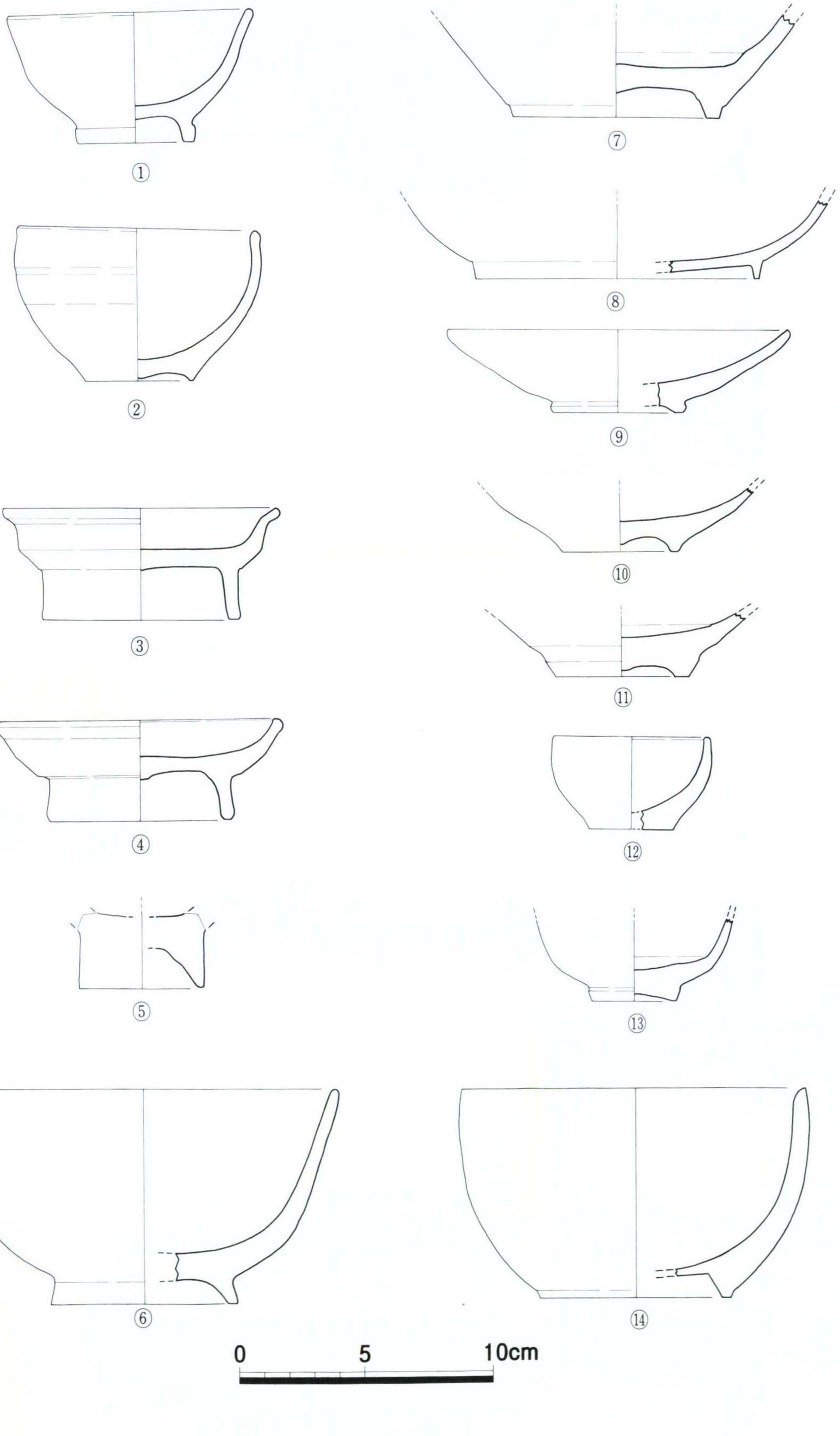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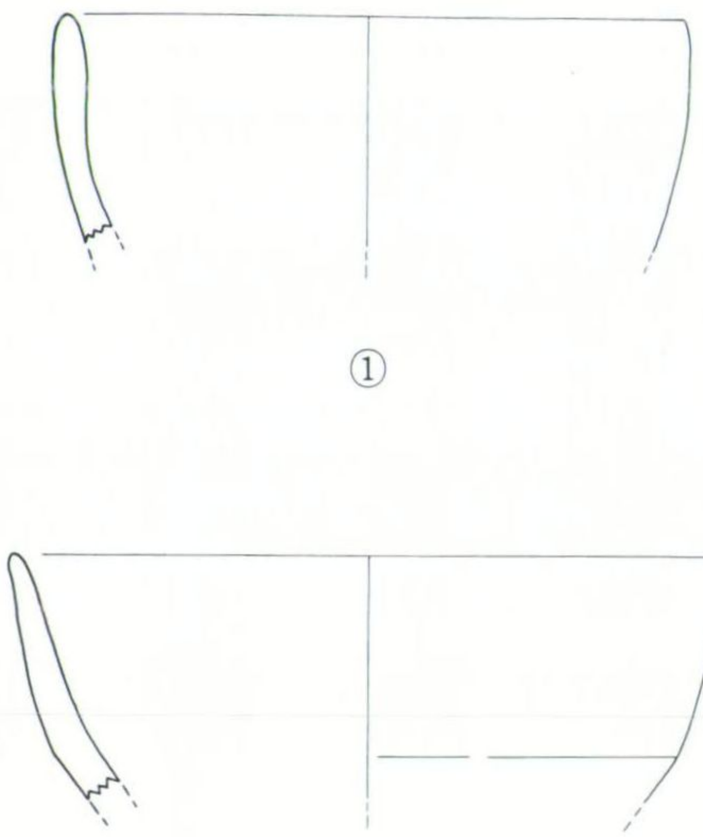
③



도면 15. 백제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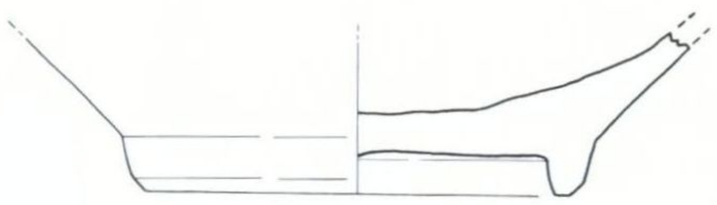


도면 16.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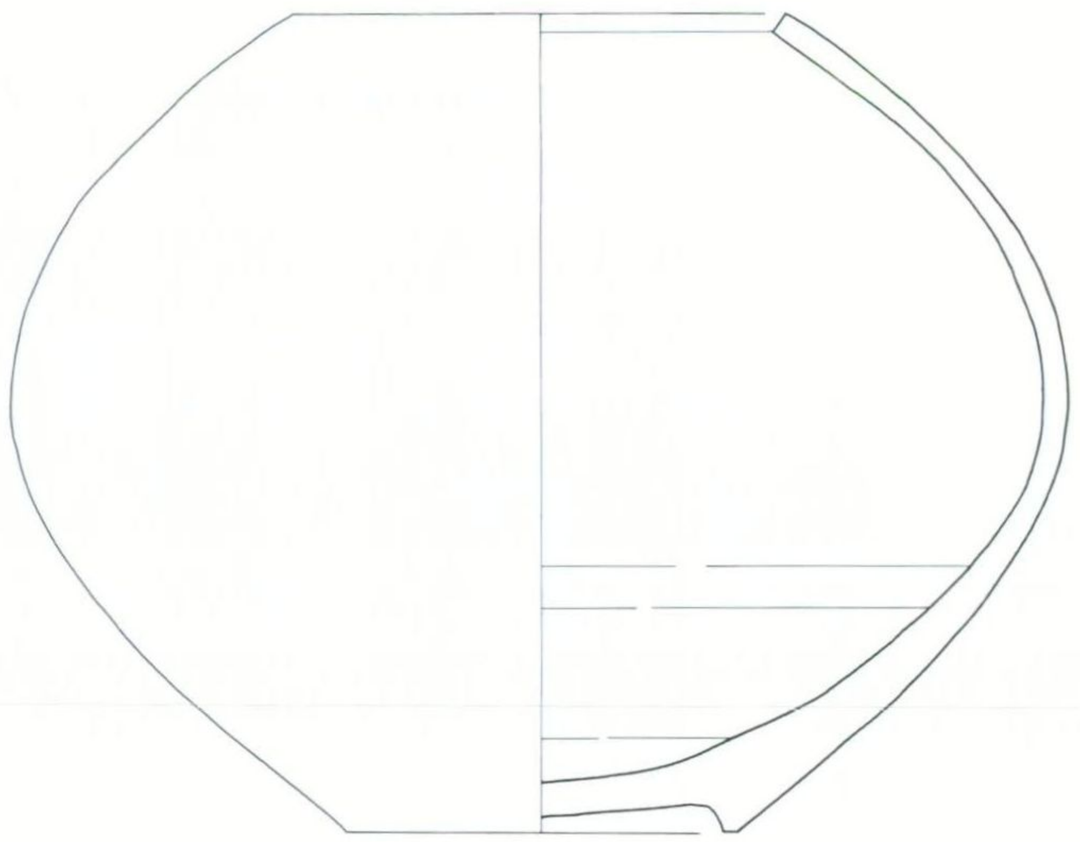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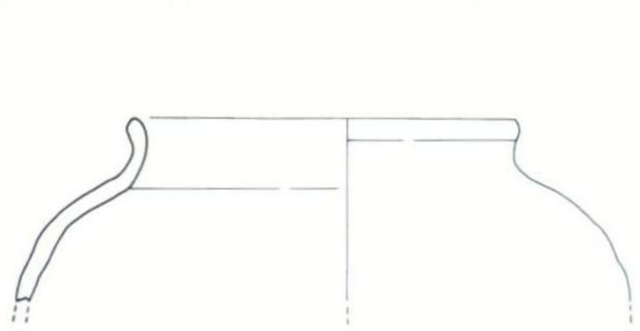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도면 17. 자기류

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높이: 6.2㎝, 구경: 9.6㎝, 저경: 4.2㎝

③ 백자제기(도면 16-③, 사진 57-①)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고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른다. 굽은 높고 살짝 외반하며 안바닥이 깊게 파여 있다. 장식은 없으며, 내저면이 넓고 편평한 형태의 제기이다. 기벽 외면에 칼로 다듬어낸 흔적이 선명하다. 광택이 있는 연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樹枝形의 빙렬이 일부 눈에 띈다. 접지면에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높이: 4.4㎝, 추정구경: 10.8㎝, 추정저경: 7.8㎝

④ 백자제기(도면 16-④, 사진 57-②)

구연부가 외반하며 도톰하게 마무리되었고 동체는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각을 이루며 굽에 이른다. 굽은

높고 안바닥이 깊게 파여 있다. 장식은 없으며 광택이 있는 연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접지면에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높이: 4.0㎝, 추정구경: 11.0㎝, 추정저경: 7.2㎝

⑤ 백자제기(도면 16-⑤, 사진 57-③)

제기의 굽편으로, 굽의 높이가 높고 안바닥이 깊게 파여 있으며 외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모깎이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樹枝形의 빙렬이 일부 눈에 띄며 받침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잔존높이: 3.0㎝, 저경: 5.0㎝

⑥ 백자대접(도면 16-⑥, 사진 58-①)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며 밖으로 벌어진 형태의 대접으로 저부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른다. 굽은 외반하며, 내외면을 다듬어 접지면의 폭이 좁다. 장식은 없다. 광택이 있는 담청색의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樹枝形의 빙렬이 눈에 띈다. 접지면에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잔존높이: 8.5㎝, 추정구경: 15.4㎝, 추정저경: 7.4㎝

⑦ 백자대접(도면 16-⑦, 사진 58-②)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른다. 내저면 가장자리를 따라 커다란 원각이 있고,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안팎을 다듬지 않았다. 장식은 없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으며 부분 산화되어 담황색을 띤다. 미세한 빙렬이 있으며,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3.8㎝, 추정저경: 8.2㎝

⑧ 백자접시(도면 16-⑧, 사진 59-①)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른다. 내저면이 넓은 곡면을 이루고, 굽은 높이가 낮고 살짝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기벽이 전체적으로 얇고 두께가 일정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장식은 없다. 광택이 있는 설백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었으며, 받침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잔존높이: 3.0㎝, 추정저경: 11.2㎝

⑨ 백자접시(도면 16-⑨, 사진 59-②)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고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른다. 굽은 죽절굽으로 안바닥이 오목하게 파여 있다. 장식은 없다. 백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으나 산화되어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미세한 빙열이 있으며, 굽부분에 시유하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높이: 3.3㎝, 추정구경: 13.4㎝, 추정저경: 5.1㎝

⑩ 백자접시(도면 16-⑩, 사진 59-③)

구연부가 결실되었으나, 동체의 기벽이 벌어진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른다. 굽은 내경하며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장식은 없다. 연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훑어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잔존높이: 2.5㎝, 추정저경: 4.5㎝

⑪ 백자접시(도면 16-⑪, 사진 59-④)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사선으로 벌어진 기벽이 저부에서 각을 이루며 굽에 이른다. 내저면에 커다란 원각이 있으며, 굽은 살짝 내경하는 죽절굽으로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굽바닥에 세로로 '○단'이라는 묵서명이 있다. 푸른 빛이 도는 연회백색 유약의 용융 상태가 좋지 못하며, 굽부분에 시유하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잔존높이: 2.5㎝, 저경: 5.2㎝

⑫ 백자종지(도면 16-⑫, 사진 60-①)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거의 직립하는 형태의 작은 종지이다. 바닥을 편평하게 잘라 내어 굽을 대신하였다. 장식은 없으며, 담청백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고 바닥면의 유를 닦아 내었으나 받침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높이: 3.7㎝, 추정구경: 6.0㎝, 추정저경: 3.4㎝

⑬ 백자종지 (도면 16-⑬, 사진 60-②)

구연부가 결실되었고, 사선으로 벌어진 동체의 기벽이 저부에서 호를 그리며 굽에 이른다. 내저면 가장자리를 따라 커다란 원각이 있고, 굽은 직립하며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장식은 없으며 광택이 있는 담청색의 유약이 다소 두껍게 씌워져 있고 굽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규석립이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3.2㎝, 저경: 3.4㎝

⑭ 청화백자초화문사발(도면 16-⑭, 사진 61)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며 살짝 외반한 굽에 이른다. 굽바닥이 깨어져 나갔으며, 내저면에 청 안료로 두 줄의 원권을 돌리고 초화문을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택이 있는 설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일부 빙렬이 눈에 띈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높이: 8.3㎝, 추정구경: 13.5㎝, 추정저경: 7.8㎝

⑮ 청화백자초화문사발(도면 17-①, 사진 63-①)

구연의 끝부분이 살짝 외반하며 동체의 기벽이 거의 직립하는 사발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 아래 기벽 외면에 발색이 짙은 청색 안료로 두 줄 횡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초문을 장식한 흔적이 있다. 회색빛이 도는 설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미세한 빙렬이 있다. 추정구경: 13.1㎝

⑯ 청화백자초화문사발(도면 17-②, 사진 63-③)

구연부가 살짝 내경하며 동체의 기벽이 거의 직립하는 사발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 아래 외면에 청 안료로 한 줄의 횡선을 장식하고 그 밑에 다섯 잎의 초문을 그려 넣었다. 광택이 있는 설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추정구경: 15.1㎝

⑰ 흑유발 (도면 17-③, 사진 58-③)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기벽이 벌어져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내저면이 넓은 발의 저부 편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안팎을 살짝 다듬어내었다. 암흑갈색 유약의 시유 상태가 좋지 못하며, 접지면과 굽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3.5㎝ , 추정저경: 9.0㎝

⑱ 백자호 (도면 17-④, 사진 62)

구연과 동체의 기벽이 직립하며 곡선을 그리다가 중심부에서 도드라지게 팽창하는 형태의 커다란 호이다. 굽은 바닥면을 낮게 깎아낸 안굽이며, 구연을 칼로 다듬어내어 밋밋하게 처리한 것이 이채롭다. 장식은 없다. 푸른빛이 도는 연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는데, 구연부의 유를 빙 돌려 닦아 내었고 내면은 고루 시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굵은 모래가 섞인 사질 내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높이: 17.4㎝, 추정구경: 10.4㎝, 저경: 8.4㎝

⑲ 흑유호(도면 17-⑤, 사진 63-①)

구연이 직립하며 동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호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의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말아 붙여 도톰하게 처리하였다. 기벽의 두께가 얇고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암흑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추정구경: 7.2㎝

⑳ 백자병 (도면 17-⑥, 사진 63-④)

구연의 직경이 작고 목이 긴 병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의 끝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외반하는 안쪽을 칼로 거칠게 깎아낸 것이 이채롭다. 푸른빛이 도는 연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는데, 구연과 내면에 고루 시유되지 않았다.

6) 기와

출토된 기와류는 총 12점이며 모두 평기와이다. 이 중 수키와가 11점, 암키와가 1점이며 모두 Ⅲ지역에서 수습되었다. 문양구성은 집선문 계통과 무문양으로 나누어지며 수습된 기와 중 세부속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2점을 제외한 10점의 기와를 선별하여 서술하였다.

① 반원집선문 수키와(도면 18-①, 사진 64-①)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질로 등면에는 폭 5㎝ 크기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약간 중첩되게 반원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등면 끝단에는 길이 3㎝, 두께 1.5㎝ 정도의 언강부를 연결하였으며 언강의 높이는 1㎝이다.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깍아 내린 흔적과 물질흔적, 솔질흔적이 확인된다.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다. 등면에는 부분적으로 물솔질 흔적이 나타난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 쪽에서 $\frac{1}{2}$~$\frac{1}{3}$정도 범위에서 분할하였다. 잔존길이:17㎝, 너비:11㎝, 두께: 1.5~2.2㎝

② 가로집선문 수키와(도면 18-②, 사진 64-②)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석영질의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약간의 굵은 석립이 표면에 드러나 있고 미구부분에는 자연유가 형성되었다. 등면에는 폭 2.5㎝ 크기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약간 중첩되게 집선문을 시문하였고, 미구부분에는 세로방향으로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일부분이 지워졌다. 내면은 균열이 심하게 나 있으며 포겹침 흔적과 마포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미구부분 4㎝ 구간은 와도로 깍아 내려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 쪽에서 $\frac{1}{4}$ 정도 긋고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2㎝, 너비: 9㎝, 두께: 1.4~2㎝

③ 무문 수키와(도면 18-③, 사진 6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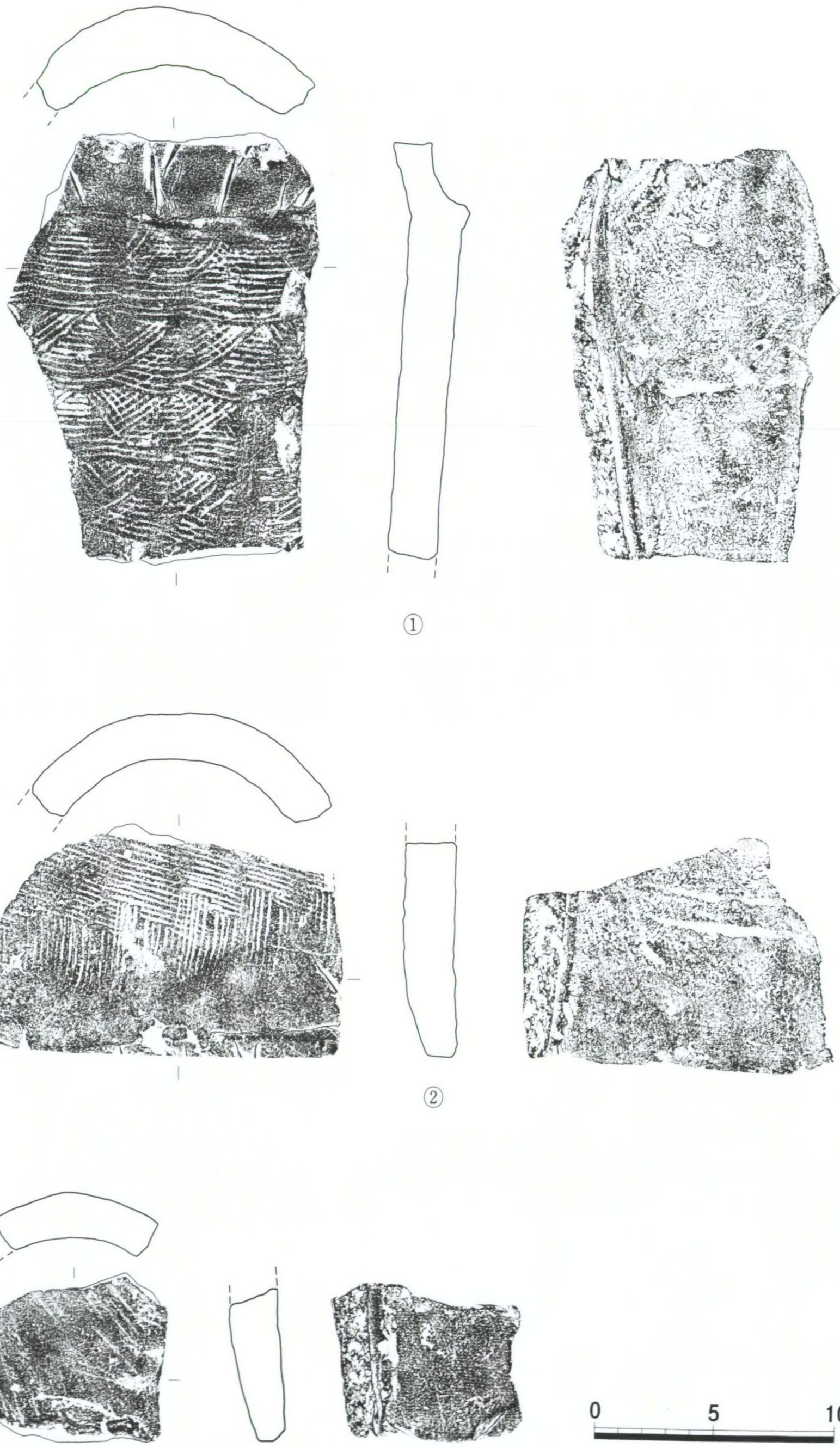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 대부분이 결실되고 미구부분만이 남아 있다.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물질 흔적이 확인되고 일부 마포흔이 남아있다. 미구부분 3.5㎝ 구간은 와도로 깍아 내려 두께를 얇게 조절하였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 쪽에서 $\frac{1}{3}$ 정도로 긋고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5㎝, 너비: 6.5㎝, 두께: 1.2~2㎝

④ 반원집선문 수키와(도면 19-①, 사진 6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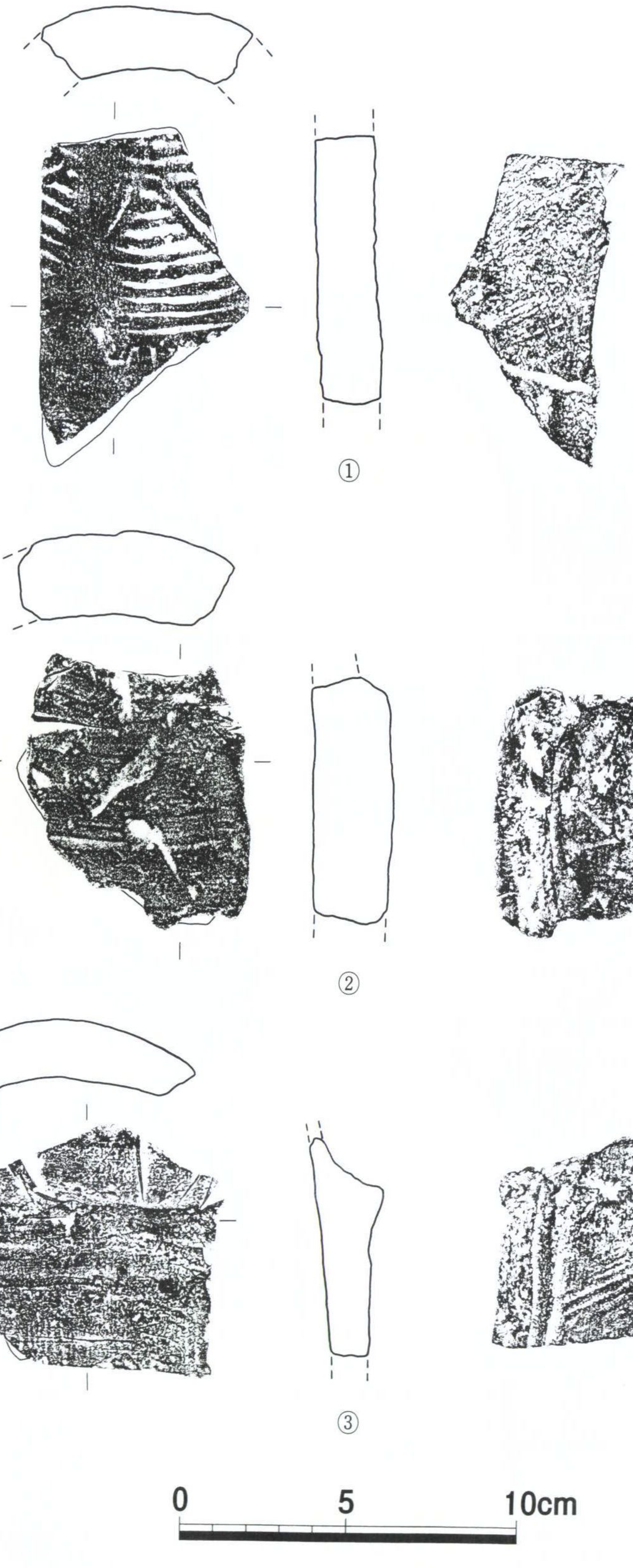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질로 등면에는 선이 굵은 반원집선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깍아 내린 흔적과 물질흔적, 솔질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의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다. 등면에는 시문 후 부분적으로 물솔질을 하여 일부 문양이 지워졌다. 분할면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잔존길이: 9.5㎝, 너비: 5.5㎝, 두께: 1.5~1.8㎝

⑤ 무문 수키와(도면 19-②, 사진 6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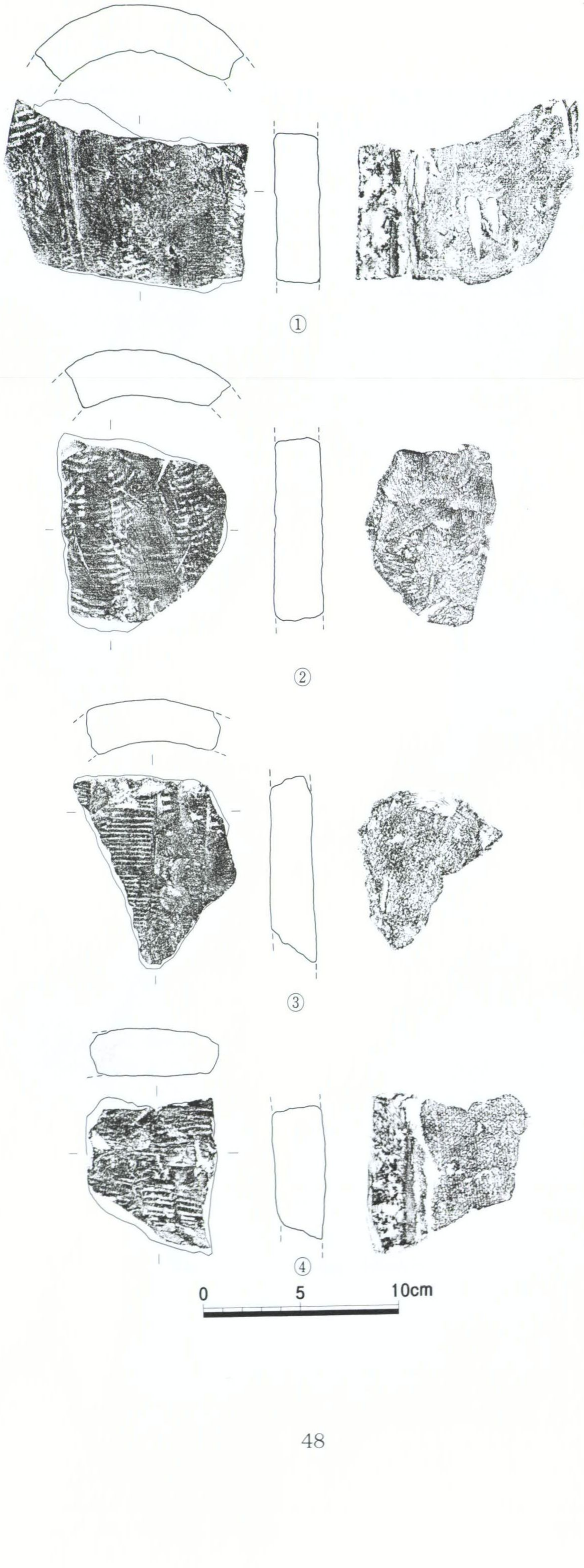
회백색 연질로 표면박리가 심하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질로 등면은 무문이다. 내면에는 물질 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의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다. 언강부분이 남아 있으며 언강의 높이는 1㎝ 이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쪽에서 $\frac{1}{3}$~$\frac{1}{4}$정도로 긋고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3㎝, 너비:6.5㎝, 두께: 2~2.5㎝



도면 18. 기와류



도면 19. 기와류



도면 20. 기와류

⑥ 무문 수키와(도면 19-③, 사진 64-⑥)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와 소량의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로 등면은 무문이다. 내면에는 물질흔적, 가로방향의 굵은 솔질흔적, 세로방향의 가는 솔질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의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며 등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등면 끝단에는 언강부를 연결하였고 언강부에는 물솔질 흔적이 나타나며 언강의 높이는 1㎝ 이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 쪽에서 $\frac{1}{3}$ 정도로 긋고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5㎝, 너비: 7.5㎝, 두께: 0.5~1.5㎝

⑦ 반원집선문 수키와(도면 20-①, 사진 65-①)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 등면은 반원집선문이다. 내면에는 기와 분할선 흔적, 도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과 마포흔이 뚜렷이 확인된다. 등면에는 시문 후 가는 물솔질을 하여서 문양 대부분이 지워져 알아보기 어렵다. 분할면은 와도로 내면 쪽에서 $\frac{1}{4}$ 정도로 긋고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 너비: 11㎝, 두께: 2~2.4㎝

⑧ 반원집선문 수키와(도면 20-②, 사진 65-②)

등면은 회청색이고 내면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소성품이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약간 섞인 정선된 점토질이며 등면에는 폭 5㎝ 크기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1㎝ 정도 중첩되게 반원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물질흔적과 가는 솔질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의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다. 등면에는 시문 후 부분적으로 물손질과 가는 솔질을 하였다. 분할면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잔존길이 : 9.5㎝, 너비: 8.5㎝, 두께: 1.5~2.4㎝

⑨ 가로집선문 수키와(도면 20-③, 사진 65-③)

회청색 경질이며,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 등면은 가로집선문이다. 내면에는물질의 흔적이 확인되며 마포흔은 지워진 상태이다. 등면에는 시문 후 부분적으로 가는 솔질을 하였으며 지문 자국도 확인된다. 분할면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잔존길이: 9.7㎝, 너비: 7㎝, 두께: 1.9~2.1㎝

⑩ 가로집선문 암키와(도면 20-④, 사진 65-④)

회백색 계통에 속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소성품이다. 태토는 가는 모래와 소량의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이며 전체적으로 균열이 많이 일어났다. 등면은 가로집선문이다. 내면에는 물질흔적과 마포흔이 있으며 등면에는 일부분 가는 솔질흔적이 확인된다. 분할면은 내면 쪽에서 $\frac{1}{3}$ ~ $\frac{1}{4}$ 범위에서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5㎝, 너비: 6.5㎝, 두께: 2.1~2.4㎝

Ⅴ. 맺 음 말(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구간내 유적 시굴조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2001년 6월 13일부터 2002년 3월 27일까지 유물산포지 4개소 38,300㎡(11,586평)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각 지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표토층(복토층)-(암)갈색 점토질 모래층-황갈색 모래층-갈색 점토질 모래층-회색 모래질 왕자갈층-갈색모래층-회색 모래질 왕자갈층-갈색 점토질 모래층-자갈층을 기본으로 하며, 모래층과 점토층이 반복되는 유수 기원 퇴적층이다.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Ⅰ지역 가구역은 2×10m 1Tr에서 회곽묘 1기와 민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나구역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2. Ⅲ지역은 참호 1기, 바닥만 남은 조선시대 주거지 1기, 근대이후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이 홍수로 인해 원래 토양이 유실된 이후 복토된 지형이다. 또한 2000년 한국토지박물관의 지표조사시 적석총 서쪽 자연제방 남쪽의 강안대지에서 구석기시대~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수습된 바 있어, 확장트렌치를 연장하여 층위를 확인한 결과 표토층-유수모래퇴적층으로 조사지역과 동일한 퇴적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3. Ⅳ지역은 쓰레기 폐기움 2기, 화덕자리 1기, 근대이후 집자리 1기가 확인되어 유구 주변으로 Tr를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4개 지점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습되었다.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지만 경작지의 확대시 잦은 삭토로 원래 유적이 남아 있던 부분이 모두 훼손되면서 지표에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 및 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지역은 수목원이 들어서면서 원래 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었고 그 이후 논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훼손되었다. 이 지역도 홍수로 인해 남쪽부분이 훼손된 후 조사대상지역 대부분이 복토되었으며 서쪽 계곡부로 가면서 복토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이번 조사는 제방선을 따라 조사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유적 남쪽 끝부분만을 조사하였지만, 해발고도가 높고 비교적 원지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을 주변과 Ⅰ지역 한우농장 주변, Ⅳ지역 조사지역 북쪽 밭은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6. Ⅲ지역 남쪽 제방선 끝에 위치한 적석총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현재 주변 일대가 1996년과 1998년 홍수로 인해 적석총 원형 중 강안쪽 일부가 유실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제방이 들어설 경우 임진강의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어, 제방에 의해 강안에 방치될 경우 여름철 홍수시 유실의 위험이 매우 높아짐으로 해서 현상보존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제방공사가 완료되기 전 장마철을 피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구간내 시굴조사 현황

조사지역	조사면적	유 구	수습 유물	발굴여부
Ⅰ지역	11,500㎡ (230×50m)	민묘 2기, 회곽묘 1기	지표 :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화살촉	불필요
Ⅲ지역	10,200㎡ (170×60m)	참호 1기, 주거지 4기	조선시대 주거지 : 백자, 토기 주거지 3기 : 근대 이후 유물 지표 : 구석기,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적석총 발굴조사
Ⅳ지역	10,000㎡ (200×50m)	쓰레기 폐기움 2기, 주거지 1기	주거지 : 조선시대 토기, 자기 지표 :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돌끌, 돌대패날	불필요
기타지역	6,600㎡ (110×60m)	유구 없음	지표 : 토기, 자기	불필요

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유구는 민묘 2기, 회곽묘 1기, 참호 1기, 쓰레기 폐기움 2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근대 이후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지표에서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돌끌, 돌대패날, 조선시대 기와 · 자기 · 도기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선사시대 유물들은 지표하 1m 내외에서 여러 시대의 것들과 같은 층위에서 수습되어 신석기시대 이후 조사지역의 지층이 안정화 되었고 이후 같은 높이의 지형이 유지되면서 전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면서 연속하여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m 내외의 퇴적층 아래는 유수기원 퇴적층으로 황갈색 모래층-갈색점토질 모래층 혹은 점토층이 물의 영향 정도에 따라 두께를 달리하며 퇴적되어 있어 지표에서 가까운 깊이에 유구가 존재하며, 해발고도가 제방보다 높은 마을쪽과 Ⅰ · Ⅳ지역 북쪽 경계선에 연한 곳이 유구의 부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강 유역의 다른 유적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여 백

사 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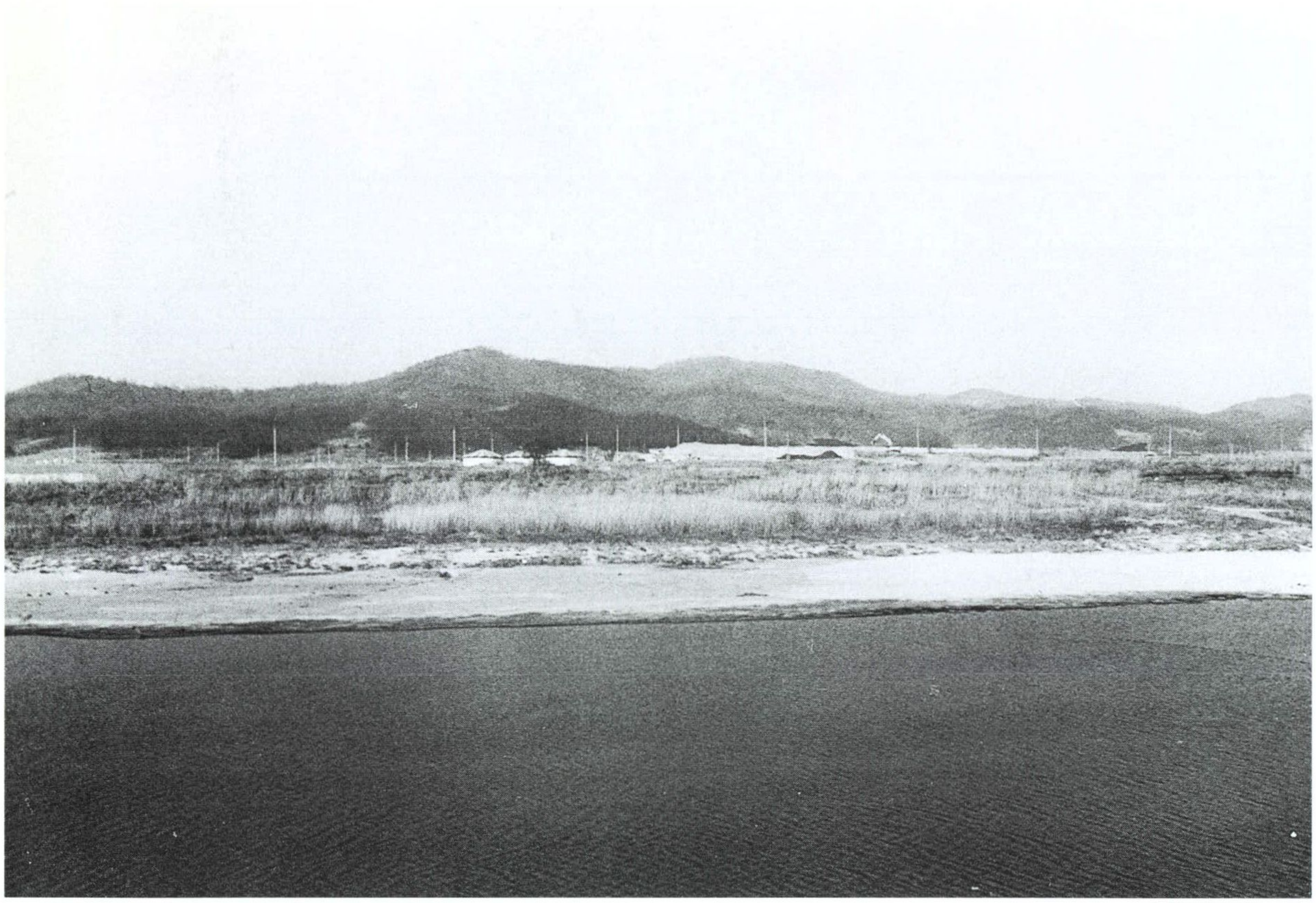


사진 1. Ⅰ지역 원경



사진 2. Ⅰ지역 가구역 5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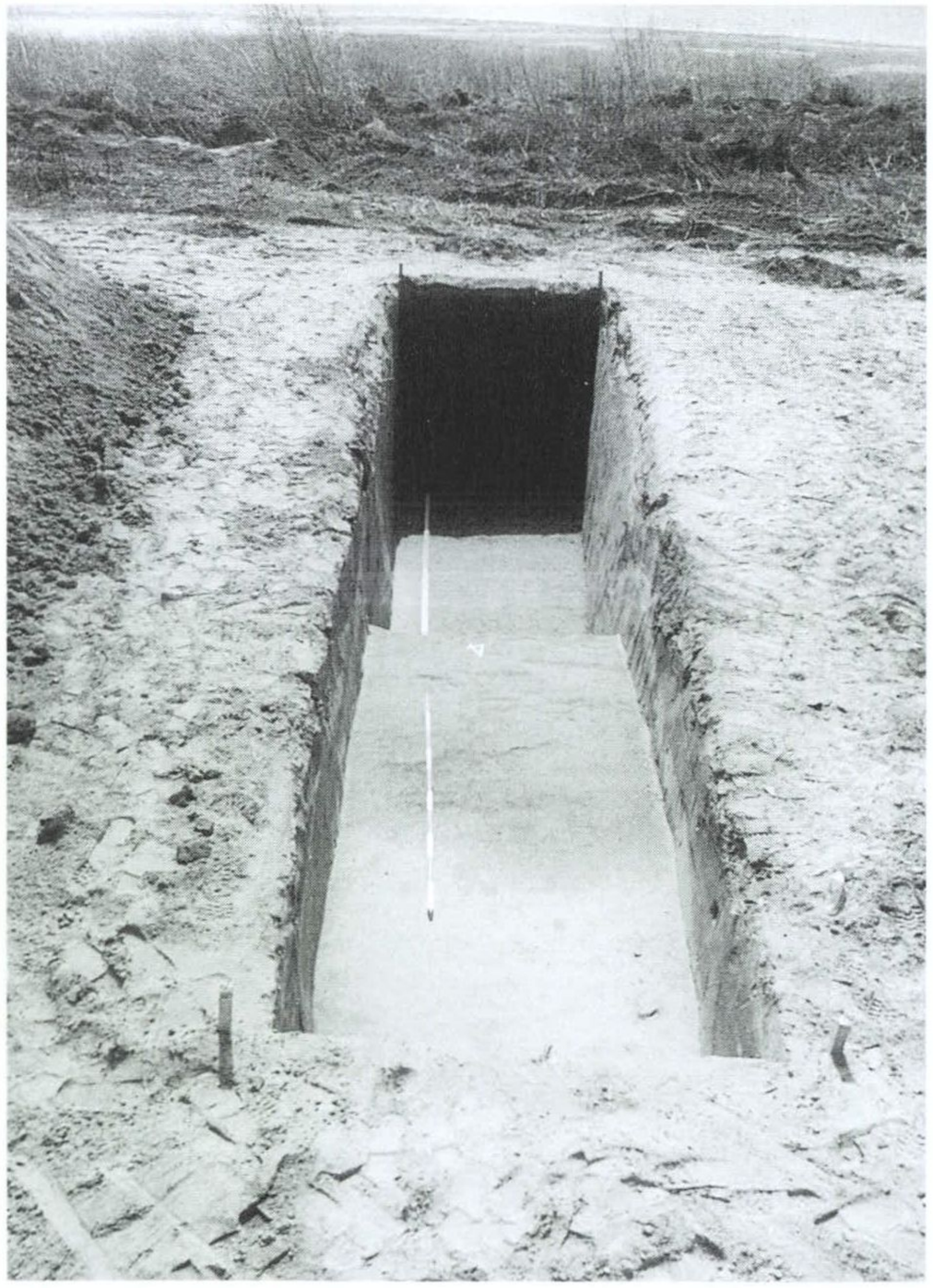


사진 3 Ⅰ지역 가구역 4Tr



사진 4. Ⅰ지역 가구역 4Tr 토층



사진 5. Ⅰ지역 나구역 탐색Tr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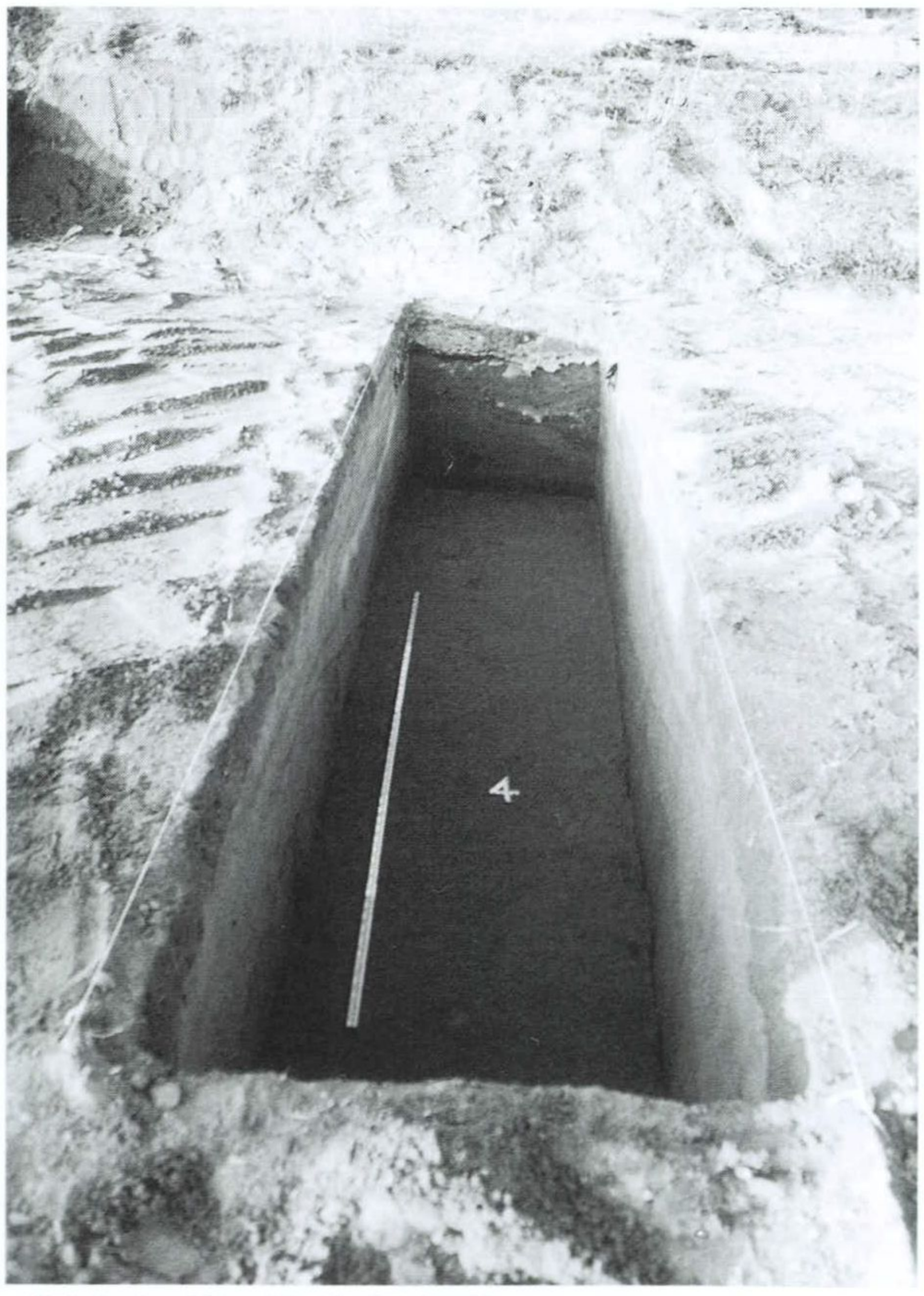


사진 6. Ⅰ지역 나구역 4Tr 전경



사진 7. Ⅰ지역 나구역 4Tr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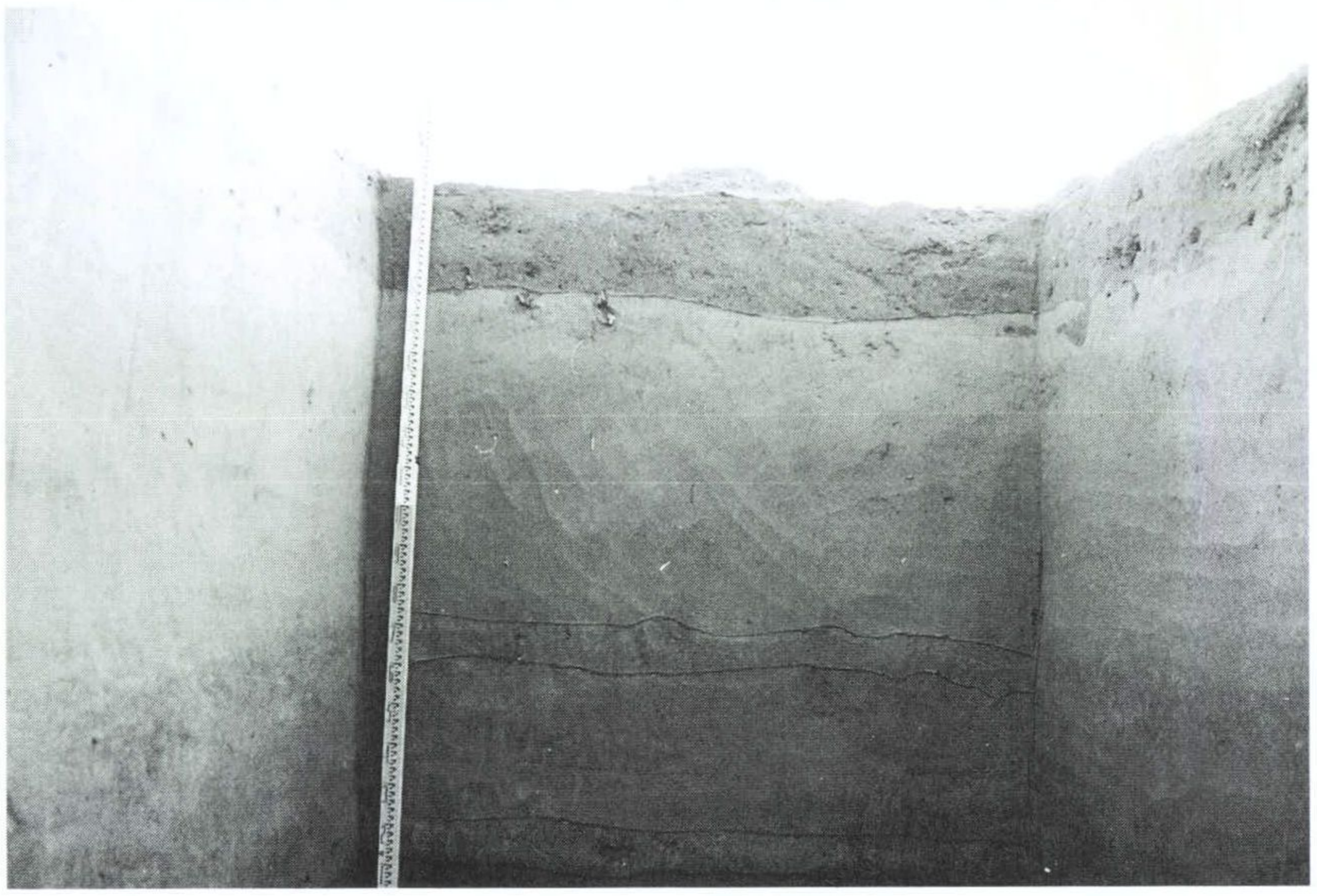


사진 8. Ⅰ지역 나구역 3Tr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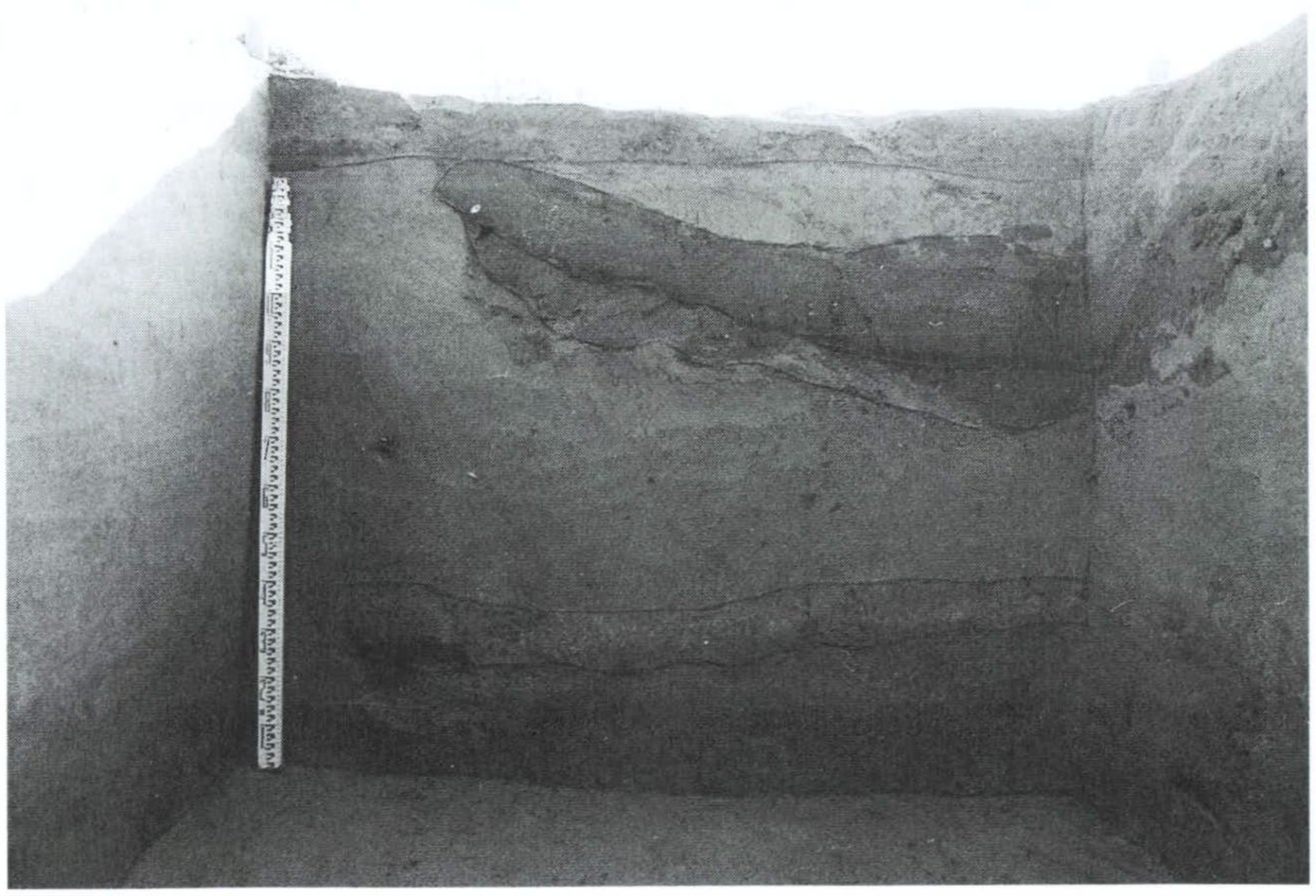


사진 9. Ⅰ지역 나구역 2Tr 토층



사진 10. Ⅲ지역 원경



사진 11. Ⅲ지역 탐색트렌치



사진 12. Ⅲ지역 1Tr



사진 13. Ⅲ지역 1Tr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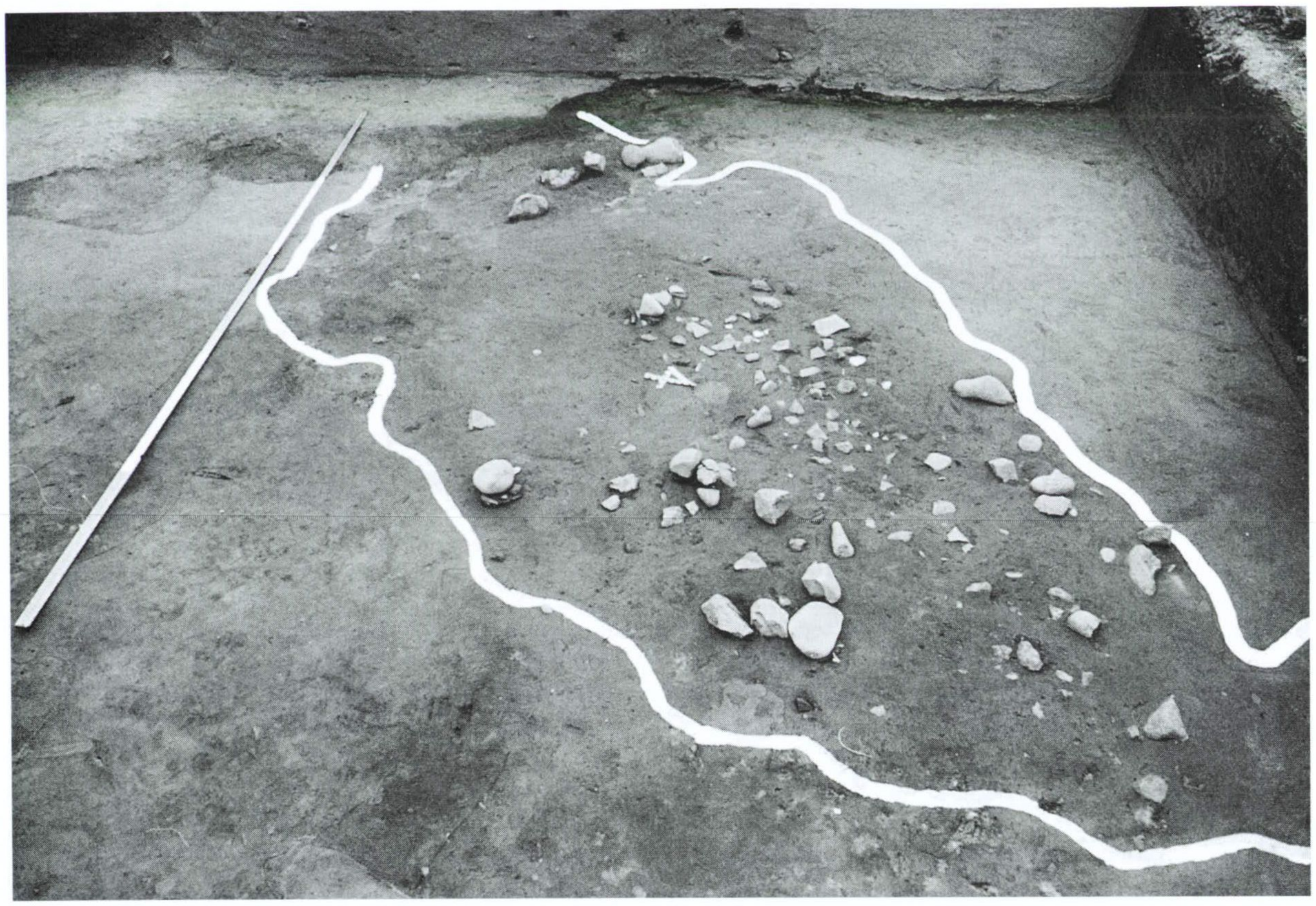


사진 14. Ⅲ지역 1Tr 주거지 1(조사 전)



사진 15. Ⅲ지역 1Tr 주거지 1(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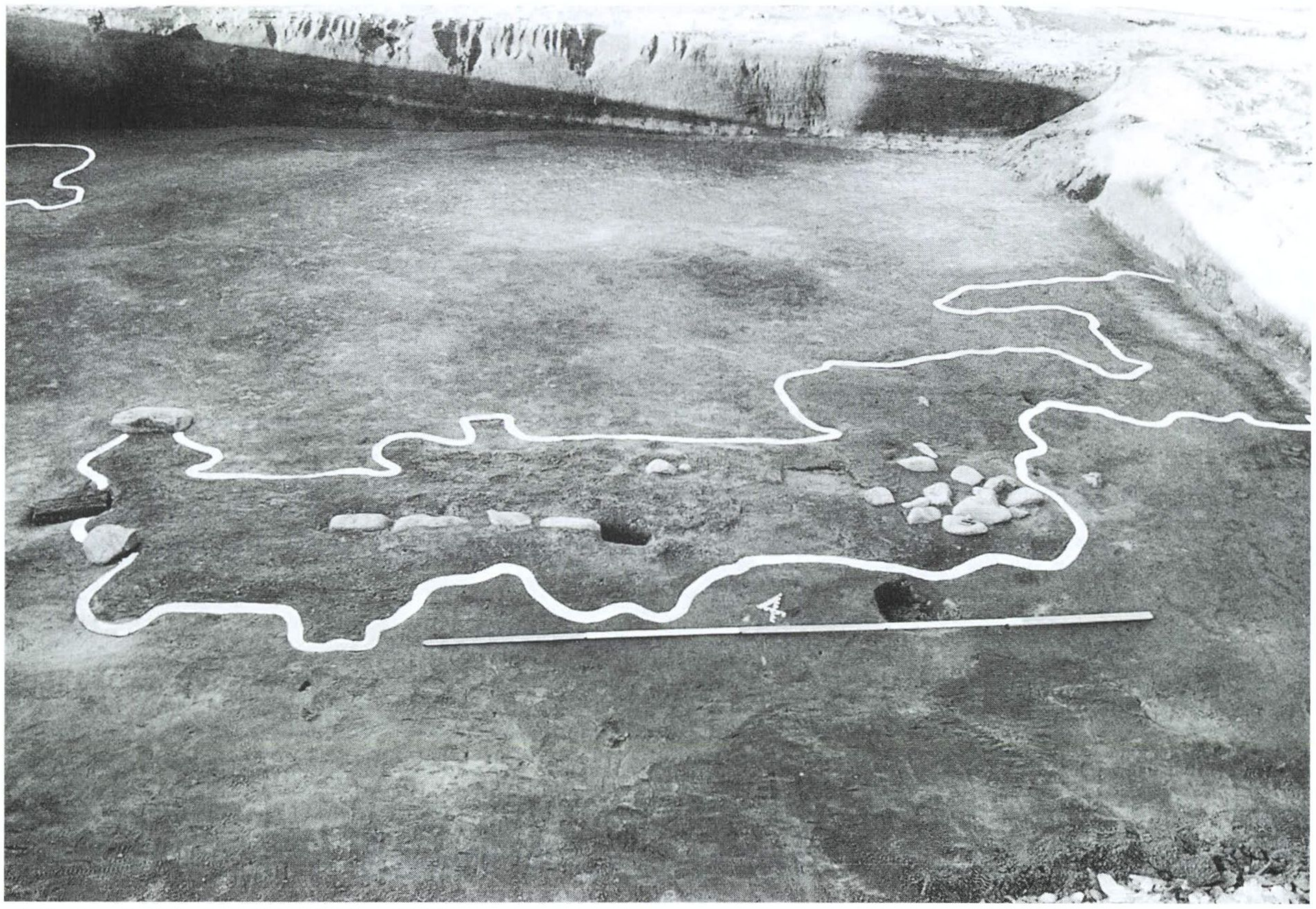


사진 16. Ⅲ지역 3Tr 군용 참호(조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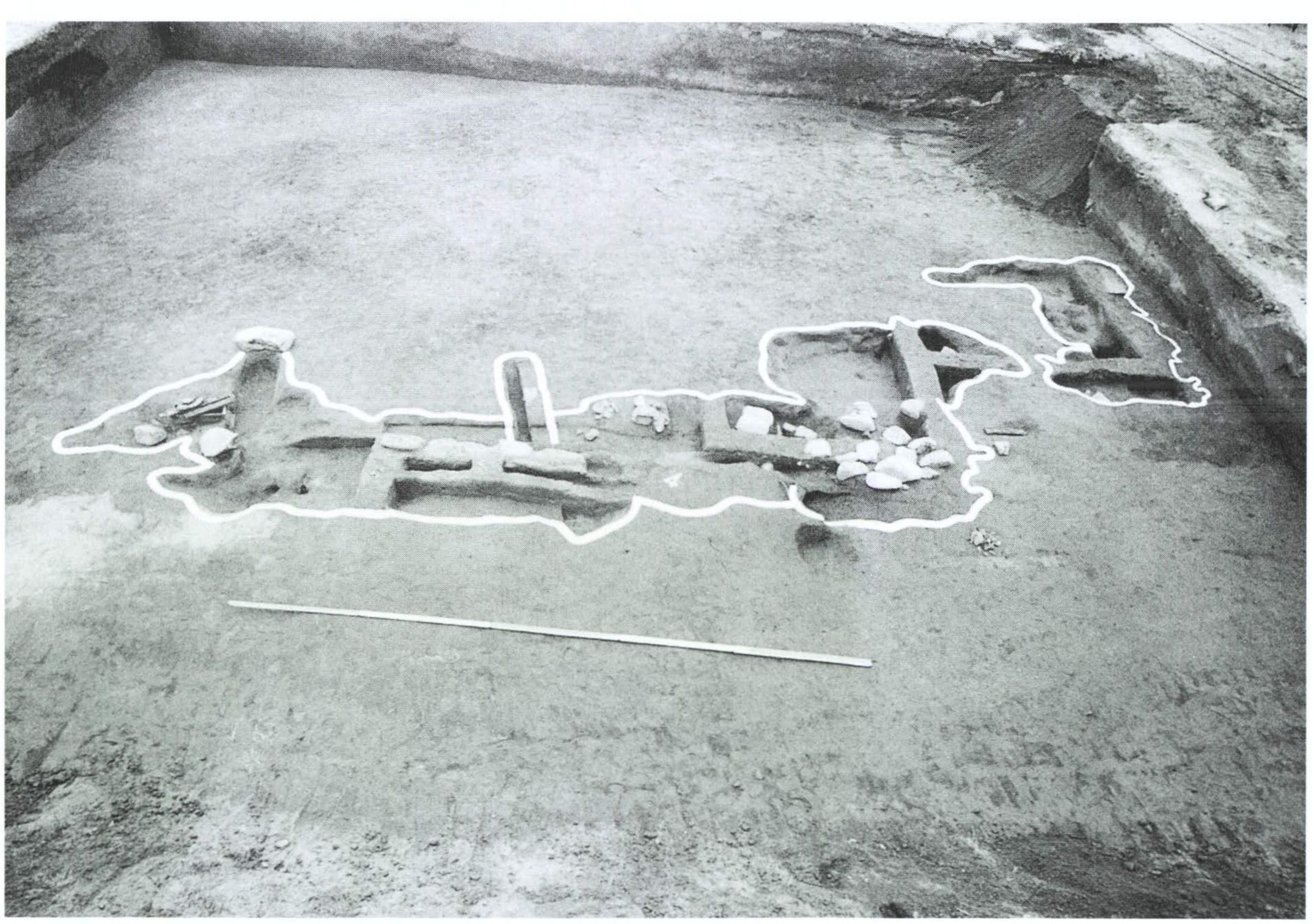


사진 17. Ⅲ지역 3Tr 군용 참호(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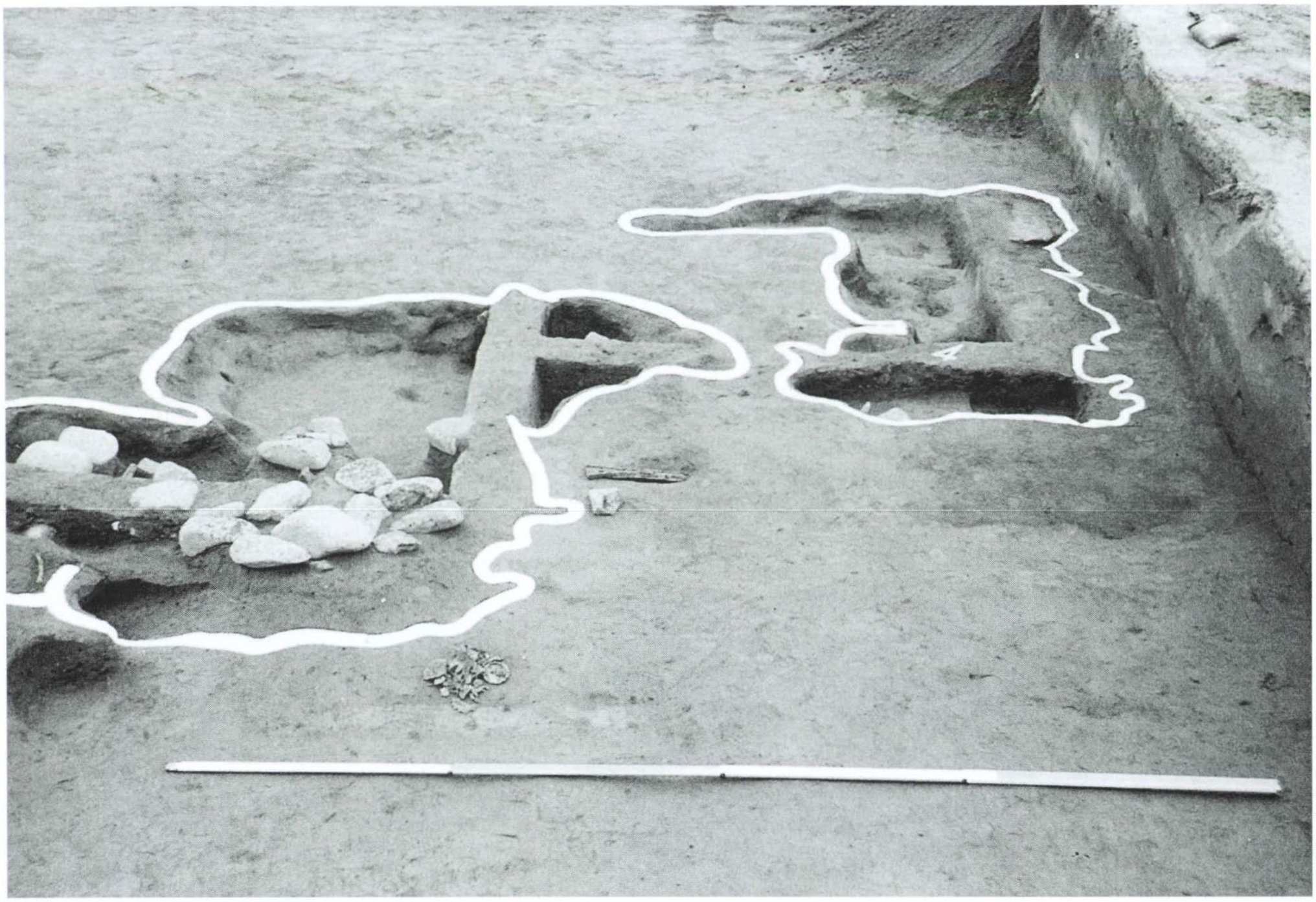


사진 18. Ⅲ지역 3Tr 주거지 2, 3



사진 19. Ⅲ지역 4Tr 주거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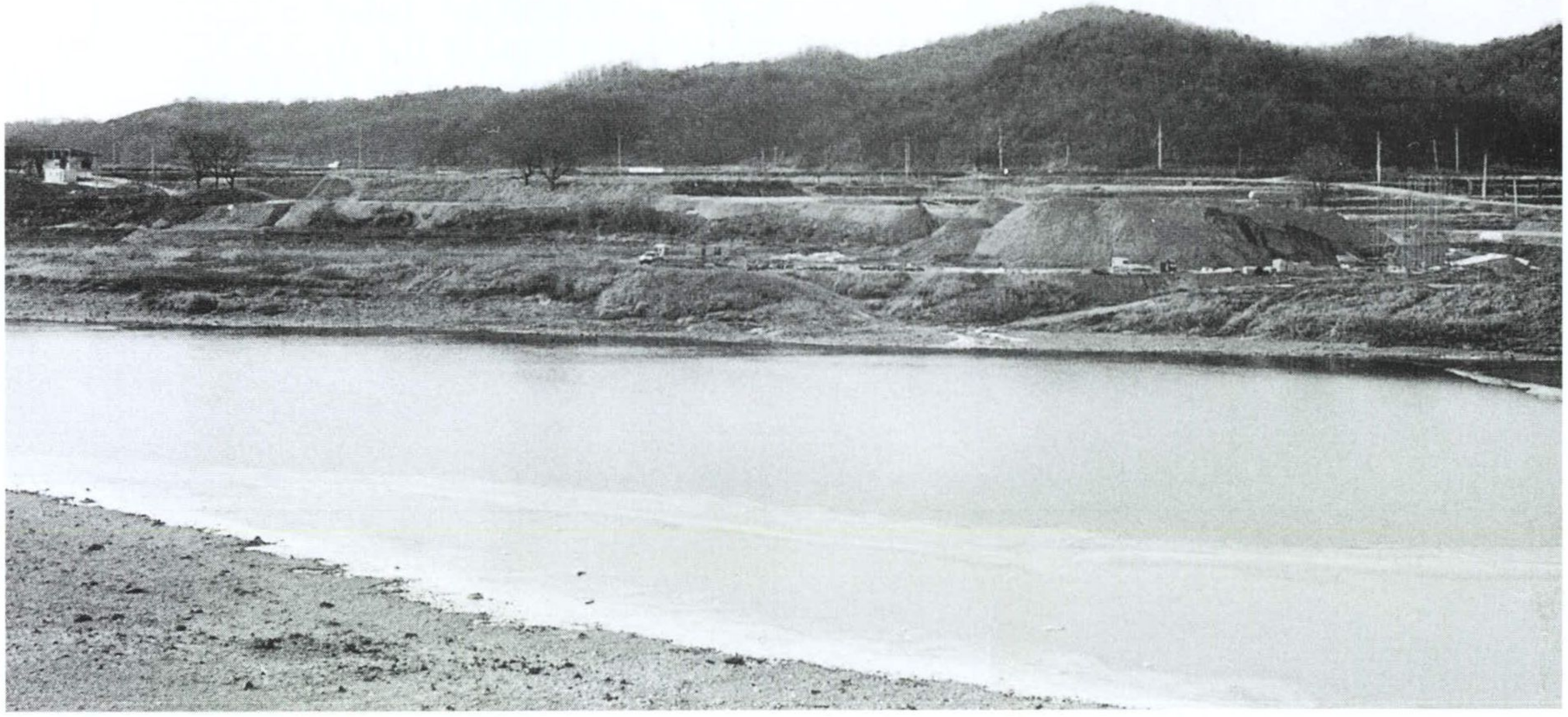


사진 20. Ⅳ지역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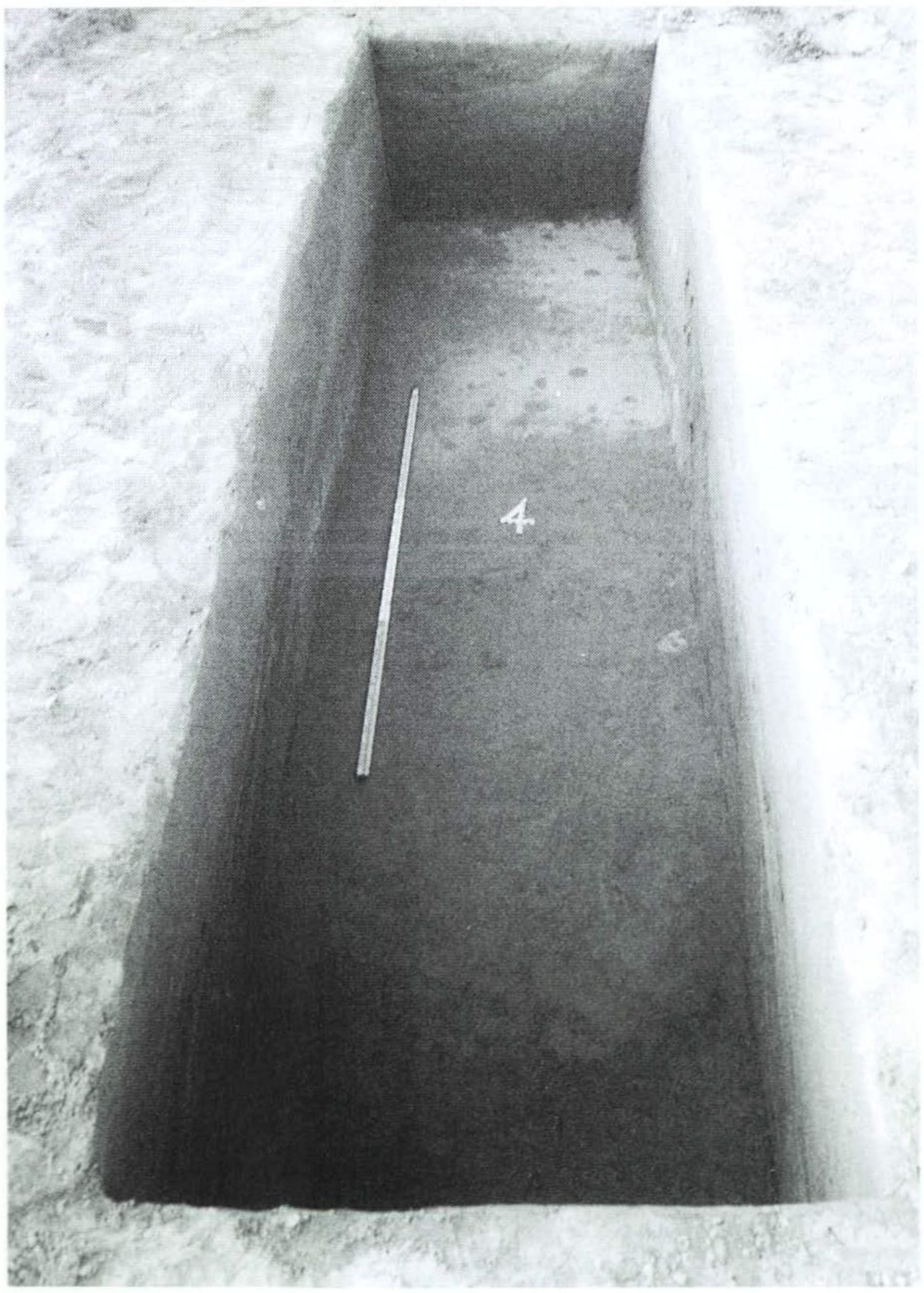


사진 21. Ⅳ지역 가구역 3Tr



사진 22. Ⅳ지역 가구역 3Tr 토층



사진 23.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사진 24.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토층 上



사진 25. Ⅳ지역 나구역 탐색트렌치 토층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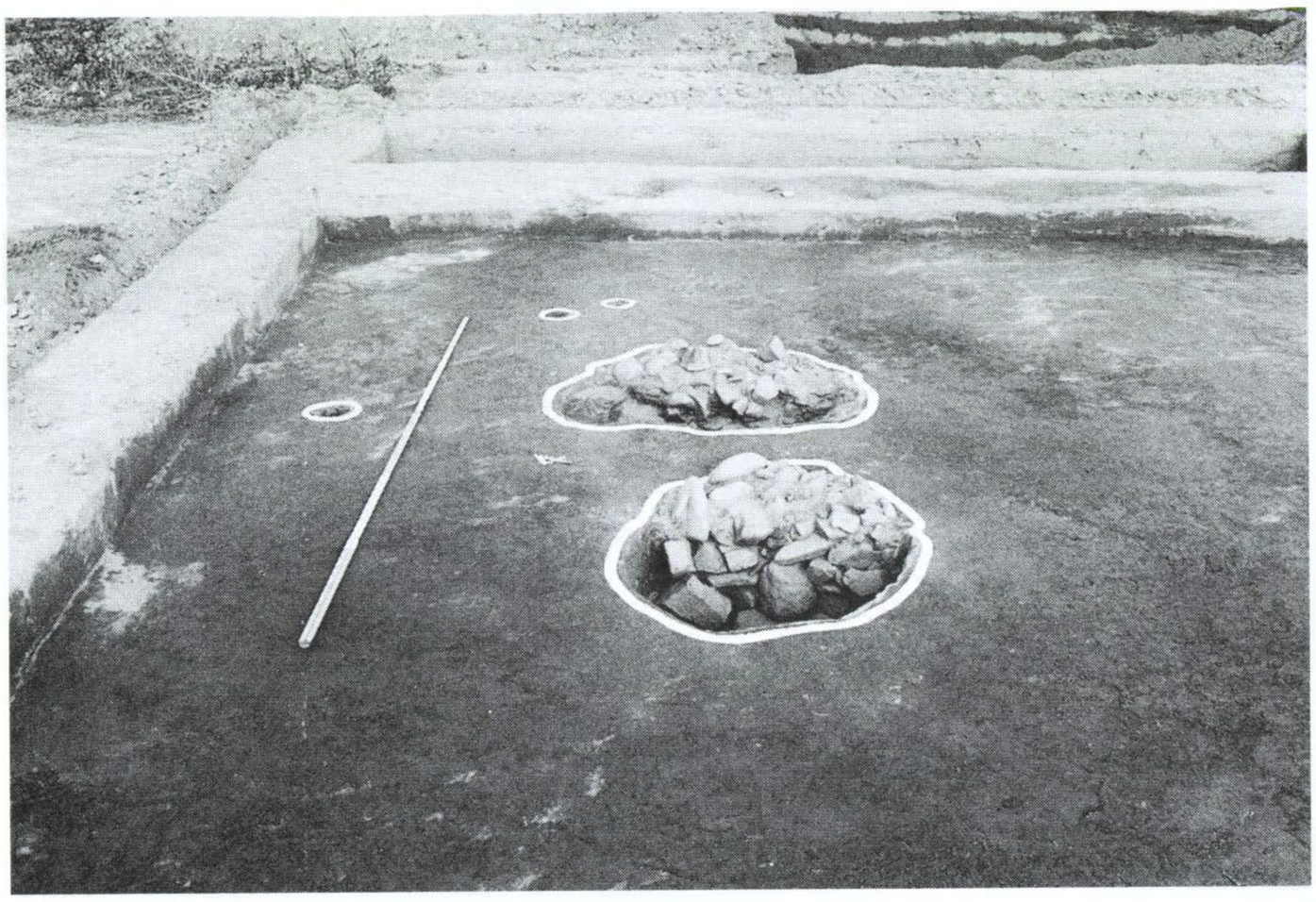


사진 26.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전경



사진 27.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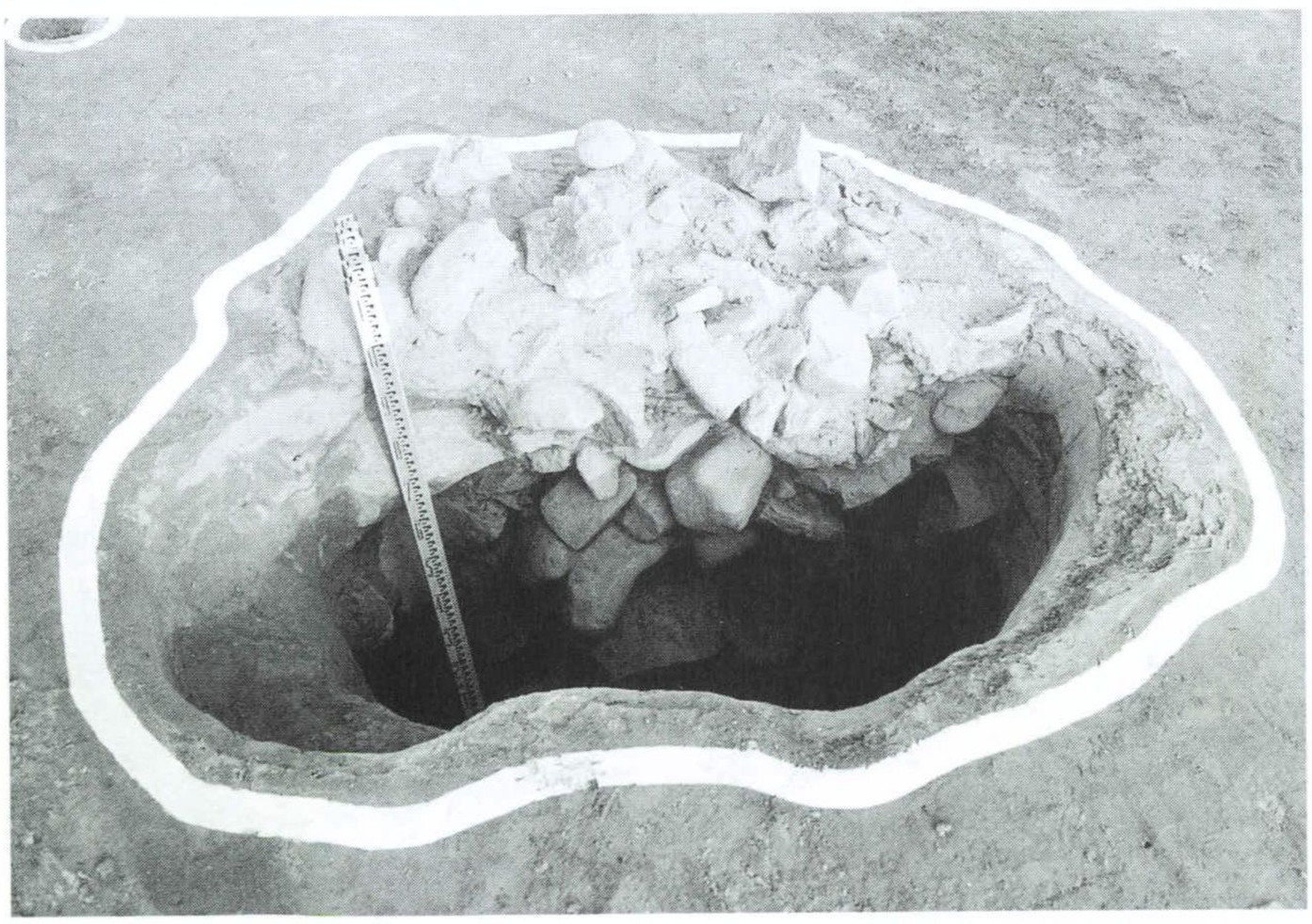


사진 28. Ⅳ지역 나구역 5Tr 쓰레기 폐기움 2



사진 29. Ⅳ지역 나구역 6Tr 주거지(조사 전)



사진 30. Ⅳ지역 나구역 6Tr 주거지(조사 후)



사진 31. Ⅳ지역 나구역 6Tr 화덕자리(조사 전)



사진 32. Ⅳ지역 나구역 6Tr 화덕자리(조사 후)



사진 33. Ⅳ지역 다구역



사진 34. Ⅳ지역 다구역 2Tr(3차복토선)



사진 35. Ⅳ지역 다구역 3T(2차복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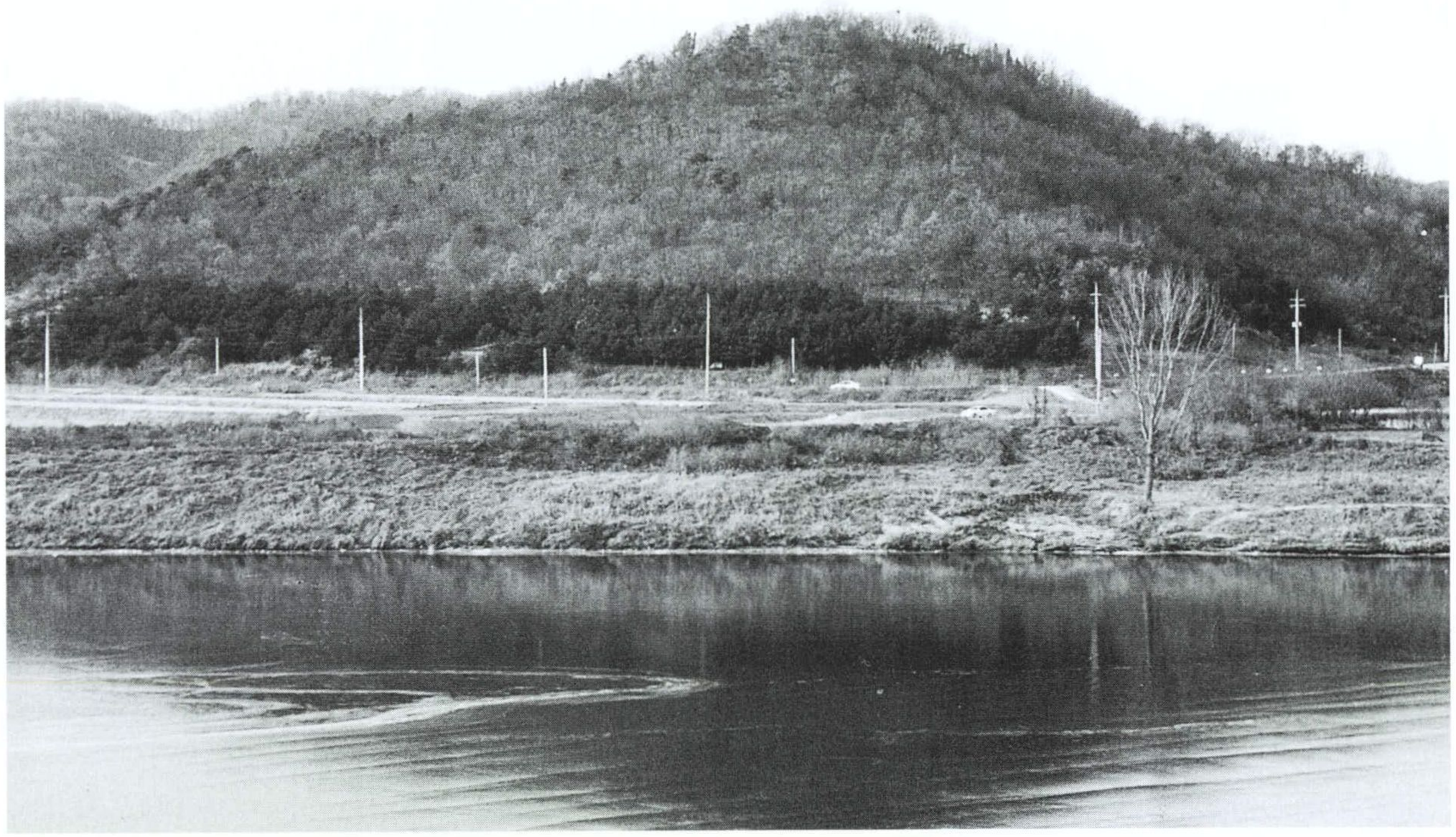


사진 36. 기타지역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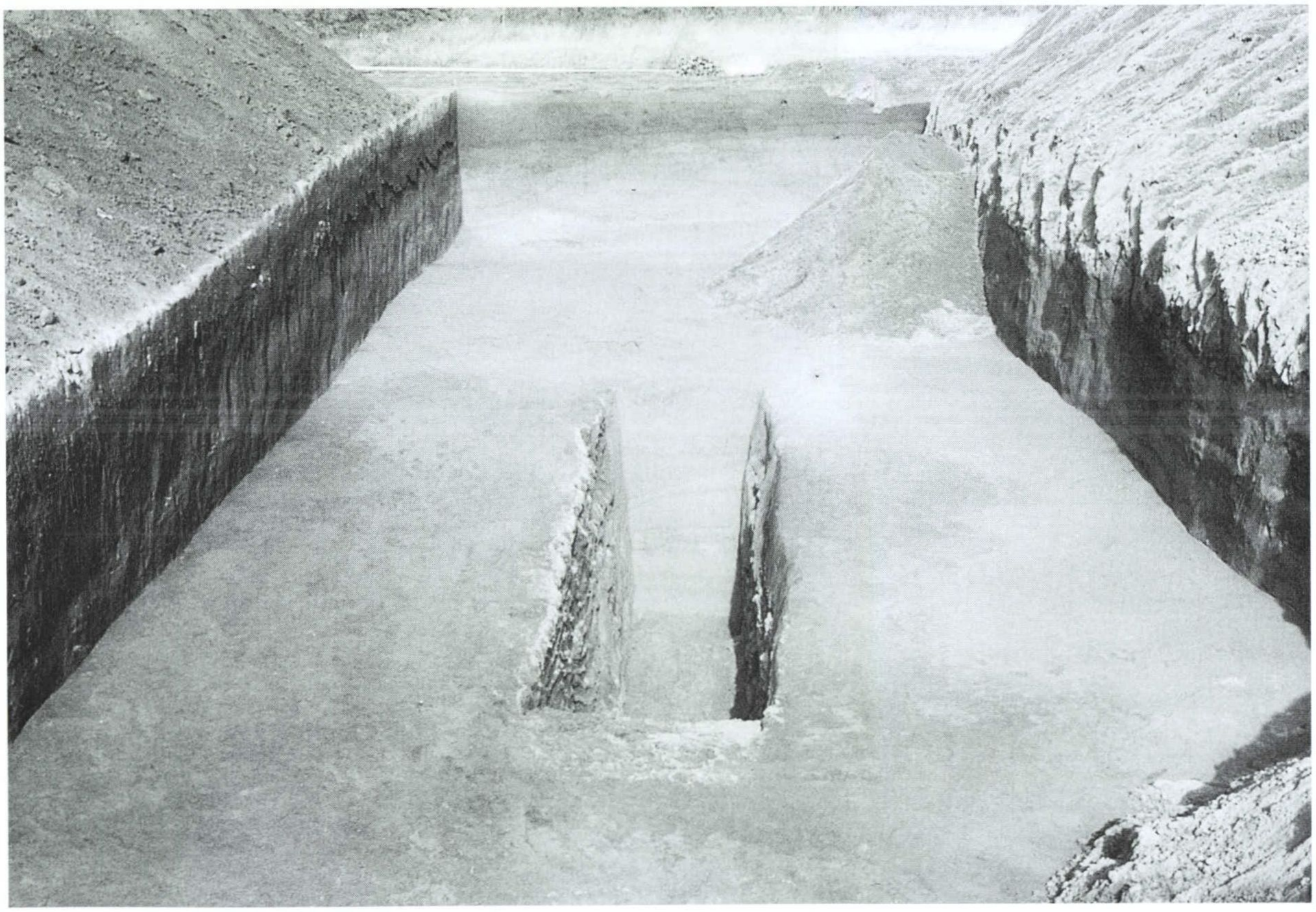


사진 37.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사진 38.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토층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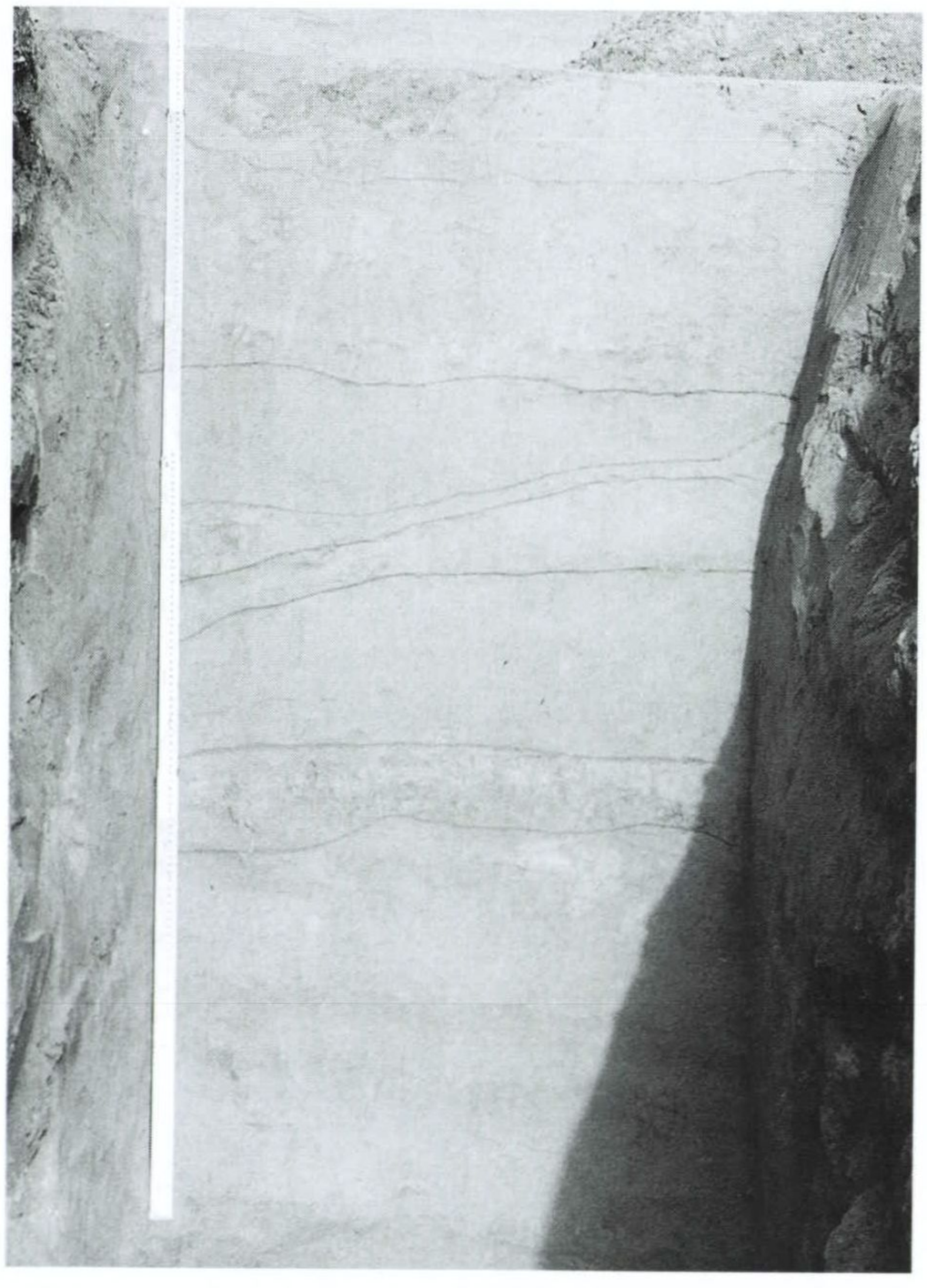


사진 39. 기타지역 탐색트렌치 토층 下



사진 40. 기타지역 확장트렌치



사진 41. 기타지역 확장트렌치 토층



사진 42. 몸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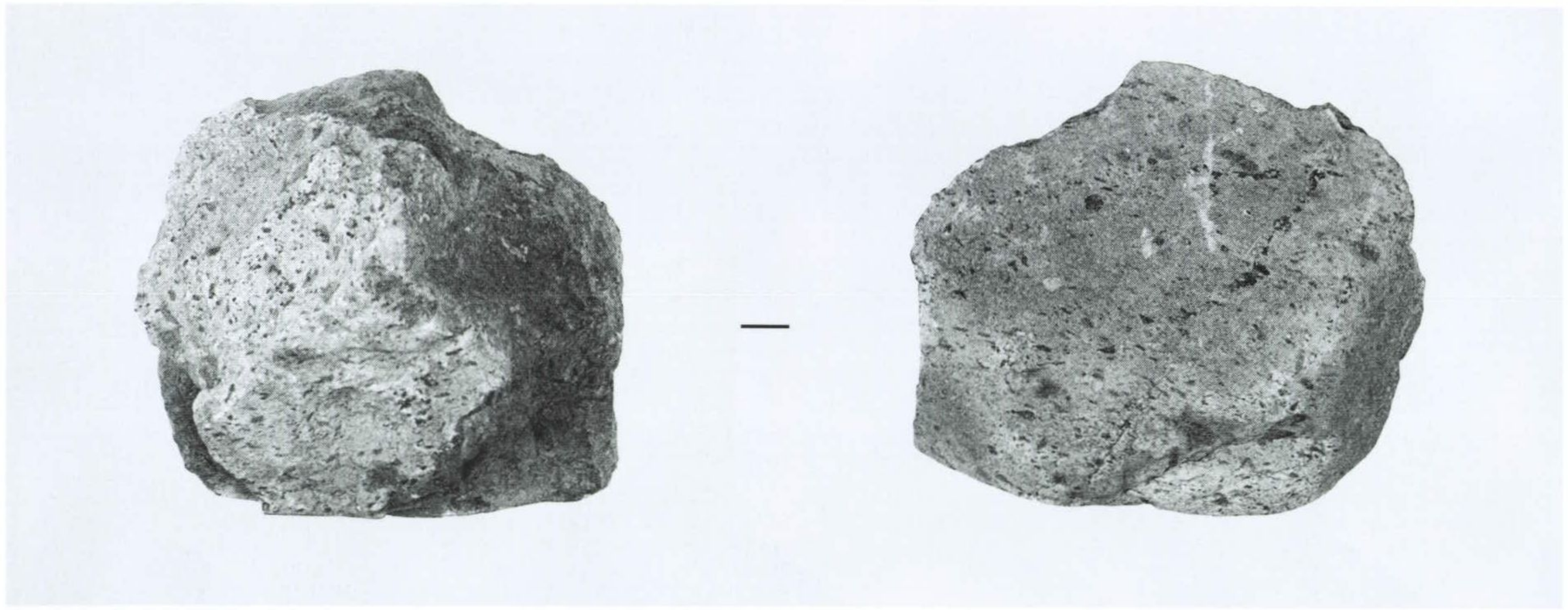


사진 43. 몸돌 ②



사진 44. 몸돌 ③



사진 45. 긁개



사진 46. 돌도끼



사진 47. 돌대패날



사진 48. 돌끌



사진 49. 돌화살촉



①



②



③



④

사진 50.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



①



②



③



④



⑤

사진 51.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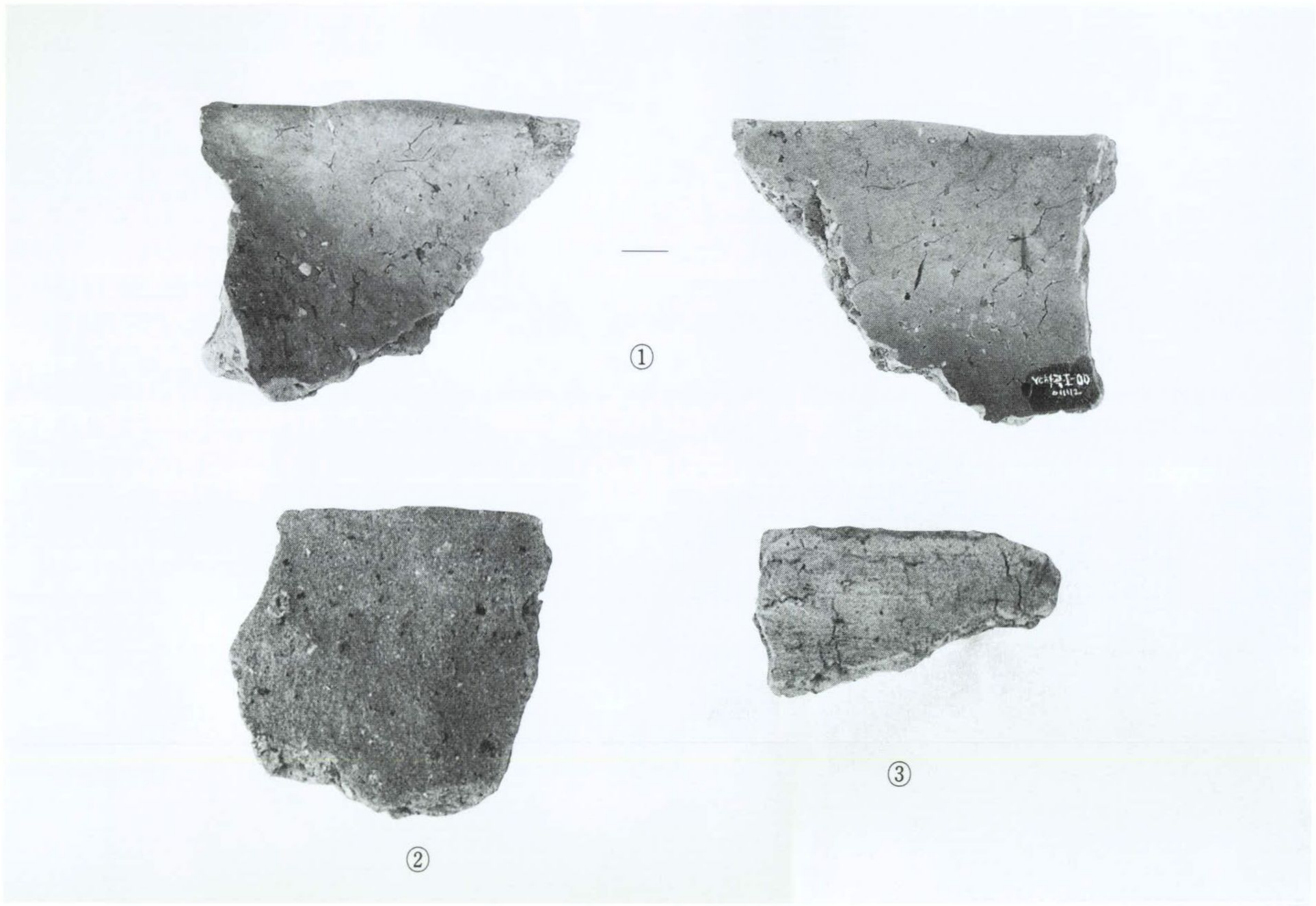


사진 52. 무문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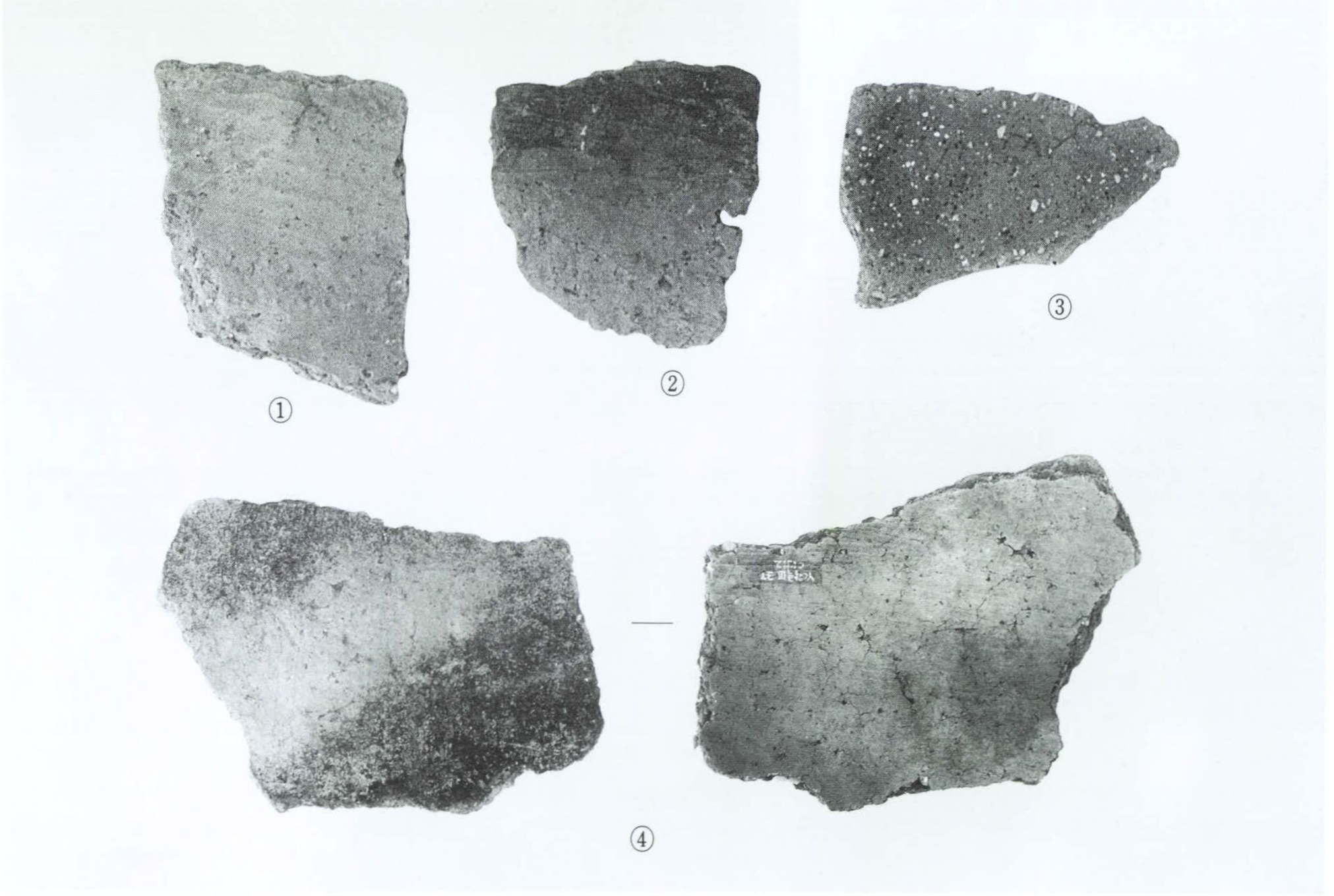


사진 53. 무문토기 동체부편



①



②



③



④

사진 54. 무문토기 저부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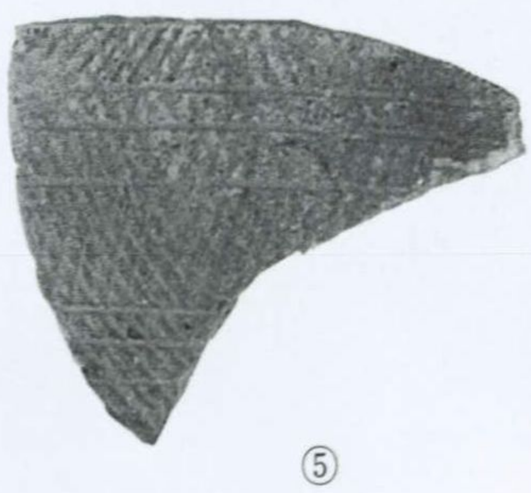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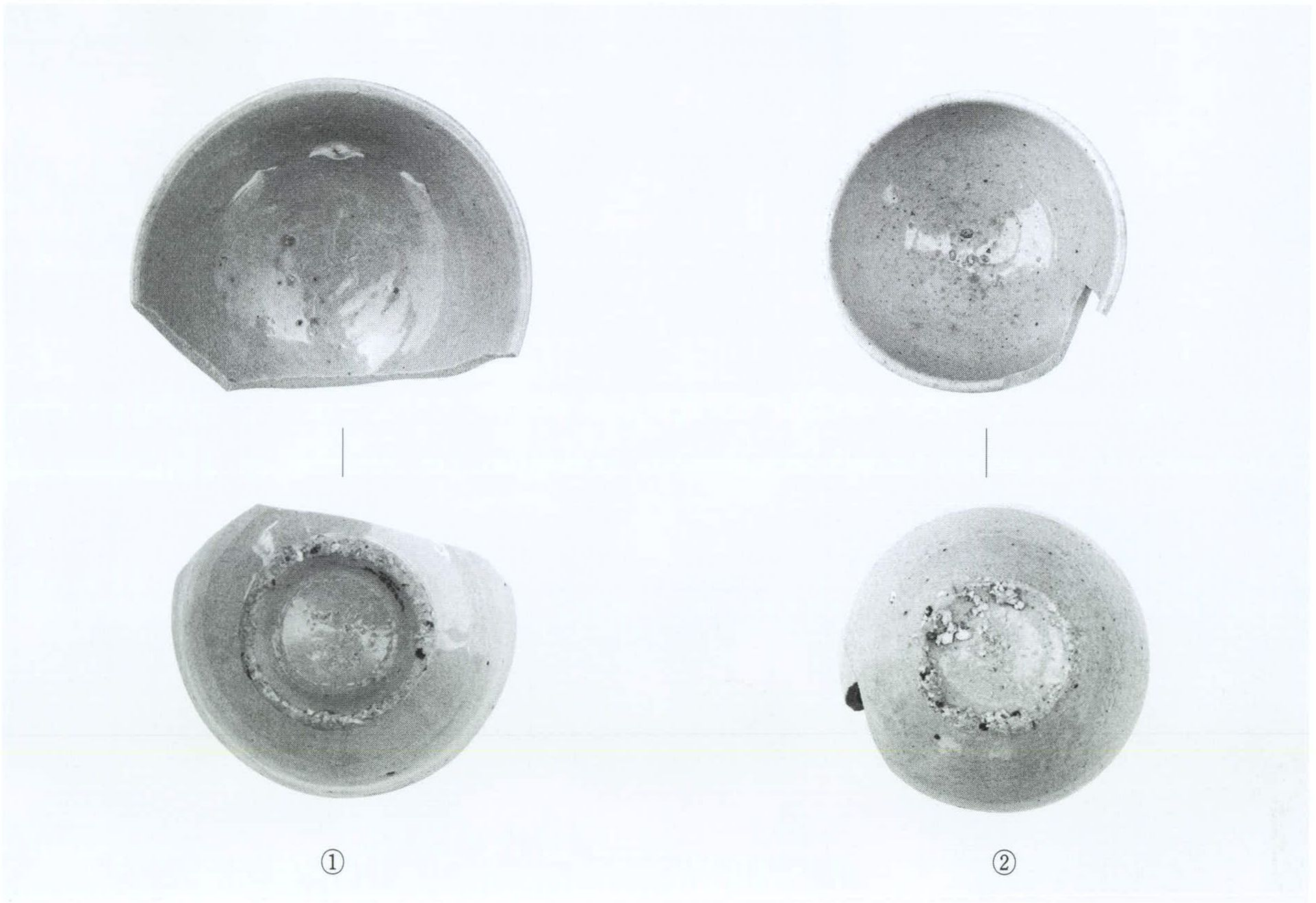


④



⑤

사진 55. 백제토기편



①　②

사진 56. 백자잔



①　②　③

사진 57. 백자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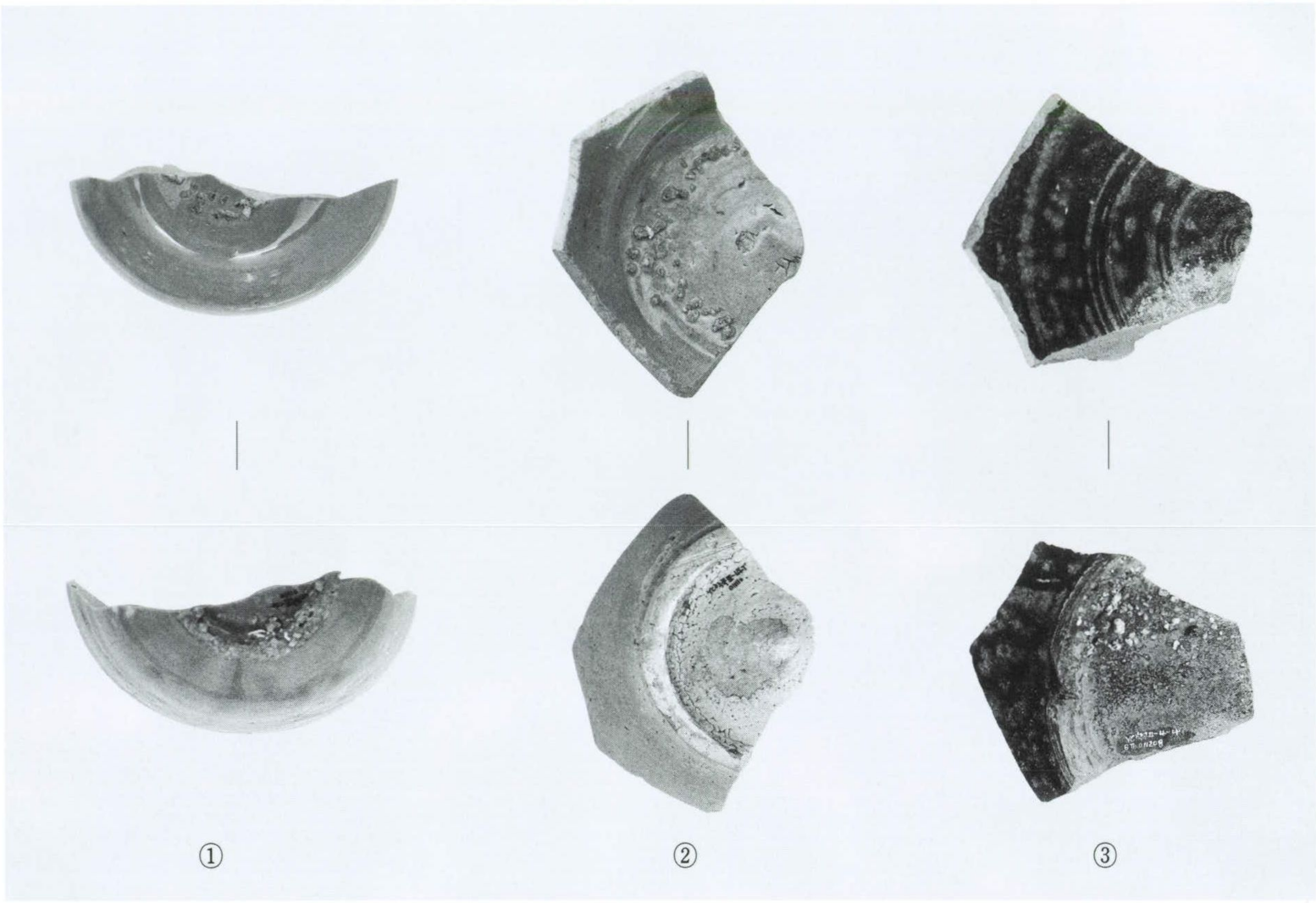


사진 58. 백자대접, 흑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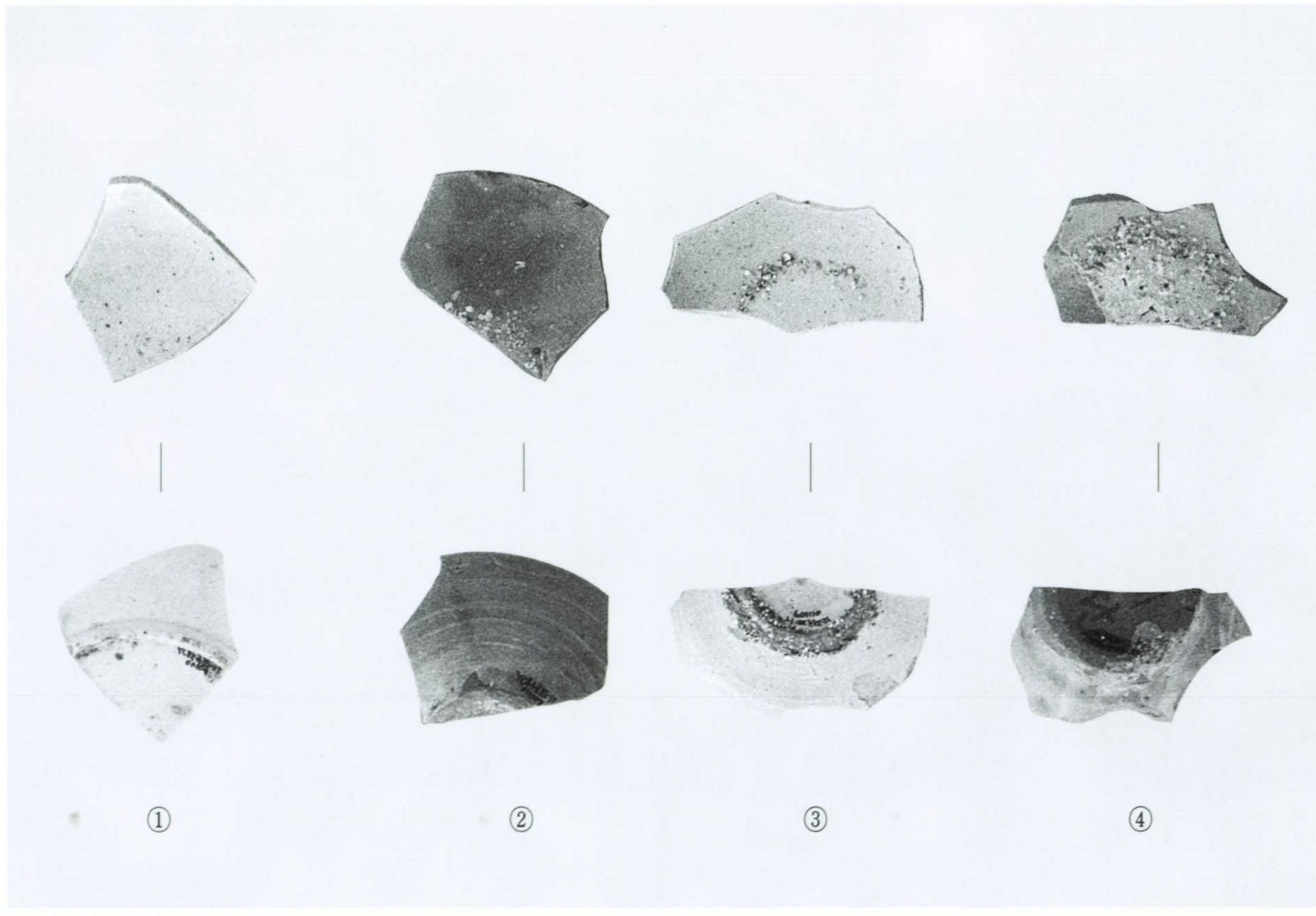


사진 59. 백자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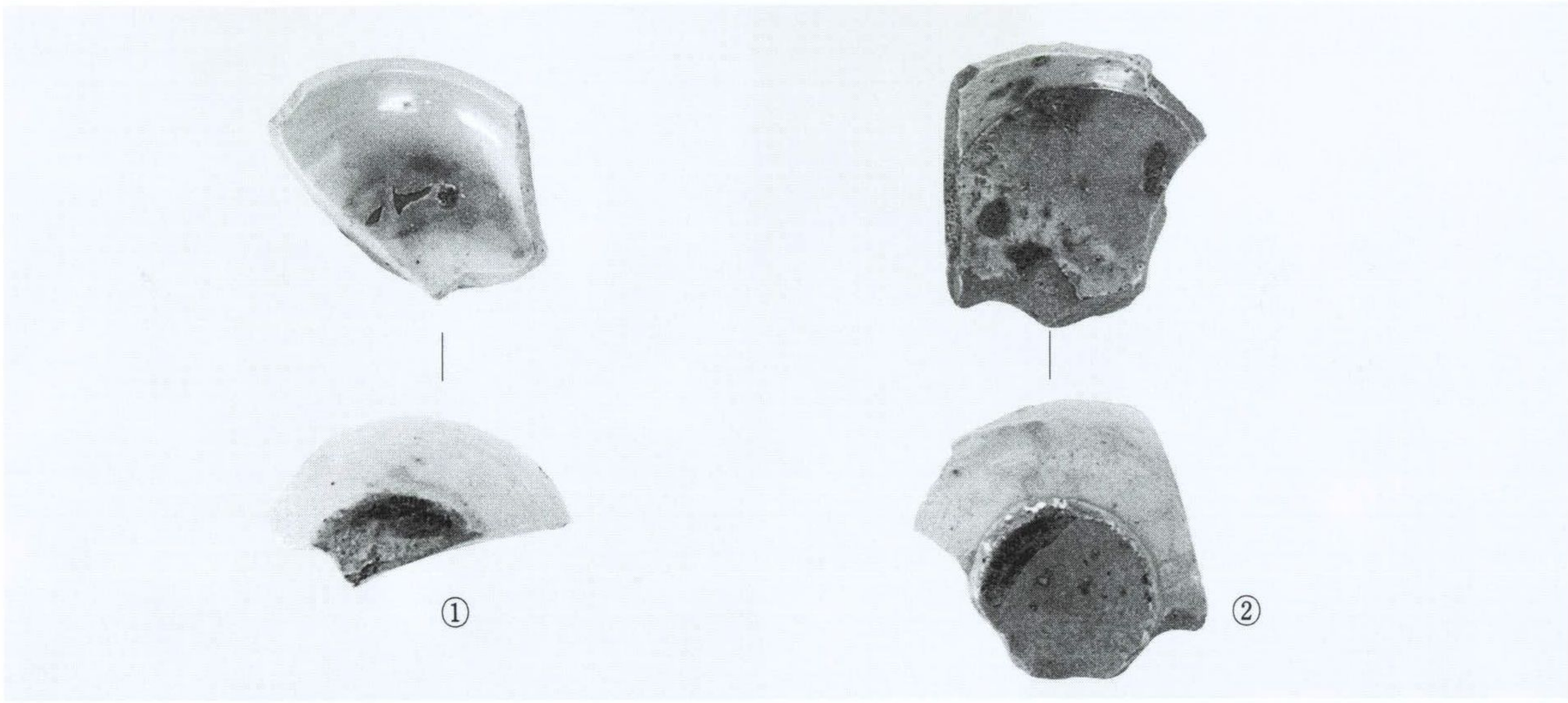


사진 60. 백자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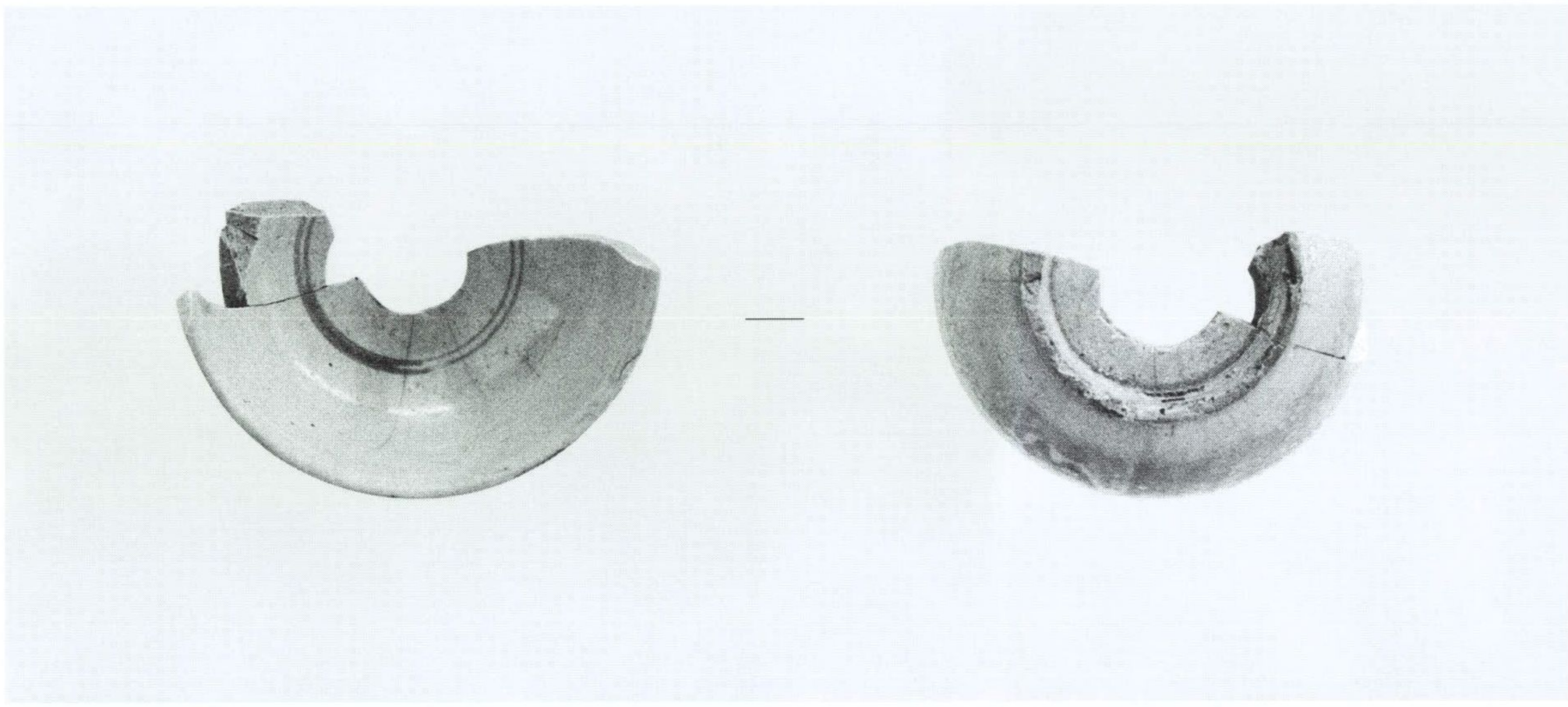


사진 61. 백자청화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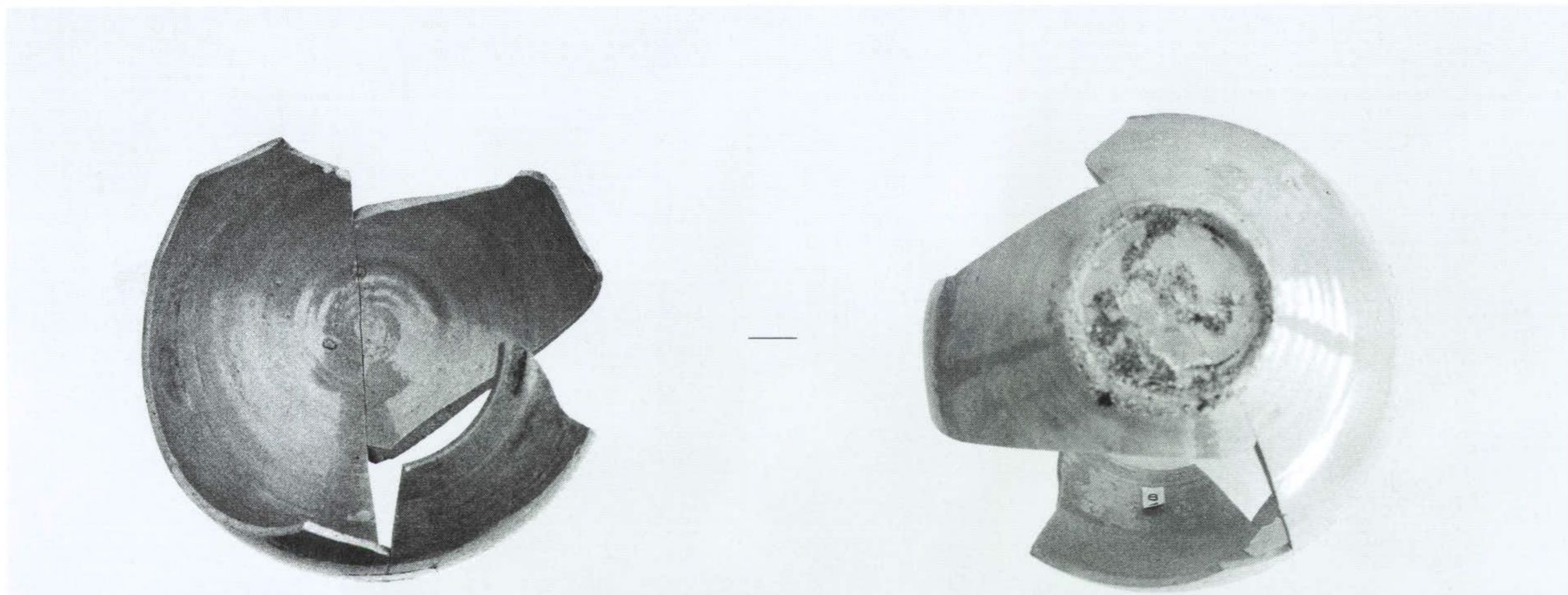


사진 62. 백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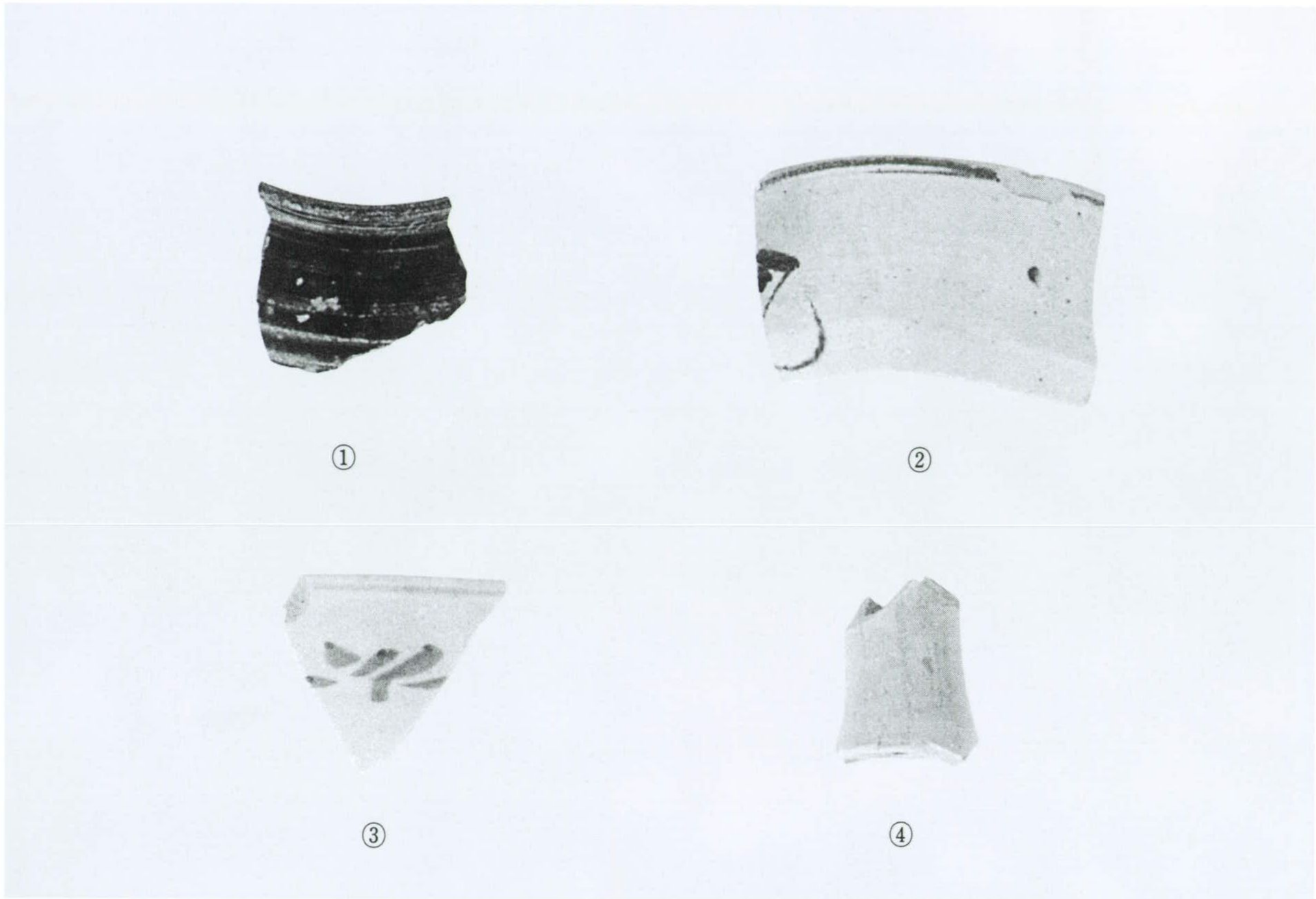


사진 63. 각종 자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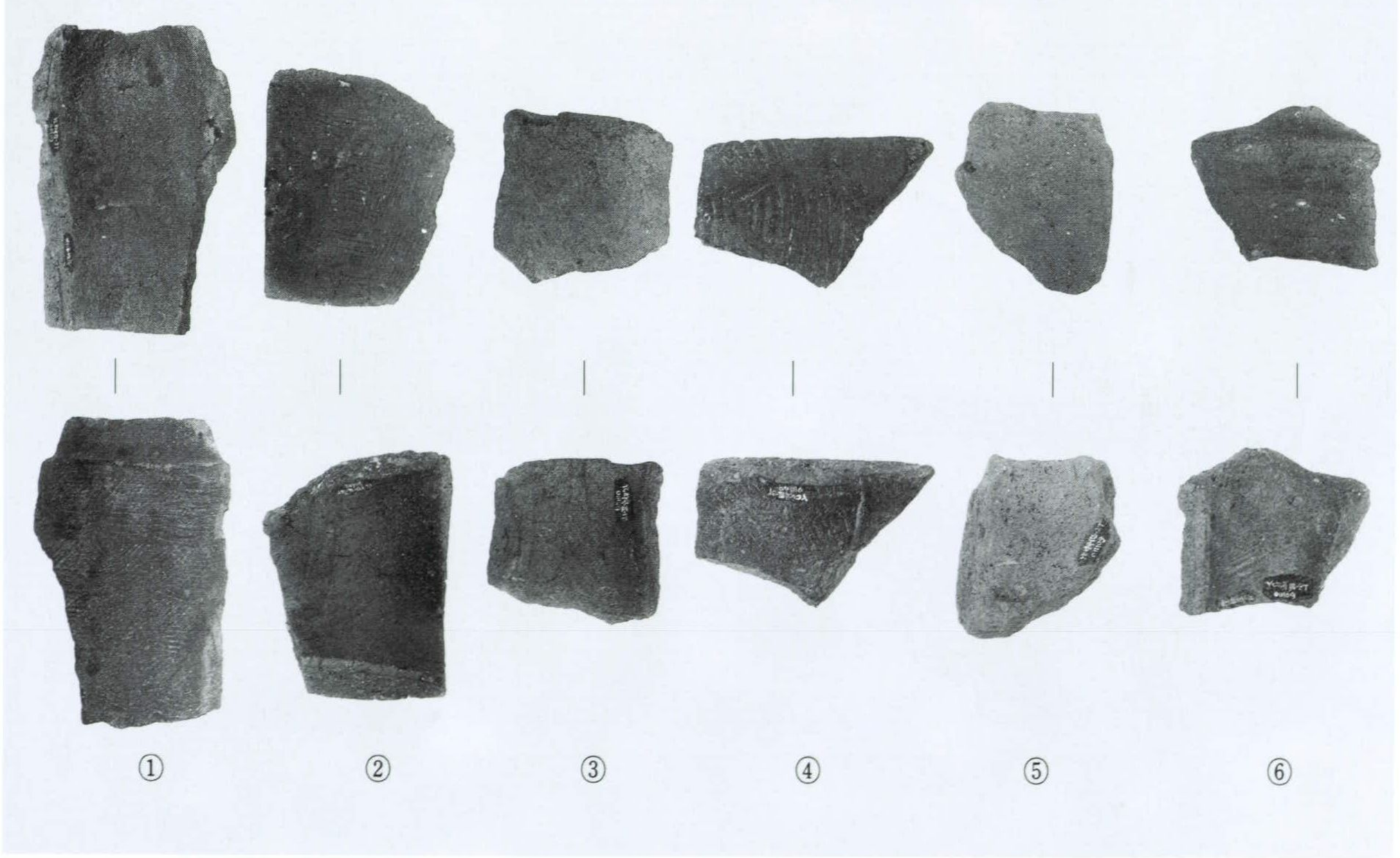


사진 64. 수키와



⑦





⑧



⑨





⑩



사진 65. 수키와, 암키와



사진 66. 지도위원회 모습

調査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內 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發行日	2002年 5月 3日
發 刊 機 關	名 稱		畿甸文化財硏究院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 E L		031) 258-5105	FAX	031) 258-5106
執筆 · 編輯者	김아관, 이동성, 김진영				
調 査 緣 由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內 遺蹟에 대한 범위 파악과 발굴 시행 여부 확인, 鶴谷堤 積石塚에 대한 학술정보의 확보				
調 査 擔 當 者	이동성				
遺 蹟 所 在 地	京畿道 漣川郡 百鶴面 鶴谷里 일원				
調 査 面 積	약 38,300㎡(약 11,586평)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Ⅰ지역	미 상	민묘 2기, 회곽묘 1기	없 음	지 표 :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화살촉	
Ⅲ지역	미 상	군용 참모 1기, 주거지 4기	없 음	주거지 : 조선시대 토기, 자기 지 표 :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구석기	
Ⅳ지역	미 상	쓰레기폐기움 2기, 주거지 1기	없 음	주거지 : 근대 토기, 자기 지 표 :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돌끌, 돌대패날	
기타지역	미 상	유구 없음	없 음	지 표 : 토기, 자기	

■ 현장조사

- 조　　사 : 이동성, 김진영, 이강호, 허영진, 신승철, 노성민, 김태홍, 이수정
- 토층실측 : 이동성, 김진영, 이수정
- 측　　량 : 이창원
- 현장사진 : 이동성, 김진영
- 유물사진 : 이동성, 김진영

■ 보 고 서

- 원　　고 : 이동성, 김진영
- 편　　집 : 이동성, 김진영
- 유물실측 및 제도 : 임진아, 김진영, 윤희봉
- 교　　열 : 장경호, 김성태, 김아관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內 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2002年 4月 30日 印刷
2002年 5月 3日 發行

編　輯　畿甸文化財硏究院
發　行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7 fax 031)258-5106

印刷處　京畿出版社
住　所　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